

전략연구 2013-05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 II

임재영·김양중·이민정·이종윤·임병철

발 간 사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우리는 지역 내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충남도민들의 일인당 GRDP 및 그의 성장률은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수준이 향상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충청남도가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도 내에서 권역간,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의 심화를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충남이 자살률이 높은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지역경제 성장의 결과가 도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소득증가가 도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면, 자살률이 증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는 일인당 GRDP나 지역의 경제성장률이라는 양적지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내면에 상존하는 도민의 생활수준이나 삶의 만족 등을 포함한 질적인 문제는 등한시 해 온 것은 아닌가라고 자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결과를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통한 생산활동의 증가는 구성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 결과로 주민들의 소비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생활수준이나 만족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증대는 다시 생산을 증대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경제의 순환인 것입니다. 여기서 일인당 GRDP나 경제성장률이 양적인 지표라면, 소비활동의 증대를 통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나 만족도의 변화는 경제의 질적인 지표들입니다. 즉, 경제 내에서 양적인 성과는 필연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경제학의 일반균형이론의 핵심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주된 논의는 이러한 경제이론에 입각한 순환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순환 이론에 대한 정

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충남의 경제성장이 지역민 삶의 질 수준 제고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토대구축인 절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우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주창되어온 내발적 지역발전과 사회자본의 공급에 대한 논의를 보다 체계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순환기조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경제 순환의 문제를 정의내리고, 기초통계의 정비를 통한 진단의 시도는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로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조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의 제시까지는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본 과제가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대형 연구 아젠다 하에 지난 2 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노출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애정 어린 우려에 대해 망각하지 않고 완성도 높고 현실적합성이 제고된 결과물이 생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3년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 II』라는 결과물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우리 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의 임재영, 김양중, 이민정 박사, 그리고 이종윤, 임병철 연구원 등 원내의 연구진과 그리고 그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외부 교수 및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결과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결과물을 제시할 책무가 우리 연구원과 연구진들에게 있음을 주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신동호 외(2012)에 의해 수행된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의 한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향후 궁극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2차 연도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1차연도 연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지역경제 선순환의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1차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경제순환 분석 및 진단 수단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결국 광범위하게 체계 없이 진행된 1차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기초통계의 정비작업이 병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와 도내 시군단위 지역경제 차원 모두에서 구체적으로 경제순환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충청남도 지역경제와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의 순환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득유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의 순환은 경제 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는 개념으로, 이에 걸맞은 기초통계의 정비와 분석방법론이 준비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제 내 모든 경제주체들과 산업부문들의 수입과 지출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사회계정행렬(SAM)과 이를 이용한 분석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시된 한국은행의 16개 광역시도간 지역투입산표를 기반으로 하여 광역 행정구역인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계정행렬(SAM)이 작성되었다. 이 외에도 도내 시군단위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군단위 다지역 투입산출표(MRIO table)이 작성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경제 및 사회계정은 일반균형 이론체계 하에서 지역의 소득유출을 통한 지역경제 순환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참고로 일본의 經濟通産省에서는 자국 내 광역 지역간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IRIO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물을 통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소득의 역외유출과 경제순환에 대한

개념정립 및 채택된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작성된 사회계정 SAM과 경제계정(MRIO 표)을 이용하여 충청남도과 도내 16개 시군 지역 경제 단위에서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와 O/D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 참고적으로 소득의 유출은 주로 생산활동 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원자재의 조달, 그리고 노동 및 자본 등 본원적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경제학 생산자이론에 포함된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를 통한 이해작업이 선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순환구조가 왜곡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왜곡된 순환구조를 개선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고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된다.

참고로 이런 대안의 모색과정에서 국내외의 선진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단위별로 처해 있는 경제환경이 다르므로, 그 이해와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음이 설명되었다. 결국 지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목표의 설정 및 그 과정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자본을 매개로한 다양한 내발적 지역발전 수단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1차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2차 연구)의 기본방향	5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16
제 2 장 경제의 순환과 지역발전	19
1. 경제순환 논의의 필요성	19
2. 소득의 역외유출과 경제의 순환	21
1) 경제의 순환과정	21
2) 소득의 역외유출	26
3) 지역경제의 자족성과 경제순환	29
3. 내발적 발전과 지역경제 순환	33
1) 신고전적학파의 지역성장 모형	34
2) 신고전 지역성장 이론의 한계와 내생적 성장	37
3) 패러다임 변화: 성장에서 발전으로	40
4)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45
제 3 장 지역경제 순환 분석 및 진단 수단	48
1. 경제계정	48
1) 국민계정	49
2) 지역계정	53
3) 투입산출표	57
4) 투입산출표의 한계와 사회계정행렬	63

2. 경제순환 분석 및 진단 수단	66
1) 경제 및 사회계정 작성의 필요성	67
2) 경제순환 분석 및 진단 지표	71
3. 경제 및 사회계정의 작성	73
1) 작성과정	73
2) 작성결과	76

제 4 장 충청남도 지역경제 순환분석 82

1. 벤치마킹: 일본 지역경제의 소득 역외유출	82
2.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소득 역외유출	93
1)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소득 역외유출	95
2)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지역별 산업별 중간재 및 최종재 이입	105
3) 충남 시군단위 지역경제의 소득 역외유출	108
3. 충청남도 지역경제 순환의 문제점과 과제	114
1) 충남 지역경제 순환의 문제점	114
2) 지역경제의 과제	117

제 5 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119

1. 연구결과 요약	119
2. 제언 및 후속과제	122
1) 연구의 한계	122
2) 후속과제	123

부 록 125

부록 I. 일본 경제통산성의 2005년 기준 IRIO표	125
부록 II. 충청남도 사회계정행렬(Micro SAM)	142

표 목 차

<표 II-1> 2 재화, 2 요소 경제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지출	24
<표 II-2> 지역 에서 소득의 역외유출 원인 및 목적지	29
<표 II-3> 신고전적 지역균형성장 이론의 암묵적 가정	38
<표 II-4> 신고전적 가정의 수정과 그 결과	40
<표 II-5> 경제발전 vs. 경제성장	41
<표 II-6> 사회적 자본을 핵심생산요소로 간주한 생산함수	44
<표 III-1>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5대 국민경제통계	50
<표 III-2> 지역소득 통계의 구성	56
<표 III-3> Tokyo 대학 지역경제 순환모형의 특성 요약	69
<표 III-3> 지역경제 단위별 경제통계 제공현황(2013년 현재 기준)	71
<표 III-4> 지역경제 순환분석 항목(광역시도 지역경제 기준)	72
<표 III-5> SAM과 IO 표 상의 산업분류	77
<표 III-6>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사회계정 행렬(macro SAM)(2005년 기준)	79
<표 III-7> 충청남도 시군 중심 31-지역 1-산업 투입산출표*(2005년 기준)	81
<표 IV-1> 한·중·일 3국의 무역의존도(2009년 기준)*	82
<표 IV-2> 일본 지역경제 개요(2005년 기준)	84
<표 IV-3> 일본의 사례: 중간재로 인한 소득유출(중간재 조달구조)	85
<표 IV-4> 일본의 사례: 최종재*로 인한 소득유출(최종소비지출구조)	86
<표 IV-5> 일본의 사례: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파용자보수)의 이출입	88
<표 IV-6> 일본의 사례: 부가가치 중, 자본소득(영업잉여)의 이출입	90
<표 IV-7> 일본의 사례: 부가가치* 이출입 구조	92
<표 IV-8> 우리나라 지역경제 개요(2005년 기준)	94
<표 IV-9> 소득의 역외유출: 중간원자재 거래(2005년 기준)	96
<표 IV-10> 소득의 역외유출: 최종재(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중심) 거래(2005년 기준)	98
<표 IV-11> 부가가치의 역외유출: 파용자보수(2005년 기준)	100
<표 IV-12> 부가가치의 역외유출: 영업잉여(시나리오 #1*)	102
<표 IV-13> 부가가치의 역외유출: 영업잉여(시나리오 #2*)	103
<표 IV-14> 부가가치의 역외유출: 영업잉여(시나리오 #3*)	104

<표 IV-15> 충남 지역경제의 산업별 중간재 역외이입 구조	106
<표 IV-16> 충남 지역경제 산업별 최종재 소비지출(민간 및 정부) 구조	107
<표 IV-17> 충청남도 시군단위 지역경제 개요	110
<표 IV-18> 충청남도 내 시군단위 지역경제 유형구분	111
<표 IV-19> 시군별 중간재 이입규모(2005년 기준)	112
<표 IV-20> 시군별 최종재(민간 및 정부 소비) 이입규모(2005년 기준)	113
<표 IV-21> 분석결과 요약: 충남 지역경제의 현실(2005년 기준)	116
<표 IV-22> 경제 및 사회계정을 이용한 분석결과 요약	121

그림 목 차

(그림 I-1) 신동호 외(2012) 연구 내용 및 과정	7
(그림 I-2) 연구의 공간적 범위	12
(그림 I-3) 연구의 내용적 범위	14
(그림 I-4) 연구의 수행체계	17
(그림 I-5) 연구의 진행과정	18
(그림 II-1) 경제의 순환과정	21
(그림 II-2) 소득의 역외유출	28
(그림 II-3) 경제 단위의 규모에 따른 자족성 정도	30
(그림 II-4) 도시형성의 경제적 원인	31
(그림 II-5) 경제순환과 지역발전의 관계	45
(그림 III-1) 국민계정체계(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50
(그림 III-2)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51
(그림 III-3) 소득의 분배와 처분	52
(그림 III-4) 투입산출표의 구조	58
(그림 III-5) 지역 IO 표의 구조	61
(그림 III-6) 일본 IRIO의 기본 구조	62
(그림 III-7) SAM의 일반 구조	64
(그림 III-8) 다지역 사회계정 SAM의 기본구조	65
(그림 III-9) 도쿄대학 『지역경제 순환연구회』의 지역경제 순환모델	68
(그림 III-10) 시군단위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과정	74
(그림 IV-1) 경제순환을 위한 과제	118
(그림 V-1) 후속 과제	12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수출중심 경제정책에 따른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충청남도 지역은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경험해 왔다. 하나는 지역경제의 활황이다. 이는 주로 지역의 외부적 요인, 특히 수요증대에 기인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은 직접적으로 충남을 포함한 전 지역들의 해외수출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직접적 수출증가 외에 수도권 등 타 지역들의 수출 증가를 통해 유발되는 충남지역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도 지역경제 성장의 또 다른 중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현상은 지역경제 성장의 성과가 고르게 배분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도내 권역간 · 계층간 격차 심화의 문제이다.

통계청 등의 기관들에 의해서 매년 발표되는 양적(quantitative) 경제지표를 보면, 지역경제의 생산증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수준 향상으로 충남도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사야할 정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대 놓고 자신 있게 내세울만한 형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 지표 외에도 지역의 자살률이 전국 광역 시도 중 강원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¹⁾. 즉,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민들 삶의 만족이나 행복 등으로 대변되는 질적인 지표에서는 부정적 결과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의 자살률이 높다 함은 일인당 GRDP나 경제성장률 등과 같은 양적 경제지표의 개선으로부터 도출되는 성과가 주민들 사이에 고르게 배분되지 못함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내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특정된 태안과 청양, 금산 등의 경제성장이 충청남도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직관적으로 ‘경제성장 성과가 지역 내에 고르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은 타당한 것이다.

1) 각종 인터넷 포털은 물론 중앙 및 지방일간지들에서는 충남의 자살률에 대해 우려 어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한겨레 2013. 6.13, 동아일보 2011. 10. 3. 외). 특히 충청남도(2013)의 『2013년 충남도정 운영방향』, 시장군수 초청간담회 자료를 근거로 충남의 자살률이 강원도에 이어 전국 광역 시도 중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 대처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양적지표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와 결합될 때,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가능하다. 굳이 Hicks가 제안한 보상변화(compensation variation, CV)나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의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복지경제학(welfare economics)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 측정 및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이 활발하게 다루어져 온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Rothbard, 1956; Slesnick, 1998; Besley, 2002 외). 만일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이 높아졌다면, 지역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찾기 힘들 것임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경제이론대로 지역의 생산이 증대되면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높아지고, 이러한 소비증대가 다시 지역의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경제 선순환(virtuous circulation in economy)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경제성장의 양적 지표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계되는 개인들의 만족(satisfaction)이나 효용(utility)의 변화까지이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야 비로서 질적인 지표(qualified index)까지 언급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의 복지수준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순환 중에서 생산 측면은 주로 GDP나 일인당 GDP 같은 양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되며, 분배된 소득을 통해 구현되는 소비지출은 경제 내 구성원들의 만족이나 효용 수준과 같은 주관적 척도와 연결되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이론 체계 내에서의 일반적 설명이다. 따라서 경제의 순환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인 문제에게까지 논의의 대상과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중앙이나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public sector)에서 의도하는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서 질적인 측면까지 강조되는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경제순환의 문제를 여전히 주로 양적 측면에서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주로 경제학 영역, 특히 지역경제 연구자들의 나태함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를 매개로 하는 경제의 생산과 소비, 즉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의 문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

호작용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과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생산량(또는 규모)과 효용 등 경제의 양적지표를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복지경제학의 영역에 접목시키는 경우, 종합적으로 단일한 체계 내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유기적인 경제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이 경제학의 일반균형 이론체계(general equilibrium framework)이며,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관련 이론이 정립되고 적용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²⁾ 특히 관련 연구활동의 지원과 실제적용을 위해 일반균형 이론체계에 입각한 경제통계의 구축이 UN이나 OECD 등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제안되어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의 구축과 적용이다(UN 1993, 한국은행 2005 등).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겠지만, 결론적으로 경제순환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루기 위한 경제이론체계와 실증자료의 처리 문제는 그 기본 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다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제순환의 문제가 구체화되고 세밀화 되는 경우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체계가 보다 정교하게 고안되고 수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제통계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대안제시 결과의 현실적합성은 제고되는 것이다. 다만 지역발전의 사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고전적인 가정을 암묵적으로 그대로 수용·답습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학문의 영역은 물론 실제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감히 이견을 두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의 순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경제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절차는 연구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순환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은 금전이나 시간, 인력 등 공공지출(government expenditures)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써서 한정된 자원문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통해 왜곡된 경제순환을 개선하고자 공공부문이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까지 더해지는 옥상옥의 어려움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2) 이에 대해서는 OECD나 The World Bank, EU 등 국제기구들의 working paper들이나 지역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사회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후관계에 입각해서 설정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경제순환 문제의 이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내발적 발전
- 일반균형 이론체계에 입각한 지역경제 통계정비 통한 충남 지역경제 순환 진단
-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대안 모색

참고로 본 연구는 2012년에 충남발전연구원의 전략연구과제로 진행된 1차 연구 신동호 외(2012),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연구』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둔다. 특히 여기서는 1차 연구에 포함된 경제선순환의 개념 및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구체화 시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논의의 대상을 축소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지역의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개념과 연계하여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유형화 및 범주화함으로써 정책적 수단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경제순환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일본 등 선진국들의 예를 통해 일반균형 이론체계에 입각한 경제통계 정비작업과 병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순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추가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향후 경제선순환 구조구축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과 관련된 의태분석(simulation)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참고로 향후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정책구상 및 사업개발의 단초를 제공하자 한다. 이 과정은 주로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과 그리고 국내 선진 사례들을 정리하고 체계화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입안되고 제시되는 정책이나 사업은 향후 의태분석 과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평가됨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거대한 연구 아젠다(agenda)를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문제는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구분이나 기능에 따른 사회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은 다양하며 상이하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수행된 연구결과만으로 일반화된 결과를 제출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 상태에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내용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순환과 관련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현시에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 및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체 과정의 한 부분 및 과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앞에서 설명한 연구목적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먼저 1차 연구인 2012년도 선순환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진행방향에 대해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과 공간 등의 측면에서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고 제시하도록 한다.

1) 1차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2차 연구)의 기본방향

신동호 외(2012)에 의해 이루어진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경제순환의 문제를 지역차원에 대입하여,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안모색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연구토양이 척박한 상태에서도 그동안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고 증명되어 온 성과물들이 기초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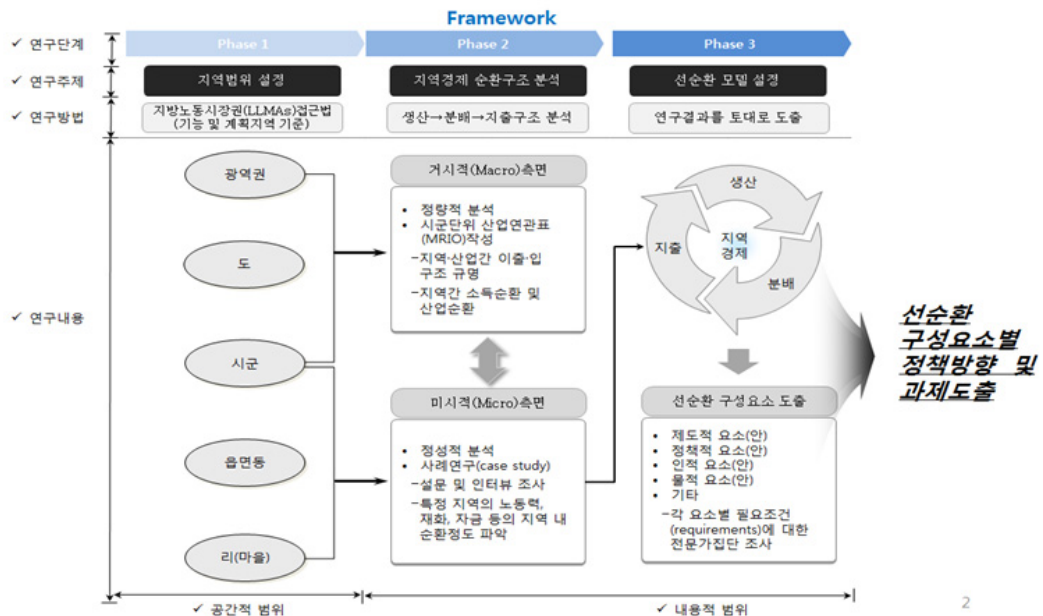
자본운용을 중심으로 한 양적 경제성장론의 한계와 폐해에 대한 우려와 비판으로부터, 주로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의 영역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주창하는 내발적 발전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을 향유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이루어져 왔음을 관련 문헌이나 연구논문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일부 일본과 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

로 주창되어온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며³⁾, 우리나라에서도 박진도(1999, 2010, 2011 외)와 박경(1999, 2011 외), 정준호(2012), 정준호 외(2012) 등에 의해 제기되고, 그 논의가 꾸준히 발전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논의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지역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의 단계로까지 적용하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내발적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관련하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그 이론과 실제 적용과정에 대해 완벽한 합의도출(consensus) 도출이 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실재하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억측은 적어도 관련된 연구논문, 특히 실증적인 단계까지 거친 논문들의 발표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양상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규범적인 논의가 주로 농어촌의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를 기초로 한 지역발전 문제를 다루는 학문분야로서, 그 공간적 영역이 한정되어 왔다는 특성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관련된 문제를 실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통계자료의 부족과 직결된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는 경제 단위들(local community-based economies)에서 기초적인 통계환경은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국내의 관련 경제통계 환경의 열악성 문제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시도된 1차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학문영역에서 ‘내발적 지역발전과 경제선순환 문제에 대한 이론체계 확립 미흡’과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부실 및 부재’ 등의 문제는 결국 신동호 외(2012)의 1차 연구의 한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된다.

3)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경제학의 거두 Friedrich Von Hayek가 Austria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반해, 오스트리아와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 신동호 외(2012)에서 인용.

(그림 1-1) 신동호 외(2012) 연구 내용 및 과정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내발적 발전과 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단위에서 관련 경제통계를 축적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순환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발적 발전과 경제선순환의 대상이 되는 개별 경제단위에 대해 연구자별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20세기에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을 주도하였던 연구자들에게 인식되는 지역과 현재 내발적 발전론 주창자들이 언급하는 지역은 동일한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한 예로서 수리적인 모형에 입각해서 이론전개를 하는 경우, 양자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관심의 주 대상이 서로 다른 데서 발생하는 인식의 차이는 관련연구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수리나 계량적인 모형을 통해 수치적 결과물(numerical solution)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통계자료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로 광역시도 지역경제 단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반면 내발적 발전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농어산촌의

지역사회 단위의 소규모 경제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였던 것이 사실이다⁴⁾.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자들은 노동과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primal factor)와 여타의 투입요소 들에 의해 지역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이론체계의 특성 상 투입요소의 지역간 이동이나 거래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이와 관련된 경제 통계의 정비와 구축, 그리고 그의 실제 적용 과정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경제학의 영역에서 주류를 형성해 왔음은 간단한 문헌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에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전통적인 물리적 투입요소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무형(intangible)의 투입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내발적 지역발전 연구자들에게는 기존의 통계환경이나 이론체계가 유용하지 않은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⁵⁾ 지역사회 단위에서 실증분석이나 수리모형의 전개를 위한 기초 토양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므로, 그동안 내발적 발전과 경제순환을 실증하는 연구성과들은 제한적이었으며 기술적(descriptive)일 수 밖에 없던 환경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신고전적 이론에 입각한 연구자들이 말하는 지역과 내발적 지역발전 연구자들이 말하는 지역은 때때로는 다르게 인식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자 간에 지역의 정의가 상이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문제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론(theory)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하는 경우, 양자의 이론은 경쟁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이론들을 토대로 발전된 것이고, 내발적 성장이론은 다시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론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Armstrong and Taylor, 2000 외) 된 것임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쉽게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학문의 영역 내에서 양자간의 feedback이 마무리되어 이견이 정리되고 보완 수정을 거쳐 이론체계가 지속되는 과정이 남은 상태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 물론 개별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그 이하의 소규모 지역경제 단위에서 관련통계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이용한 예는 많이 확인되지만,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과 논란의 여지는 실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이 외에도 시장(market)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수급행위에 초점을 둔 기존의 경제이론과 거기에 사회학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해당이론의 적용과 실천 과정에서 운동(movement)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내발적 발전론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자간의 feedback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립되고 정형화된 관련 이론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양상은 1차 연구의 한계로 언급된 분석체계나 적용된 자료의 일관성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들은 주로 기초적인 경제학 이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기초적인 경제학 이론은 한계효용이나 한계생산 등 한계(marginality)와 같은 수학적 개념과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한계학과 이후의 현대경제학에서 이루어진 논리전개를 말하는 것이다.⁶⁾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어려운 여건에서 그동안 주로 규범론적 영역에서 논의되어 온 '내발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문제를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대안모색을 시도한 신동호 외(2012)의 1차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관련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전개에는 미흡한 점이 목격되는데, 이는 선행적 연구의 특성에 기인한 필연적 현상인 것이다.

공간적으로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문제를 다루는 대형 연구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문제를 다루는 제 2차 년도의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기본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교역할에 충실하게 작용함을 목표로 금년도 본 연구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대형 연구 아젠다 하에서 신동호 외(2012)의 후속작업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적으로는 완결된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의 한 부분 및 과정으로서 선행연구를 보완 계승하여, 3차연도인 2014년 후속연구의 완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경제통계의 정비와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기본방향은 밑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이론적으로 일반균형 체계 하에서 경제순환 진단과 분석토대를 구축하자 함이다. 이와 관련된 각 세부항목 별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6) 한계이론은 영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작, 전개 되었으며, 이후 일반균형과 분배, 더 나아가 후생경제학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등 현대경제학과 고전경제학의 구분이 되는, 경제학의 Magna Carta라고 언급되기도 함(BRITANICA, <http://preview.britannica.co.kr>)

<기본 방향: 일반균형체계 하에서 경제순환 진단과 분석토대 구축>

- ① 개념정립: 내발적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선순환의 개념 구체화
- ② 관련통계 정비: 지역(광역시도 단위/시군 단위)*
- ③ 상기 ② 통한 지역경제 단위별 순환 진단 및 정책과제 도출/대안모색

- * 시군 이하 단위, 특히 지역사회(local community) 단위는 향후 후속과제로 제안예정.

먼저 본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나열된 개념정립과 분석대상, 분석내용 등을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적용하여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화되고 구체적인 결과제시를 시도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의 처리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의 틀은 제공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동호 외(2012)에서 적용된 지역의 범위 설정,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거시 및 미시 측면의 구분과 그들에 포함된 내용의 모호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지출 측면을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경제순환의 문제를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경제단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와 그들이 경제 내 ‘생산→분배→지출’의 순환과정에서 참여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형의 구분과 공간적인 분석범위 설정 등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로 지역민들이라 할 수 있는 가계(household) 부문은 생산요소의 공급자(자본가와 노동자)로서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소득인 자본소득(capital income)과 노동소득(labor income)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효용이나 만족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게 된다⁷⁾. 이는 개별 경제주체가 경제의 순환과정 전반과 직결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하나의 예이며, 결국 모든 경제주체별로 경제의 순환과정에 참여하는 경로

7) 구체적으로 신동호 외(2012)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대한 조사 및 분석결과가 거시와 미시 양 측면으로 구분되어 (민간소비지출과 가구소비 등의 항목으로) 혼재 중복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광역 시도 단위 투입산출표에서는 충남 지역주민(가계)들의 상품과 서비스 품목별 소비구조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민간의 소비지출과 가구소비의 지역 합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제주체별로 시장에 참여하는 행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한 탓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적인 경제주체별로 경제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순환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별로 경제순환에 참여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체계가 일반균형 체계(general equilibrium framework)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의 대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순환의 과정은 정태나 비교정태적(static or comparative static) 개념이 아닌 동태적(dynamic)인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동태적인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적 범위나 분석 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그 연구결과의 현실적합성은 제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인 일반균형 이론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발적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역경제 순환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초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기초적인 지역경제 통계자료의 정비과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순환문제는 구체적으로 진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제와 수단은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갖추어지는 인프라를 통해 향후 내발적 지역발전 수단들과 경제순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의태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다양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들의 우선순위는 구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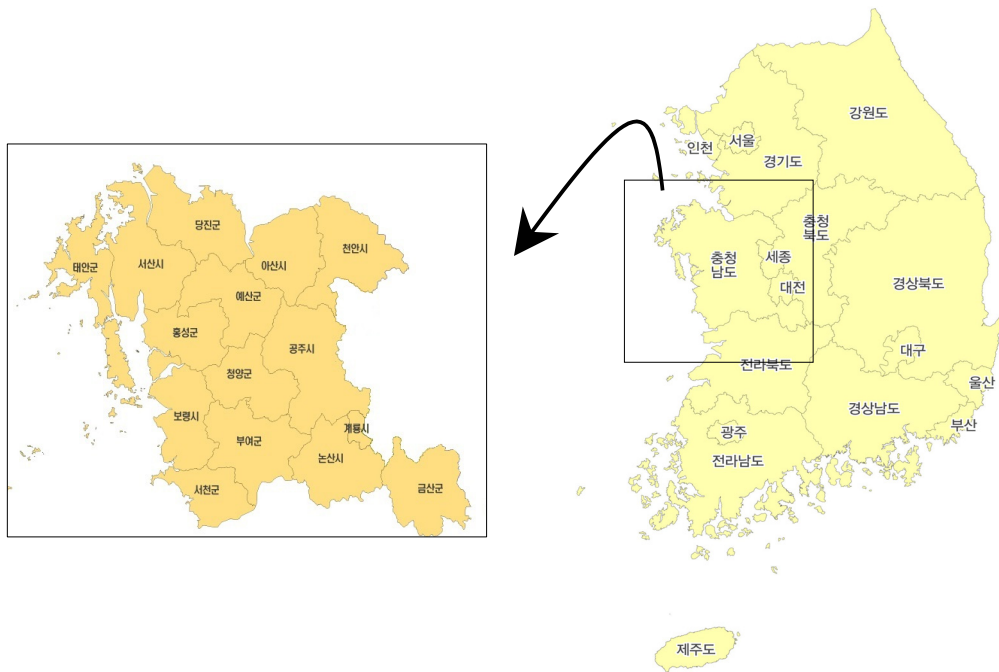
지금까지 설명한 배경과 목적에 입각해서 본 연구의 범위를 공간과 시간, 그리고 내용 등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가.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전국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지역경제의 순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본 연구의 특성 상,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전국이 된다. 왜냐하면 경제순환의 문제는 결국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들 사이의 지역간 거래(inter-regional transaction)과정과 직결된 것으로

서, 충남 지역경제가 로빈슨 크루소우의 섬(island) 경제와 같은 폐쇄경제(closed economy)가 아닌 한 주변 지역과의 상품이나 원자재, 자본과 노동 등 투입요소의 흐름(flow)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전국이 공간적 범위에 포함된다.

단, 경제순환의 문제를 시군 단위 이하의 소규모 지역경제에서 다룰 때는 충청남도를 포함한 연접한 일부 광역시도의 경우 지역의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내 시군단위 지역경제의 순환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군단위 다지역 투입산출표(multi-regional IO table) 작성을 시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의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나. 연구의 기준년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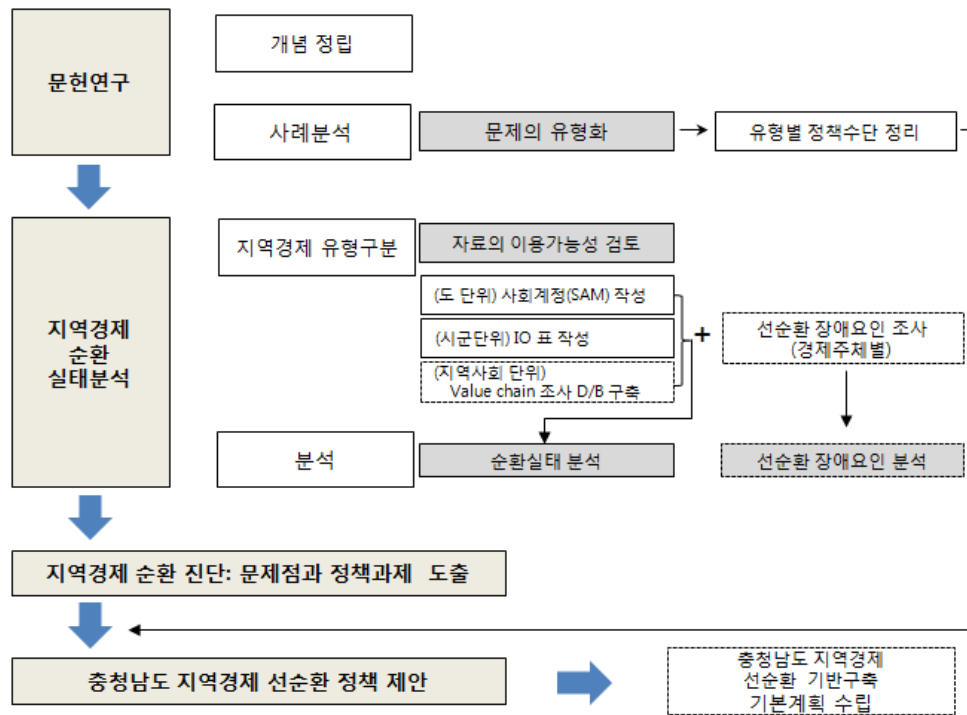
분석을 위한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기준년도는 2005년으로 설정한다. 특히 실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각 단위별 지역경제의 순환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한국은행(2009)이나 통계청(각년호)의 지역계정(regional accounts)⁸⁾에 국한된다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분석을 위한 기준년도는 이 투입산출표의 작성 기준년도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national economy) 단위에서는 매 5년 단위(매 중간년도에 연장표 제공)로 투입산출표를 제공해 왔으나, 공식적으로 광역시도 기준의 지역산업연관표는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은행(2009)에 의해 발표된 것이 유일하다.⁹⁾

다. 내용적 범위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앞서 설명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그림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1. 문헌연구’와 ‘2. 실태분석’, ‘3. 순환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정책 제언’의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8) 투입산출표(또는 산업연관표)는 국민계정(또는 지역계정), 즉 경제계정에 포함된 표이다(한국은행 2005).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 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산업단위의 생산과 지출 구조 등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투입산출표가 유일하다.

9) 광역경제권별로 구분된 한국은행(2007), 『2003년 기준 지역투입산출표』가 발표되어 있는 상태이다.



- [] 부분은 본 연구(2차 연도 과제)의 범위를 벗어나며, 3차 연도 과제로 제안 예정임.

(그림 1 - 3) 연구의 내용적 범위

먼저 문헌 연구부분에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 도출을 위한 내발적 지역발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순환실태를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내발적 지역발전 수단들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결과들은 결국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수단에 직간접적으로 유용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지역경제의 순환실태 분석 부분에서는 지역경제를 경제 단위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경제별 순환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검토된다. 이러한 검토결과는 분석 및 진단 수단으로서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 IO table)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의 필요성 및 그의 작성을 위한 논의로 연결된다. 분석수단이 갖춰졌을 때 각 지역경제 단위

별로 경제순환의 실태는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분석과정을 통해 충청남도 지역경제는 각 경제단위별로 경제순환 실태가 진단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순환을 저해하는 문제점 도출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정책과제별로 요구되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제안 작업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제시되는 이러한 정책대안들은 국내외 선진사례들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안마련은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사례와 관련된 D/B는 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학문분야가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통해 이제야 본격적으로 실제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의 순환은 내발적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의 정책수단으로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공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포괄하는 바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결국 지역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자본의 유형은 상이하게 된다. 따라서 내발적 지역발전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의 순환 기조구조를 시도하였거나 시도 중인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구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경제순환을 위한 정책수단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 순환 기본계획(가칭)』과 연결될 수 있으며, 본 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완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은 2013년 과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014년 이후의 과제에서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뒤에 서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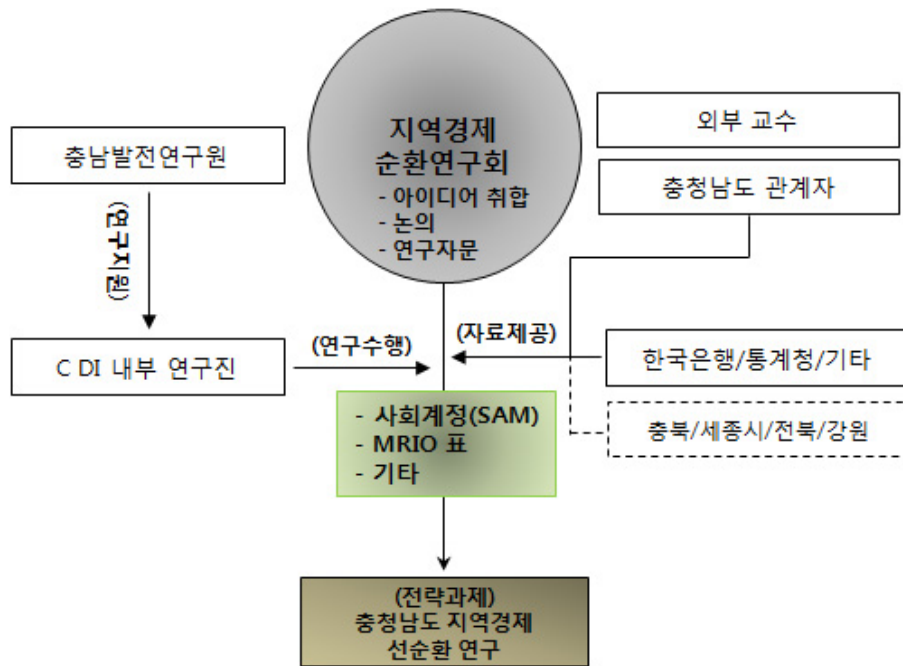
3)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가. 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앞서 설명한 (그림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문헌연구(literature study)와 사례분석, 그리고 경제통계를 이용한 순환분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여기서는 충청남도 지역경제를 광역시도 단위, 시군단위,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지역경제로 구분하여 경제통계 자료의 이용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특정 분석수단을 직접 작성 구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경제순환의 문제는 일반균형 체계의 기초개념이므로, 일반균형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경제 순환을 진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입산출표와 사회계정행렬을 지역경제 단위에서 작성 구축하는 과정이 시도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광역시도 단위 지역경제 차원에서 사회계정행렬이 작성되며, 도내 시군 단위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시군단위 다지역 투입산출표(multi-regional input-output, MRIO table)의 작성이 시도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된다.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4)에 정리된 바와 같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신동호 외(2012)에서부터 조직된 외부교수진과 관계공무원 등을 포괄하는 「지역경제 순환 연구회」를 통해 논의되는 아이디어나 자문결과를 연구결과에 반영하는 구조이다. 이 외 관련 경제통계의 정비와 분석 및 진단을 병행하고자 하는 2차 연도 연구인 본 과제의 특성 상, 지역 투입산출표나 사회계정행렬의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제공이나 유용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은행, 통계청 등의 경제통계 제공기관들, 그리고 충청남도과 유기적인 경제적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주변지역들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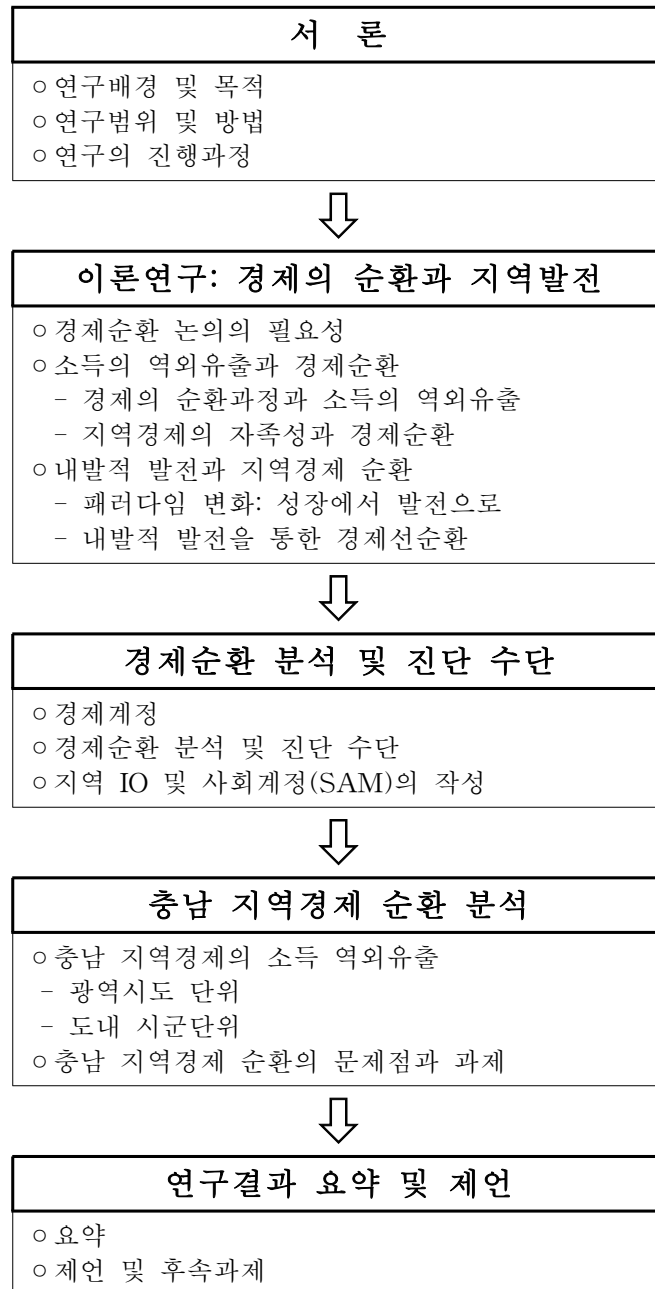


(그림 1-4) 연구의 수행체계

참고로 본 연구를 위해 시도되는 시군단위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과 이용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및 세종시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의 연구진들이 협력연구 및 완성된 결과물의 공유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협력연구 및 결과물의 공유 문제는 본 보고서의 끝 부분, 후속과제 제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나. 연구의 진행과정

지금까지 설명한 연구 내용들을 다루기 위한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1-5)에 정리된 바와 같다.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분된다. 앞서의 연구방법 및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각 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



(그림 1 - 5) 연구의 진행과정

제2장 경제의 순환과 지역발전

이 장에서는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필두로 해서, 지역의 경제순환 분석과 진단을 위한 수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 및 진단 수단 및 과정이 경제이론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석 및 진단체계의 확립은 중요하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대해서는 이미 신동호 외(2012)에서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경제순환과 내발적 지역발전에 대해 구체화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차원에서 당면하고 있는 경제순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단순화된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순환 논의의 필요성

경제학 전공자나 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대상으로 굳이 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 분배 → 지출”의 순환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이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설명은 이미 오래 전부터 UN(1993)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기구들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출된 경제이론서나 실무지침서를 통해 확산 공유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2005) 등에 의해 경제순환 원리에 입각해 경제통계가 그 설명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¹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현재 경제순환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의 순환은 애초부터 시장기능(market mechanis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전제할 때, 경제성장 및 발전의 주요 핵심논거로 언급되어왔다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를 경제의 선순환(virtuous circulation in an economy)이

10) 국민계정이나 지역경제 계정 외에도 환경이나 관광 등 비중 있는 특정 부문에 대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 등이 작성 제출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그동안 개별 연구자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0, 2005 외; 임재영 · 류중현, 2010 등)에 의해 작성되어온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s, TSA)를 통계청 차원에서 대응, 작성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통계개발원(이동수 2013)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학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과연 시장이 제대로 순환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성장 및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단위를 전제하는 경우, 성장 또는 발전의 성과가 개별 경제주체인 지역주민들에게 고르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결과물이 지역 외부로 빠져나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경제순환이 좋지 않게 작동하는 경제의 악순환(vicious circulation)인 것이다.

경제의 악순환 문제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장의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 내 생산활동의 결과물인 소득이 지역 내로 귀속되지 않고 지역 외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바로 시장실패의 결과로 연결시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성급한 공공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의 역외유출 원인은 시장의 실패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상품과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open economy)가 오늘 날 일반적인 지역경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성을 감안하는 경우,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원자재, 노동이나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primal factor)의 조달이나, 그리고 생산된 완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배달의 출발지와 목적지(origin/destination, O/D)사이의 거래가 우선적으로 소득의 역외유출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Korten(2010)에서와 같이 특정 계층에 의한 분배의 왜곡문제가 발생되는, 특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실패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 다만 Korten이 분배문제에 있어서 시장왜곡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금융자본임을 분명히 하고 있듯이,¹¹⁾ 당면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장에서는 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과정에 대해서 경제이론에 입각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순환과 지역발전의 문제를 연결해 고찰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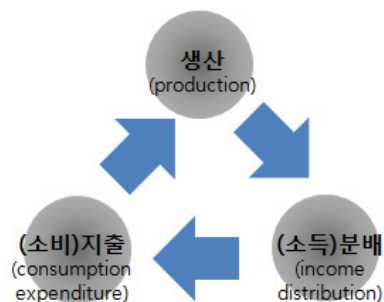
11) David C. Korten(2010)은 정상적인 조건 하의 real wealth에 반대되는 phantom wealth의 원인을 금융자본 탐욕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서 phantom wealth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한다. 참고적으로 이 과정에서 한계학과 이후 현대경제학에 적용되어온 수리적 방법론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향후 경제순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일반균형 체계 하의 수리 및 계량 모형으로의 확장성을 감안한 때문이다.

2. 소득의 역외유출과 경제의 순환

1) 경제의 순환과정

경제의 순환과정이 (그림 II-1)과 같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는 분배를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로, 그리고 지출을 굳이 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로 표현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 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구분하고,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고리가 소득 배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림 II-1) 경제의 순환과정

참고로 개별 경제주체 중의 하나인 가계부문이 생산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은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value-added)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는 다시 영업잉여와 같은 자본소득과 임금과 같은 노동소득으로 구분된다. 즉,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가계부문들의 소득으로 배분되는 것이다.¹²⁾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가계

12) 산업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firm)에게 자신들의 노동이나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가계부문이 담당하는데, 양자의 규모 차이에 따라 자본가 또는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극단적인 일부의 예를 제

의 소득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조세부담 등을 제외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위해 지출되는데, 이러한 수요증가로부터 다시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경제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는 가게 외에도 기업이나 정부, 해외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역경제 단위라면 타 지역 등이 세분되어 포함되므로, 고려되어야 하는 경제주체의 수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생산활동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포함시키는 경우,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수 만큼 그 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가게부문의 수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현실경제에서 순환의 예를 설명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경제 내에 참여하는 개별 경제주체별로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과정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단, 그 전에 명심해야 할 것은 ‘생산과 분배, 그리고 지출 등 순환의 세 가지 측면이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 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음 <표 II-1>에서와 같이, 거래되는 상품이 2가지(X 와 Y)인 단순화된 가상의 단위 경제(economy)를 전제해 보자. 이 때 개별 상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요소는 자본(K)과 노동(L)만을 전제한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적용되는 이론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 원론이나 경제수학에서 자주 다루는¹³⁾ 기초 예를 이용한 소비자과 생산자 이론의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게부문(A 와 B)의 예산(I)은 소득분배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과 공급에 대한 보수(reward)로서, 생산활동 과정에서의 부가가치 창출규모와 직결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X 또는 Y 의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수요규모를 결정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of K and L ,

외하고 현실 경제에서는 가게부문 대부분이 자본과 노동공급의 주체인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추구 과정에서 자본이나 노동의 한계생산(marginal product of capital or labor, MPL or MPK)의 가치만큼 그들을 고용한다는 내용이 경제교과서에서의 설명인 것이다.

13) 그 유명한 Alpha C. Chiang(1984),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Third edition, Mcgraw-Hill, Inc.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MRTS_{LK}$) 개념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생산활동 X 또는 Y 에 자신들이 보유한 노동력이나 자본을 배분하고 그로부터 소비를 위한 소득을 벌어들인다. 결과적으로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 w \cdot L + r \cdot K$)은 소비자인 개별 가계의 소득(income)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 소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만족(또는 효용) 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재화나 용역 등 다양한 상품들을 소비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이 때 각자의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ption)이나 저축률(saving rate), 그리고 공공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의 크기 등에 따라 그들의 지출구조는 상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참고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재화와 용역)들 중에서 자신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 소비의 조합을 변경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of X and Y , MRS_{XY})의 개념이 도출되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market)을 전제한 상태에서 시장의 균형이란 최적의 자원배분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균형상태를 설명하는데 생산자들의 한계기술대체율과 소비자들의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함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이나 Edgeworth Box 등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경제 내 공급과 수요 양 측면 사이에서 또 생산과 분배 지출의 순환과정에서 세 가지 측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경제주체들이 생산과 소비활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데, 그 매개가 가계부문의 소득이라는 것이다. <표 II-1>에 제시되어 있듯이, 가계부문(소비자 A 와 B)의 소득은 상품 X 와 Y 의 생산과정에 참여한 자신들의 노동력과 자본의 대가임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과 자본의 대가로서 임금률과, 자본수익률이 의미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P_X, P_Y)과 노동이나 자본의 가격이라 할 수 있는 임금(w)과 자본수익률(r)은 시장에서 각각의 수요와 공급에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적(endogenous) 변수¹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X, Y)이나 생산요소

14) 내생변수라 것은 끊임없는 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변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부단한 조정과정의 결과이며, 결국에는 가격과 수요 및 공급규모가 동시에 결정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제학의 거미집이론(cobweb theorem)에 대한 설명에서 쉽게 확인된다.

참고로 수렴(convergence) 과정과 Iteration이나 Loop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본문에서 언급되는 지

(K, L)의 수요와 공급은 각각의 시장에서 그들의 가격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완벽하게 종료되었을 때, 비로서 해당 시장의 균형(equilibrium)은 달성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 때의 균형(equilibrium)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리적인 균형(balance)과는 다른 경제학의 개념임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I-1〉 2 재화, 2 요소 경제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지출

〈소비자 이론〉

(전제) 상품 종류: 2(X, Y), 소비자: 2(A, B)

- 예산제약 하의 효용극대화 조건

$$\text{Max. } U = X^\alpha \cdot Y^\beta, (\alpha + \beta = 1)$$

$$\text{s.t. } P_X \cdot X + P_Y \cdot Y \leq I$$

U : 효용(utility), X, Y : 상품(재화 및 서비스), P_x : 상품 x 의 가격,

I : 소득 (가치분소득, $Y_d = Y - T$)

※ 이 때, $Y^{A(B)} = w \cdot L^{A(B)} + r \cdot K^{A(B)}$

(간단한 수학적 알고리즘 적용)

$$\Rightarrow MRS_{XY}^A, MRS_{XY}^B \Rightarrow X^*, Y^* (\text{소비규모}), U^* (\text{효용수준}) \text{ 결정}$$

$$\Rightarrow X^* = \alpha \cdot \frac{P_Y}{P_X} \cdot I, \quad X^* = \alpha \cdot \frac{P_X}{P_Y} \cdot I$$

(표 계속)

속적인 상호작용의 의미에 대해 납득이 용이할 것이다.

<생산자 이론>

(전제) 생산자: 2(X, Y), 생산요소: 2(K, L), 중간재 고려 ×

- 주어진 생산량 하에서 이윤극대화 조건

$$\begin{aligned} \text{Max. } \Pi &= P \cdot Q - TC \\ \text{s.t. } A \cdot K^a \cdot L^b &= \bar{Q} \end{aligned}$$

A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Q : 상품(X 또는 Y), 여기서, $Q = A \cdot K^a \cdot L^b$

TC : 총생산비용(= $w \cdot L + r \cdot K$),

여기서 w : 임금(wage rate) r : 자본수익률

(간단한 수학적 algorithm 적용)

$\Rightarrow MRTS_{KL}^X, MRTS_{KL}^Y \Rightarrow K^*, L^*$ (상품 생산 위해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 규모)와 Q^* (X 와 Y 의 생산규모) 결정

$$\Rightarrow K^* = a \cdot \frac{w}{r} Q \quad L^* = b \cdot \frac{r}{w} Q$$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equilibrium)>

$$“MRS_{XY}^A = MRS_{XY}^B = MRTS_{KL}^X = MRTS_{KL}^Y” \Rightarrow \text{Equilibrium in an Economy}$$

결론적으로 가격이라는 시장의 신호를 통해 수요와 공급은 지속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경제의 순환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은 일반균형 이론 체계로부터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수요나 공급 중 어느 한 측면만을 중심으로 경제문제를 다루는 것을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이론체계라 한다. 부분균형 체계에서는 수요나 공급 중 한 측면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리전개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한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상응하는 공급이나 수요의 변화가 존재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경제순환의 문제를 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분균형 이론체계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부분균형 체계의 암묵적 가정에 따라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현실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도 언급될 수 있다.

현실경제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생산활동 과정에 노동과 자본 외에도 다양한 원자재나 중간재(intermediate goods)들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경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경제순환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들과 경제주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다부문(multi-sectoral)의 일반균형 이론체계가 적용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소득의 역외유출

앞서 제시된 생산자의 상품(X 나 Y)생산을 위한 기술구조를 나타내는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를 현실에 입각해서 구체화하면 소득의 역외유출에 대한 설명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다부문 이론체계 하에서 널리 적용되는 생산함수를 다음 식(1)과 같이 전제해 보자. 여기서는 지역과 산업의 수가 복수(plural)화 되었으며,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다양한 원자재나 중간재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때 중간 원자재들은 자신의 지역 R 에서만 조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로부터도 조달됨이 전제되고 있다.

$$X_i^R = A_i^R \cdot K_i^{R^{K_i}} \cdot L_i^{R^{L_i}} \cdot \prod_S \prod_j Q_{ji}^{SR^{Q_{ji}}}, \quad (i, j = 1, 2, \dots, n) \quad \dots(1)$$

i, j : 산업($i, j = 1, 2, \dots, n$), S : 지역($S = 1, 2, \dots, m$),

X_i^R : 지역 R 에 입지한 산업 i 의 생산규모,

Q_{ji}^{SR} : 지역 R 산업 i 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S 지역 j 산업 제품의 투입규모

생산자는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들과 중간재들을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만 고용¹⁵⁾하게 된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개별

15) 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하는 경우, 생산자는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각 생산요소나 중간재를 그들의 한계

지역들의 가게나 기업들은 지역 R 내 산업 i 의 생산활동을 위한 생산요소나 중간원자재 제공의 대가로 자신들의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발생은 결국 지역 R 내 산업 i 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의 지불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용은 자기 지역 R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식에서 알 수 있듯이, 타지역들의 기업이나 가게들에게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자의 생산함수를 다시 비용함수(cost function) 형태로 수정, 전환하면 식(2)와 같다.

$$TC_i^R = \sum_i (w_i^R \cdot L_i^R + r_i^R \cdot K_i^R) + \sum_j \sum_S (P_j^S \cdot Q_{ji}^{SR}), \quad \dots(2)$$



참고로 식(1)과 (2)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중간원자재의 지역간 거래(interregional transaction)만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중간원자재 외에도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일반적이며, 이로부터 소득의 역외유출이 발생하기도 한다.¹⁶⁾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요소의 공급주체가 가게부문인데 반하여, 중간원자재의 공급주체는 산업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타 지역들로부터 조달되는 중간재 비용은 결국 지역 R 이 아닌 다른 S 지역들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지불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의 역외유출문제는 단순한 가게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결국 지역 내의 생산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의 유출 문제는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중간원자재들이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 O/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2)에 정리된 바와 같다. 그림은 日本의 經濟通産省(www.meti.go.jp)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5년 기준 지역간 투입산출표(inter-regional IO, IRIO table)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자료는 부록에 첨부된 바와 같다.

생산가치만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의 경우에는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 가치와 일치($w/P = \partial Q / \partial L$ 수준까지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 참고로 신자유주의 경제사조 하에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국적 기업을 통한 자본투자나 특히 헷지펀드(hedge fund)의 예들은 모두 역외에서의 자본수익을 얻는 예라 할 수 있다.

from \ to			지역 R			지역 S			총 산출
			중간재	최종수요	총수요	중간재	최종수요	총수요	
지역 R	중간재								
	생산요소	자본소득							
		노동소득							
지역 S	중간재		(a)	(b)					
	생산요소	자본소득	(c)						
		노동소득	(d)						
총투입									

-  : 지역 R 기준 소득의 역외유출
 : 지역 S 기준 소득의 역외유출

(그림 II-2) 소득의 역외유출

여기서 제시된 그림은 일반적인 지역 투입산출표의 구조와 유사하나, 중간원자재의 조달이나 최종재의 배달과 같은 상품의 지역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유출 외에도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유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실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간 투입산출표(IRIO table)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기 식(1)과 (2)를 통해 도출되는 생산과정과 소득분배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반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상기 식들과 (그림 II-2)를 연결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가격 투입산출모형(price IO model)이나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의 방정식 체계에 대한 설명들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김홍배(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 할 것은 소득의 역외유출은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의 행태에 따라 구분되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간원자재 구매를 위한 유출과 노동력 및 자본 유치를 통해 발생하는 유출은 산업의 생산활동 주체인 지역 내 기업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의 유출은 타지역의 가계부문에 의한 노동이나 자본공급의 대가로

유출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각 경제주체별로 소득의 역외유출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관계는 다음 <표 II-2>에 정리된 바와 같다. 단, 이 표에서는 해외수입(import)을 통한 유출부분은 생략되었는데, 이는 수입 역시 광의의 지역내 이입을 통한 역외유출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표의 내용은 앞의 (그림 II-2)의 작성을 위해 적용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 II-2> 지역 R에서 소득의 역외유출 원인 및 목적지

원인		목적	소득유출의 직접적 목적지
타지역(S) 중간원자재 구매	(a)	지역 R 기업 이윤	타지역(S) 기업
타지역(S) 노동력 동원	(c)		타지역(S) 가게 (R 지역 대상 자본투자자)
타지역(S) 자본 유치	(d)		타지역(S) 가게 (R 지역 대상 노동공급자)
타지역(S) 최종재 구매	(b)	지역 R 가게/기업/공공 효용/이윤/사회후생*	타지역(S)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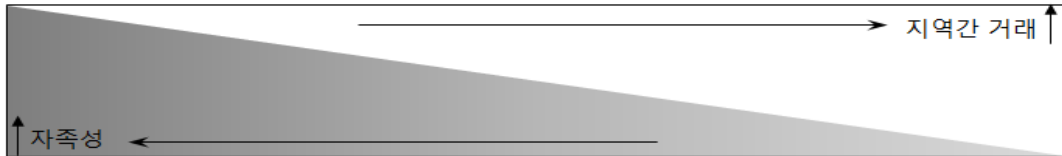
- * 최종재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가게부문에 의한 소비수요 외에 공공부문, 기업 등에 의한 수요로 구분되며, 각 주체별로 자신들의 수요규모를 결정하는 행태는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을 전제.

3) 지역경제의 자족성과 경제순환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가 경제의 순환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경제순환의 과정을 지역의 내부수요만으로 자체해결이 가능한 지역경제를 목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내부의 수요만으로 경제순환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외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에 대한 의존도는 상품이나 생산요소들의 지역간 거래, 특히 지역 내로의 이입규모와 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II-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경제 단위의 구분

Global Economy	National Economy	Regional Economies		
		광역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단위 (local community)
	대한민국	충남 포함 17개 광역시도	227개* (행정시군구 기준)	



- * e-나라지표(www.inde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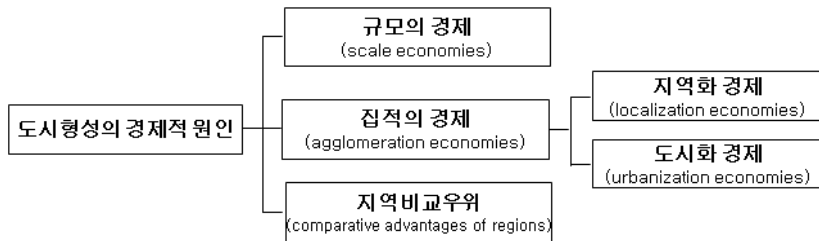
(그림 II-3) 경제 단위의 규모에 따른 자족성 정도

자족성(self sufficiency)은 주로 도시계획(urban planning)의 분야에서 제출되고 있는 개념으로서(Clapp, 1971; Robson 1972 등), 이 문제가 경제단위에서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자족성과 관련된 지표의 개발은 전무한 상태에서, 특정 경제단위가 어떠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자족성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언은 무리인 상태이다. 다만 이 그림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경제의 공간 단위가 축소될수록 필연적으로 역외로부터의 조달이나 수입에 대한 의존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일수록 역외유출로 인해 느껴지는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역외 유출규모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경제보다 농어촌의 지역사회 단위 소규모 경제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나 생산 및 소비의 규모가 원래부터 작은 지역사회 단위 경제에서는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가 구현되기 전까지 시장이 확대되지 못한다면, 도시화나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된 다른 경쟁 지역에 소재하는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비용측면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결국 이 지역경제는 산업활동이 계속해서 축소됨에 따라 계속 쇠퇴할 수 밖에 없는 경제의 악순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지역의 존립 문제로까지 봉착하게 됨을 수도권 지역 외 현실의 농어촌 지역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비용의 측면이 강조되는 규모의 경제 외에도, 지역의 규모나 공간단위가 축소

됨으로써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y)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의 영역에서는 도시형성의 원인을 (그림 II-4)에 정리된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그리고 지역비교우위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O'Sullivan 2000 외). 김경환, 서승환(1999)에서 정리하고 있는 도시형성의 경제적 원인을 정리하면 뒤에 제시된 참고자료와 같다.



(그림 II-4) 도시형성의 경제적 원인

결국 사람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정도에 따라 경제 단위의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의 역외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체감하는 정도나 감내의 수준은 해당경제의 공간 단위에 따라 차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공간단위에 따른 지역경제 단위의 구분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앞서 (그림 II-3)에서 표현된 농어촌 지역사회 단위의 경제들이 모여 시군단위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이러한 시군단위 지역경제들이 모여 광역시도 단위 지역경제를 형성한다. 이는 결국 모든 지역경제의 기초 단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local community based economy)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단위의 구조는 비단 농어촌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이루어진 도시지역(urban area)의 단위경제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도시형성의 경제적 원인*>

○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는 기업은 제품의 대량생산을 통한 평균비용(average cost)의 하락을 향유하게 됨으로, 운송비를 포함한 제품의 공급가격이 시장가격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시장영역(market area)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한 지역에 대량생산을 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기업에는 다수의 노동력이 고용되며 이들은 통근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 근처에 거주하게 된다. 기업 근처에 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로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된다.

○ 집적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한 기업이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반면에, 집적의 경제는 도시 전체에 대한 규모의 경제로서 인구와 경제활동의 공간적 밀집에 따른 이득을 의미한다. 생산측면에서 집적의 경제는 다시 ‘지역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역화 경제는 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각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비용이 하락하는 산업 내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말한다. 그리고 도시화 경제는 도시 전체의 총 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으로서, 그 이득도 한 산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모든 기업에 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지역비교우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만을 생산하고 서로 산출물을 자발적으로 교역할 경우, 각 지역들은 교역의 이득을 향유함으로써 주민들의 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종 업체의 공간적 결집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규모의 경제 및 집적의 경제가 도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 김정환, 서승환(1999)의 내용 정리 인용함

다만 앞서서 언급했듯이, 도시지역은 이미 규모의 경제나 집적경제,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농어촌의 지역사회 단위경제들에 비해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방경제(open economy) 체제의 현실에서 농어촌의 지역사회 경제단위의 성패는 바로 도시지역의 산업화된 지역사회 경제단위들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된 곳과 그렇지 못한 농어촌 지역이 공존하는 충청남도의 경제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내발적 발전과 경제순환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농어촌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지역경제 단위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의해 지역의 생존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¹⁷⁾에서는 지역경제 내부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내발적 지역발전론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들로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3. 내발적 발전과 지역경제 순환

경제의 순환과 연관하여 내발적 지역발전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발적 지역발전 이론 자체가 기존의 주류를 이루던 신고전적 경제성장(neoclassical economic growth)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에 의한 자동조절 기능을 신봉하는 신고전학과 이론은 기본적으로 경제는 안정적으로 균형(equilibrium)을 유지하므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역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단위의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과 내발적 지역발전 이론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7)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에서와는 다르게,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 농어촌 지역사회 단위의 경제일수록 외부 자본이나 노동의 유입을 기대하기엔 요소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실제 농어촌 지역에 생산요소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과 연결 되는 것이다.

1) 신고전적학파의 지역성장 모형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이론은 주로 솔로우(R. Solow)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솔로우는 해로드-도마(Harrod-Domar)의 성장이론¹⁸⁾이 고정계수 생산함수를 가정함으로써 경직성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 이 생산함수 대신에 자본과 노동의 상호 대체를 허용하는 신고전적 생산함수를 가정하였다. 즉, 솔로우는 균형자본-생산량 비율의 값을 해로드-도마의 이론에서와 같이 사전에 이미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과정 자체에 의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는 솔로우의 이론과 해로드-도마 이론 간의 커다란 차이점으로, 솔로우 모형의 균형성장이 해로드-도마 모형에 비해 더욱 안정적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솔로우 모형의 기본 가정은 ‘① 단일재화 경제(one-commodity economy), ② 저축은 소득에 저축율을 곱한 것이며, 이러한 저축은 전부 투자됨, ③ 노동 스톡의 성장률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일정 비율의 상수’ 등으로 해로드-도마와 동일하다. 그러나 솔로우는 생산함수를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st to scale, CRTS)의 1차동차(homogeneous degree of 1) 함수이며 생산요소(자본과 노동)의 대체가능함을 가정하였다.¹⁹⁾ 이 가정은 생산요소들이 어떤 동일한 비율만큼 변한다면 생산량도 그 비율만큼 변화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생산함수를 자본-노동계수(k)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노동계수는 자본의 집약도를 나타낸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3)과 같다.

18) 해로드의 이론과 도마의 이론은 분석의 목적 및 방법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해로드의 이론의 경우만 살펴본다.

(목적)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을 이룩할 것인지 규명.

(문제의식): 지속적 경제성장의 가능성, 경제성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

(기본가정) ① One-Commodity Economy, ② $S = sY$, $0 < s < 1$, (S : 저축, s : 저축율, Y : 소득(생산)),

③ $\frac{\dot{L}}{L} = n$, (\dot{L} : 노동량의 변화), ④ 고정투입계수의 생산함수 $Y = \min.(K/v, L/u)$, (v : 자본의 투입계수, u : 노동의 투입계수).

※ 고정투입계수 가정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체가 불가능(자본과 노동의 등량곡선 isoquant curve)이 L자 형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19) 신고전적 성장이론은 이러한 가정 외에 기본적으로 완전경쟁시장과 완전고용, 생산되는 재화의 동질성 등을 가정하고 있다.

$$Y = f(K, L), \quad \dots(3)$$

$$y = Y/L = f(K/L, 1) = f(k),$$

여기서, Y : 소득(또는 생산규모), K : 자본, L : 노동,

y : 단위노동당 생산량, k : 자본-노동계수.

이것은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노동계수($k = K/L$)는 변화하며, 이에 따라 단위노동당 생산량($y = Y/L$)과 생산량-자본비율(Y/K) 역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 솔로우의 기본 방정식²⁰⁾은 식(4)와 같이 도출되는데, 여기서 $sf(k)$ 는 단위노동당 저축을 나타낸다. 저축은 모두 투자된다고 가정했으므로 단위노동당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nk 는 자본-노동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단위노동당 투자의 유량이다. 따라서 자본-노동계수의 변화분 \dot{k} 는 노동의 증가에 대응하여 자본-노동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단위노동당 투자의 유량(flow)을 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ot{k} = sf(k) - nk \quad \dots(4)$$

여기서, \dot{x} : x 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20) 솔로우의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먼저 $k = K/L$ 이므로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이것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frac{\dot{k}}{k} = \frac{\dot{K}}{K} - \frac{\dot{L}}{L}. \quad \dots(1)$$

식①은 다시 자본스톡의 증가분은 모두 투자되고 노동스톡의 성장률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일정비율의 상수라는 가정에 의해 식②와 같이 된다.

$$\frac{\dot{k}}{k} = \frac{I}{K} - n. \quad \dots(2)$$

여기서 $Y = C + I$ 이고 $I = sY = S$ 이므로 식②는 식③과 같다.

$$\dot{k} = \frac{sY}{L} - nk. \quad \dots(3)$$

이 식③은 다시 솔로우의 기본방정식 $\dot{k} = sf(k) - nk$ 으로 전환 된다.

경제는 자동조절 기능을 통해 식(4.2)의 기본방정식에서 단위노동당 저축과 단위노동당 투자의 유량이 같아지는 점($sf(k) = nk$)을 만족시키는 자본-노동계수 k^* 에 도달한다. 일단 k^* 에 도달하면 그 경제는 균형성장경로(steady growth path)에 도달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균형성장경로를 따라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신고전적인 지역성장이론은 이러한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을 원용하여 지역경제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신고전적 지역성장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역 내 생산성과, 자본과 노동 등 지역 내 생산요소의 성장과 축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신고전적 지역성장은 지역간 경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며, 이것은 생산요소들의 집약도인 자본-노동계수(k)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간의 자본-노동계수의 차이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간 격차는 해소된다는 것이다.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에서는 지역간 자본-노동계수의 격차 감소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생산요소의 이동은 지역간 생산요소의 가격(factor price)²¹⁾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즉, 노동의 경우 지역간 임금(wage rate) 차이에 의해, 자본의 경우에는 지역간 자본수익률(capital return)의 차이에 의해 이동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노동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며, 자본은 자본수익률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지역간 요소가격 차이 외에 요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역간 경제성장률 차이를 들 수 있다.²²⁾ 이것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21) 노동과 자본의 요소가격은 각 요소의 한계생산가치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지역 내 생산함수를 $Y = f(K, L)$ 라고 놓고 노동의 가격인 임금(w)과 자본의 가격인 자본수익률(r)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 = p \left(\frac{\partial Y}{\partial L} \right), r = p \left(\frac{\partial Y}{\partial K} \right).$$

여기서, $\frac{\partial Y}{\partial L}$: 노동의 한계생산성, $\frac{\partial Y}{\partial K}$: 자본의 한계생산성, p : 지역내 생산물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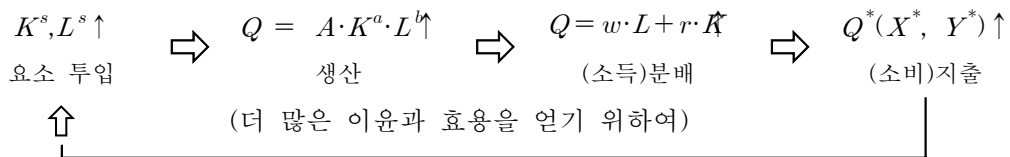
22) Ghali, Akiyama and Fujiwara(1978)와 Giarratani and Soeroso(1985) 등은 요소의 가격차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성장률 역시 생산요소의 이동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2) 신고전 지역성장 이론의 한계와 내생적 성장

신고전학파의 지역성장 이론은 지역간 균형성장이 시장기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달성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 지역간 균형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노동과 자본의 지역간 이동이다. 이러한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해 지역들의 자본노동 계수(k)가 k^* 에 수렴(convergence)하게 되는데, 이 수렴이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수렴의 과정은 결국 투입요소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지역 외부로부터의 생산요소 유입이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요인이라는 것에 변화는 없는 것이다. 즉 내생적 성장에 비견되는 외생적(exogenous) 성장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전 지역균형성장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외생적 경제성장 전반에 대한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끄는 신고전적 지역성장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지역간 요소수익률 차이에 대한 문제이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입요소의 물리적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이 도모되는 외생적 성장론에 대한 의문이다. <표 II-1>의 간단한 Cobb-Douglas 형 생산함수[$Q = A \cdot K^a \cdot L^b$ (여기서 a 와 $b > 0$)]의 예를 통해서 외생적 지역성장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정리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중간원자재에 대한 고려가 생략되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가게는 자신들의 더 많은 이윤과 만족(효용)을 위해 투입요소의 규모를 증대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 상기의 순환과정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에 제시된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체감의 법칙에 대해 달리 이견을 달지 않듯이, 자본과 노동의 투입규모가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한계생산(marginal production)이 체감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지금 설명에 적용된 Cobb-Douglas 형 생산함수 자체가 비선형의 지수함수 형태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한

계생산 체감의 법칙²³⁾이 반영된 것이다. 이 설명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외생적 성장이 과연 지속가능한가? 만일 그렇다면 언제까지 가능한가?” 라는 문제에 귀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지표 외에 경제 내 다양한 질적 지표의 문제에 대한 호기심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을 바탕으로 혁신(innovation)이나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를 통한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Armstrong and Taylor(2000)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개념은 기술혁신과 관련된 지식(technical knowledge)이나 R&D 및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발생되는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가 지역경제의 총 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향상²⁴⁾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생산규모의 증대를 의도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생적 지역성장이론에서도 양적 변수 외에 지역경제의 질적변수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신고전학파의 Cobb-Douglas 형 생산함수에 포함된 총요소생산성(TFP, A)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수정과 보완만으로 논리체계를 이어나간 한계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설명은 내발적 지역발전 부분에서 제시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어쨌든 신고전학파의 지역균형 성장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수익률이 <표 II-3>에서와 같이 지역의 경제성장이나 발전의 정도에 따라 다름을 전제하고 있다. 즉, 생산요소 중 노동의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 임금수준은 발전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본의 수익률은 낙후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음이 전제되고 있다. 이 결과 자본은 낙후된 지역으로, 노동은 발전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두 지역의 자본-노동 계수 k 가 k^* 로 수렴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균형성장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표 II-3〉 신고전적 지역균형성장 이론의 암묵적 가정

구분	요소 수익률		지역간 요소의이동
	낙후 지역(u)	발전된 지역(d)	
자본수익률(r)	high	low	자본이동 ($d \rightarrow u$)
	($r^u > r^d$)		
임금수준(w)	low	high	노동이동 ($u \rightarrow d$)
	($w^u < w^d$)		

23) $\partial Q/\partial K < 0$ 또는 $\partial Q/\partial L < 0$.

24) 총요소생산성(TFP)는 생산함수 $Q = A \cdot K^a \cdot L^b$ 에서 A 를 가리킨다. 관련된 투입요소의 증가를 통해 직접적으로 A 를 증가시키거나, 이론 그대로 기존 투입요소 K 와 L 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결과로 따로 K 와 L 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K 와 L 가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 요소의 수익률은 해당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경제환경(environment)에 따라 앞의 <표 II-3>에 전제된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앞 예에서와 달리, 발전된 지역에서 산업구조나 관련된 기반시설을 포함한 여건이 양호한 때문에 자본의 수익률이 낙후된 지역에 비해 오히려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들이 아무런 유무형의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들보다는 낙후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련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상품 소비처와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곳을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선호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신고전학파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자본과 노동 모두 발전된 지역으로 집중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현상을 다시 경제순환 문제와 연결시켜 선순환과 악순환을 구분해 보면 <표 II-4>에 정리된 바와 같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은 상반된 경제순환의 과정(낙후 지역은 더욱 쇠퇴, 발전된 지역은 더욱 성장)을 통해, 두 지역 간의 경제격차는 더 심화되는 것이다. 결국 신고전학파에서 전제하고 있는 가정의 현실적합성 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내생적 지역성장 이론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발적 지역발전론의 주창과 관련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의 <II-4>의 예에서 낙후 지역(u)은 주로 농어촌의 지역사회 단위 경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반대로 발전된 지역(d)은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된 곳에 소재한 지역사회일 것이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된 북부권역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도내의 농어촌이나 비수도권 지역들의 공동화 문제의 발생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표 II-4〉 신고전적 가정의 수정과 그 결과

<수정된 가정>	요소 수익률		지역간 요소의이동
	낙후 지역(u)	발전된 지역(d)	
자본수익률(r)	low	high	자본이동 ($u \rightarrow d$)
	($r^u > r^d$)		
임금수준(w)	low	high	노동이동 ($u \rightarrow d$)
	($w^u < w^d$)		

〈결 과〉

(낙후 지역: 요소 수익률 둘 다 낮음)

$$\begin{aligned}
 K^s, L^s \downarrow \text{ 요소유출} &\Rightarrow Q = A \cdot K^a \cdot L^b \downarrow \text{ 생산} \Rightarrow Q = w \cdot L + r \cdot K \text{ (소득)분배} \Rightarrow Q^*(X^*, Y^*) \downarrow \text{ (소비)지출} \\
 &\Rightarrow \text{경제의 악순환(vicious circulation)}
 \end{aligned}$$

(발전된 지역: 요소 수익률 둘 다 높음)

$$\begin{aligned}
 K^s, L^s \uparrow \text{ 요소유입} &\Rightarrow Q = A \cdot K^a \cdot L^b \uparrow \text{ 생산} \Rightarrow Q = w \cdot L + r \cdot K \text{ (소득)분배} \Rightarrow Q^*(X^*, Y^*) \uparrow \text{ (소비)지출} \\
 &\Rightarrow \text{경제의 선순환(virtuous circulation)}
 \end{aligned}$$

⇒ “지역간 격차 심화”

3) 패러다임 변화: 성장에서 발전으로

외생적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성장 한계를 인식하고, 그의 대안으로서 요소들의 생산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내생적 성장론이 등장한 것은 나름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변수의 추가만으로 지역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여전히 양적 영역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산성 제고가 의도하는 것은 해당경제 또는 특정 산업활동의 생산규모(GRDP 또는 총생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평균소득(일인당 GRDP)의 향상이며, 이것은 신고전학파의 그것들과 동일한 것이다.

참고적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경제의 성장(growth)과 발전(development)을 굳이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5〉에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개념과 특성들을 정리 제시하고 있다. 표에 포함된 사항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보한 일반적 내용들이다.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자료를 검색해 보면 이와 관련된 문헌이나 선행연구는 많이 존재하므로, <http://www.diffen.com>의 비교결과를 그대로 인용 제시한다.

경제성장이 해당 경제 내에서 GDP나 소비, 정부지출, 투자, 해외수출 등 양적 변화에 주안점을 두는 개념이라면, 경제발전은 해당 경제 내에서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 모두가 고려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질적인 변화는 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관련된 것으로서, 경제만이 아닌 사회와 경제 양 측면에 대한 동시적인 고려의 의미를 내포한다. 결국 경제발전은 경제의 구성원인 사람을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는 개념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논의된 경제발전의 문제는 더 이상 경제학의 영역 내에서만 다룰 수 없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논의는 지역의 경제발전(regional economic development)이 아니라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II-5〉 경제발전 vs. 경제성장

구분	경제발전 (economic development)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changes in incomes, savings and investment along with progressive changes in socio-economic structure of country(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changes).	An increase in the real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in country
Factors	a growth of human capital indexes a decrease in inequality figures, and structural changes that improve the general population's quality of life.	Gradual increase in one of the components of GDP: consumptions, government spending, investment, net exports
measurement	HDI(human development index), GDI(gender-related index), HPI(human poverty index), infant mortality, literacy rate, etc.	Increase in real GDP shown by PPF
Effec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in the economy	Quantitative changes in the economy
Concept	Normative concept	Narrower concept than economic development
Relevance	Relevant to measure progress and quality of life in developing nations	Relevant metric for progress in developed countries. ※ growth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development.

- www.diffen.com에서 그대로 인용

그러나 참고로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앞의 표에서 성장이 발전의 필요조건임이 명기되었다는 점이다. 경제의 양과 질 두 측면의 지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력 증대가 수반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견은 존재할 수 있으나, 본 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지금까지 기존 양적 경제성장 중심에서 양과 질 모두가 고려되는 사회경제적 요소가 혼합된 지역발전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사회경제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양상은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해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연구자들이나 기관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조권중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해 OECD에서 밝히고 있는 정의에 입각해 이해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OECD(2001)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집단간 또는 내부의 협력을 도모하는 공통된 규범과 가치, 그리고 이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달리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자본은 정보 공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 역할을 하며,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에서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²⁵⁾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Morgan(2000)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으로 발생하는 외부효과는 대표적으로 ‘① 경제 내 생산성의 향상’과 ‘② 상품가격의 인하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의 생산성 향상효과는 굳이 무형의 사회자본만이 아니라 유형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투입²⁶⁾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두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외부효과는 지역에서 사회자본의 축적을 통해 경제 내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비용의 절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

25) 이상의 내용은 주로 행정학사전(2009.1.15, 대영문화사)의 것을 인용.

26)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공공자본(public capital)의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져 온 분야이다(이종건 1996 외).

국 해당 지역경제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자본으로 인한 가격효과(price effect)²⁷⁾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본이나, 기반시설 등과 같이 물리적인 유형(tangible)의 하드웨어의 투입요소와는 차별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은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지역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관계를 기반하여, 그 네트워크로부터 생산증대와 관련된 정(+)의 외부효과 발생을 기대하는 무형(intangible)의 새로운 요소(factor)인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요소는 그동안 수리나 계량적인 경제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그의 저장(stock)과 유량(flow)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규명과 그 효과들의 계량화 작업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하겠다. 결국 사회적 자본은 경제의 문제가 더 이상 경제만이 아닌 사회와 정치 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나타나는 사회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발맞춰 학제간(inter-disciplinary) 및 다학제(multi-disciplinary)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대표적 영역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과거 경제성장 개념이 중시되던 점차 지역발전의 개념이 중시되는 패러다임 변화와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경제학적인 변화에 부합되게 경제학의 영역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7) 가격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구분되며, 이 효과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경제학교과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6〉 사회적 자본을 핵심생산요소로 간주한 생산함수

(내생적 경제성장(endogenous growth)의 예)

$$Q = A \cdot K^a \cdot L^b$$

$$A = f(RnD, SOC, \dots)$$

RnD : 연구개발투자, SOC : SOC 투자

(전통적인 생산함수의 수정: 생산요소를 기존 요소와 사회자본으로 구분)*

$$\frac{Q}{L} = a \cdot \left(\frac{K}{L}\right)^\alpha \cdot \prod_i SC_i^{\beta_i}, \quad (i = 1, 2, \dots, n)$$

SC_i : 유형별 사회자본(social capital)

참고로 앞서 설명한 사회자본의 외부효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단, 여기서는 SOC와 비교해서 설명이 이루어짐)

$$\frac{\partial p_Q}{\partial SC_i} < 0, \quad \frac{\partial p_Q}{\partial SOC_i} > 0 \text{ 이 일반적, } \frac{\partial A}{\partial SC_i} > 0, \quad \frac{\partial A}{\partial SOC_i} > 0$$

* 이 함수식은 이견 및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으나, 설명의 편의 위해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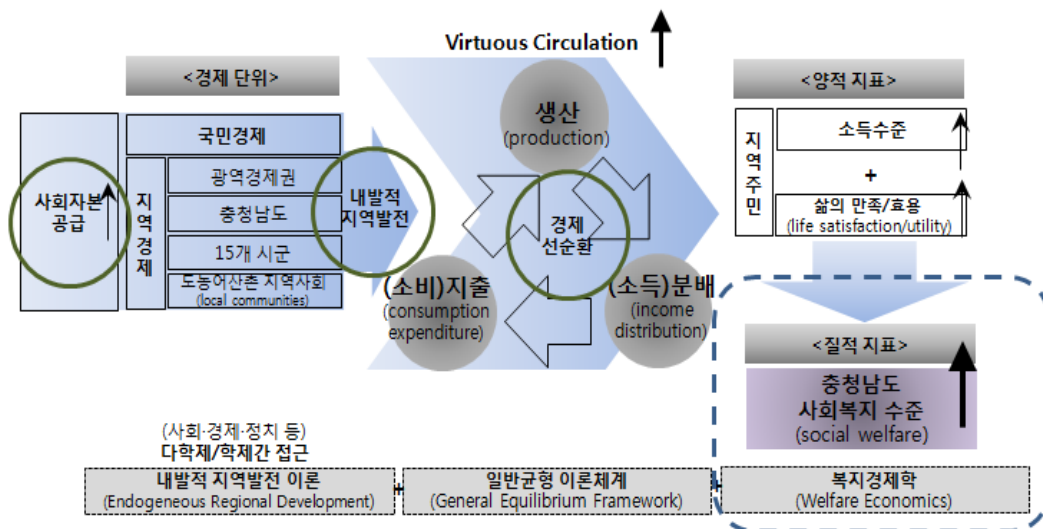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전학과 이론에서 적용된 생산함수를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립방정식화 된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의 함수체계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 II-6〉 참조). 구체적으로 경제 내 총요소생산성의 수준이나 크기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로서 사회자본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생산요소(primal factor)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함수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참고로 내생적 성장론의 전개과정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초기에 지식(knowledge)이나 idea를 인적자본과 연결하여 논리전개를 시도한 연구들을 통해 기술진보 관련문헌들(Romer 1990 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단, 여기서 사회자본은 동질의 단일한 것이 아니라, 조권중(2010)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양하게 유형화·범주화 가능한 무수히 많은 복수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형화되고

범주화되는 사회자본은 결국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들에서 구분되는 바와 같이 관심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의 유형과 범주, 그리고 논의가 되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구분은 결국 개별 경제 단위에서의 정(+)의 외부효과 발현을 도모하고 기대할 정책수단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내발적 지역발전(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은 내생적 지역성장(regional endogenous growth)과는 동일하지 않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양과 질의 통합적 고려가 그 차이로 언급되었다. 특히 사회구조가 고도 및 복합화 되어감에 따라 경제문제가 더 이상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 경제 · 정치 등 다학제적 시각으로 확장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환경변화가 양 자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학문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내발적 발전과 내생적성장의 차이 인식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5) 경제순환과 지역발전의 관계

지금까지 이루어진 설명을 토대로 지역경제 단위에서 경제의 순환과 지역발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II-5)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에서는 결론적으로 내발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 수단들이 결국 해당 단위경제의 선순환 도모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효용(utility) 수준까지 상승시킴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소득이나 효용은 계량화 가능한 양적지표들로서 경제활동의 성과를 질적 지표화까지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 경제사조가 과거부터 그 동안 양적 변수 중심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 강조되다가 질적인 측면까지 추가되어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Carruthers and Babb, 2000 외)²⁸⁾을 이미 언급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내발적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효용수준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이 그림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이론적으로 내발적 지역발전론과 일반균형이론, 그리고 복지경제학의 영역으로의 관심확대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소비자나 생산자의 잉여(surplus)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된 복지(또는 후생)의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대상이 되는 상품(재화나 용역)의 가격과 수량(소비 및 생산량)에 대한 변화를 토대로 논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 내 모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요소들의 가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경제학의 일반균형 이론체계의 핵심사항이며, 이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Fujiwara(2013)나 Slesnick(1998), Rothbard(1956)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이렇게 일반균형 체계와 사회복지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 내생적 성장이론과 내발적 지역발전 이론의 차이는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양자의 차이 문제는 부분균형 모형체계에 기반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생산함수 위주로 논리전개가 이루어지다 보니 경제 내 효용이나 복지 수준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대상을 그림에서와 같이 총남의 사회복지까지 확장시키는 경우, 양자의 차이는 불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8) 이에 대한 참고문헌은 어느 문헌이나 연구논문을 특정하지 않아도 UNDP 같은 관련 국제기구나 학회에 대한 문헌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일반균형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이론은 생산자 중심의 공급과 소비자 중심의 수요 양 측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경제의 순환 문제가 구체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산업이나 지역 등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가계, 기업, 공공 등 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경우, 경제 내 순환문제에 대한 접근은 현실적합성이 제고되는 것이다.

제3장 지역경제 순환 분석 및 진단 수단

앞의 제 2 장에서는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경제순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내발적 발전을 통한 경제 선순환 도모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경제순환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일반균형 이론체계에 입각한 작업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양에서 양과 질 두 측면 모두에 대한 동시적 고려가 요구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보다 능동적으로 논의의 틀을 지역의 사회복지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경제의 순환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경제의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제순환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해당 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들이 경제계정(economic accounts)이며(CEC, IMF, OECD, UN and World Bank, 1993), 이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장에서는 경제계정에 대한 이해작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순환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준비된 수단들은 다음 제 4 장에서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계정

경제계정은 대상 경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table)들이다. 그리고 경제계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NA)이다. 경제순환 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 경제계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제시한 그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는 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해당 경제에 참여하는 행태(behaviour)에 대한 구체적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겠지만, 관련 이론체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정책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1) 국민계정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UN이 마련하여 각국에 제시한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그리고 국제수지표를 통합·편제해 오고 있다. 그리고 UN은 1993년에 새로이 개정된 국민계정체계(SNA1993)²⁹⁾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이 지침에 따라 이행이 가능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한국은행 2005). 이러한 국민계정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제시되는 내용은 주로 한국은행(2005)에서 인용, 정리된 것이다.)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중 국민경제의 활동결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된다. 이들 5대 통계는 이론과 작성방법 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5대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한 계정양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분배 ➡ 지출 ➡ 생산 ...”의 순환과정(circulation process)을 여러 계정을 통하여 나타내 준다. (참고로 이러한 순환과정은 앞 절에서 (그림 II-1)과 같은 것이다.) 국민계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내역은 생산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 내역은 소득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 내역은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에 그리고 ‘국외와의 거래’ 내역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함으로써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국민경제의 순환을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을 통하여 별개로 파악하여 왔으나,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1993)에서는 이들 각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계정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고 있다.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대응관계를 보면 (그림 III-1)과 같다

29) 정확하게는 CEC, IMF, OECD, UN and World Bank(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이다.



- 한국은행(2005)에서 인용.

(그림 III-1) 국민계정체계(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구체적으로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I-1>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는 모두 일정 기간의 흐름(flow)을 기록한 유량계정인 반면 국민대차대조표는 스톡(stock)을 기록한 저장 계정이라는 점이다. 종합하면, 국민경제 전체의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국민계정이다.

<표 III-1>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5대 국민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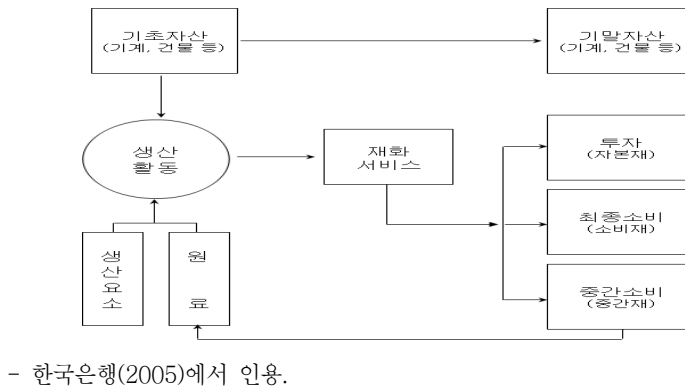
구분	수록 내용	비고
국민소득통계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 어떻게 처분되는가(flow)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 (실물흐름 중심)
산업연관표	특정 상품의 생산위해 어떤 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투입되는가(flow)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 (실물흐름 중심)
자금순환표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 양 측면에서 기록	국민경제의 현금 흐름표
국제수지표	국민경제가 국외경제와 거래한 실물 및 자금의 수취와 지급내역(flow) 기록	외화수지계산서
국민대차대조표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stock)를 모두 기록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

- 한국은행(200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계정 내 각 계정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단, 이에 대한 설명에서는 국민계정의 근간을 이루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소득의 분배와 처분’, 그리고 ‘자본의 조달과 축적’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다.³⁰⁾

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사람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 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며,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생산자나 가게 등에 의해 구입됨으로써 처분된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앞의 그림에서는 생산자가 기계나 건물과 같은 기초자산에 노동력 등 생산요소와 원료를 투입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 또는 소비재로 처분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자본재(capital good)는 생산자가 기계나 건물 같이 오랫동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를 말한다. 그리고 중간재는 생산자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며, 소비재(consumption good)는 가게나 정부가 일상생활 및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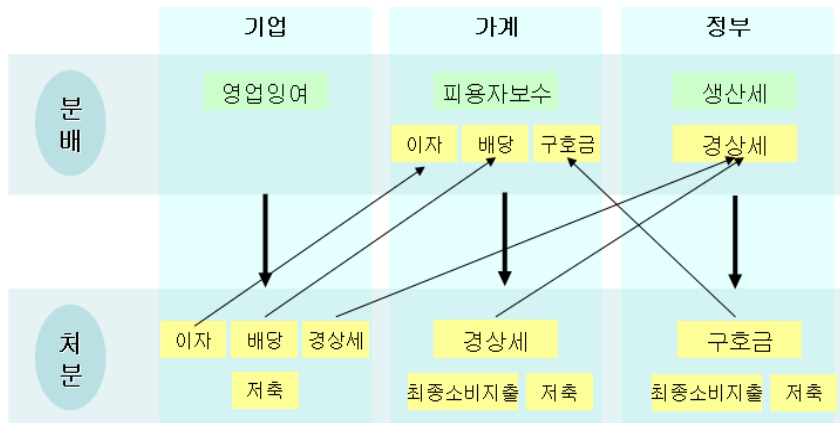
30) 설명의 편의를 위해 국민경제는 외국과의 거래가 없는, 즉 폐쇄경제(closed economy)임을 전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따라서 중간재와 소비재의 대부분은 당기에 소모되나 일부 소모되지 않은 잔여 중간재와 소비재(재고자산) 및 자본재는 생산자의 자산에 추가되어 다음 기의 생산에 이용되거나 판매를 위해 공급된다.³¹⁾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내역은 본래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국민계정에서는 이를 생산계정에 나타내고 있다.

나. 소득의 분배와 처분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되어 일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때 소득은 생산자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창출해낸 부가가치로서, 이는 일차적으로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된다. 구체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household)에 분배되는 급여와 임금 즉, 피용자보수와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인 영업잉여로 대별된다.³²⁾



- 한국은행(2005)에서 인용.

(그림 III-3) 소득의 분배와 처분

31) 이러한 개념은 경제의 동태(dynamic)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32) 이처럼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고 분배받는 소득을 본원소득(primal income)이라 한다. 참고로 노동과 자본을 본원적 생산요소(primal factor)로 표현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차적으로 생산비에 포함되나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생산세가 있다. 이외에도 생산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생산주체에게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이 있다.

이와 같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으로 분배된 소득(본원소득)은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주체 간에 재분배되고, 또한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각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즉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 결정된다. 이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최종소비지출)에 쓰이거나 저축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I-3)과 같으며, 국민계정에서는 소득계정에 잡히게 된다.

다. 자본의 조달과 축적

자본의 조달과 축적은 미래의 수익을 위하여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본을 어떤 형태로 축적(투자)하는가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각 경제주체의 자본조달 및 축적형태를 보면, 기업은 기존 생산시설의 대체 또는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본축적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한 자본조달은 우선 기업의 저축과 기계, 건물 등의 소모를 감안하여 비축한 자금인 감가상각(depreciation)비로 충당하며, 모자라는 자금은 은행이나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의 신축이나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이를 위한 자본조달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자체의 저축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국공채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한편 가계는 당기에 소비지출로 처분하지 않고 저축으로 남은 소득을 은행예금 및 채권 등의 금융자산 형태로 운용한다. 이는 결국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이나 정부에 공급되어 투자재원으로 이용된다.

2) 지역계정

국민계정이 국민경제(national economy) 단위에서 작성된 계정이라면, 지역계정은 지역경제 단위에서 작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광역 시도 행정구역

이상의 경제단위에서 지역계정을 작성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생산활동 측면을 중심으로 한 경제통계가 광역시도 지역경제 단위에서 제공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단위에서 경제통계를 정비하고 발표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계정 작성*>

○ 배경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어 지역단위의 경제개발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통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지역의 소비·투자 구조와 물류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역계정은 국민계정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SNA)의 개념 및 체계에 따라 지역내총생산과 지출로 추계할 수 있으며 통계청의 지역계정 통계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내용

지역계정 통계는 시·도별 지역경제의 생산 규모 및 지출 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 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은 지역경제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로서 각종 지역관련 정책수립 및 지역경제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즉 부가가치를 말한다. 최종생산물에는 쌀·의복·자동차·건물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재화는 물론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용역)까지 포함된다. 지역내 총 생산은 '시·도별 국내총생산 GDP' 라고 생각하면 쉽다. 즉 각 시·도내에 거주하는 각 경제 주체가 얼마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지역내에서 생산된 GRDP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도별로 생산규모와 함께 지역의 소비와 투자구조, 지역 내·외로의 물류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 총생산은 한국은행에서, 지역내 총생산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 국가기록원(<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인용.

지역계정을 작성하는 목적과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Eurostat(1995)나 통계청(2009) 등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지역계정 작성의 배경과 그 내용을 보면 앞에 제시된 참고자료와 같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경제 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생산과 지출을 포괄하는 GRDP를 중심으로 지역계정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EU의 Eurostat(1995)에서는 지역계정에서 지역의 총 고정자본 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 GRDP나 부가가치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총 고정자본형성은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 구입을 의미하는데, 결국 차기(next period) 생산활동을 위한 자본투자와 연결되는 개념이다.³³⁾ 따라서 지역의 고정자본형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해당 지역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역계정에서는 국민계정에서와 같이 경제 내 금융부분이 고려된 자금의 흐름이나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계정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소득 통계의 작성연혁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통계청(1995)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역소득 통계의 구성항목은 다음 <표 II-8>에 정리된 바와 같다.

- 1983년: 시 · 도별 GRDP 추계계획 수립
- 1993년: 시 · 도별 GRDP 공표('85 ~ '91년도분)
- 2000년: 공표시기 조정(잠정-익년말, 확정-익익년 7월)
- 2001년: 시 · 도별 지출부문 자료 공표('95~'99년도분)
- 2002년: 지역소득 분배계정 개발 시작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지역계정 작성 역시 GRDP, 부가가치의 생산과 지출, 그리고 고정자본 형성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분류에 있어서

33) 당기와 차기의 구분은 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하는 동태모형(dynamic model) 체계와 연관되는 것이다. 총 고정자본 형성은 차기의 자본투자나 축적과 관계된 것으로, 자본시장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의 예는 동태 CGE 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의 예에서 확인가능하다.

차이를 제외하고 통계 구성항목이 일반적인 투입산출표에 포함된 항목들과 일치하고 있다 투입산출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지출 측면에서의 지역소득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재화와 서비스의 이입과 이출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해외 수출입과 비교되는 지역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즉, 지역의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원자재나 최종재의 거래를 의미한다. 앞 절에서는 일본의 실측 IRIO 표 자료와 지역 생산자의 비용함수(식 2)를 이용해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이출입이 지역소득 유출의 한 원인임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의 투입산출표에 대한 설명에서 다시 제공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지역경제 단위의 투입산출표 작성과 공표 주체는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임은 앞서 언급된 바 있다.

〈표 III-2〉 지역소득 통계의 구성

구분	생산측면	분배측면	지출측면
항목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재화와 서비스의 이출 (공제)재화와 서비스 이입

- 통계청(2009)에서 인용

3) 투입산출표³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계정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입산출표는 경제의 생산과 분배 지출의 3가지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경제순환의 분석과 진단과정에서 투입산출표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분류를 포함한 부문별로 그의 생산과 소비구조를 제시한다는 측면³⁵⁾에서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투입산출표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가. 전국 투입산출표

투입산출표(input-output, IO table)란 일정 기간 동안 경제 내에서 생산된 제품(재화와 용역)에 대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transaction)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따라서 투입산출표에서 산업간 제품의 흐름(commodity flow), 즉 산업간 상호 의존관계는 파악할 수 있다. IO 표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단, 여기서 제시되는 IO 표는 전국 IO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 때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은 세 가지임이 전제되었다.

34) 투입산출표에 대한 설명은 Miller and Blair(1985)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김홍배(2005)의 내용을 인용한다.

35) 경제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이론전개 과정에서, 단일재화 경제(one-commodity economy)의 가정을 다재화 생산 경제(many-commodity economy)의 전제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투입 \ 배분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	수입 (공제)	총 산출
		산업 #1	산업 #2	산업 #3	소비 (C, G)	투자 (I)	수출 (E)			
중간 투입	산업 #1	(Ⅱ 상한)			(Ⅰ 상한)					
	산업 #2									
	산업 #3									
부가 가치	노동소득 (W)	(Ⅲ 상한)			(Ⅳ 상한)					
	자본소득 (R)									
투입 계										

- 김홍배(2005)에서 편집인용.

(그림 III-4) 투입산출표의 구조

투입산출표의 가로(row) 방향은 배분구조를 나타내며, 이는 산업 제품이 다른 산업의 생산 과정에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수요(intermediate demand) 부문과 최종 생산품으로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등으로 판매되는 최종수요(final demand) 등으로 구분된다. 위의 (그림 III-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투입산출표를 크게 4 상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I 상한은 산업 생산물이 다양한 최종수요에 따라 배분되는 규모를 나타낸다. 제 II 상한은 각 산업간의 거래, 즉 산업간의 연관관계(inter-industrial relationship)를 나타내기 때문에 IO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제 III 상한은 각 산업에 투입된 본원적 생산요소의 양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 부분이다.(그림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상품소비세와 간접세(indirect tax), 그리고 생산 보조금(subsidy) 등 정부의 역할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IV 상한은 IO표를 확장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관련된 구체적 설명은 Miller and Blair(1985)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투입산출표의 특징은 배분과 투입의 합, 다시 말해 산업의 총투입과 총산출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특징으로부터 두 가지의 균형 방정식이 도출된다. 첫 번째 균형방정식은 ‘총공급(aggregate supply)은 총수요(aggregate demand)와 동일함’에서 구해지며, 구체적으로

는 IO 표의 행(row)에서 얻어진다. 여기서 산업 i 의 총공급은 생산(X_i)과 수입(M_i)의 합으로, 그리고 총수요는 중간재 수요($\sum_j X_{ij}$)와 최종재 수요(F_i)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_i + M_i = \sum_j X_{ij} + F_i, \quad (i, j = 1, \dots, n) \quad (5)$$

F_i : i 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합($F_i = C_i + I_i + G_i + E_i$).

두 번째 균형방정식은 산업의 총생산이 총투입과 동일함에서 도출된다. 이 균형방정식은 IO 표의 열(column)로부터 구해지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X_j = \sum_{ij} X_{ij} + W_j + R_j. \quad (6)$$

위 식(6)은 각 산업의 생산규모는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된 중간투입과 부가가치의 합과 동일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별로 구분된 식 (5)와 (6)의 산업 합계는 결국 식(7)과 같이 정리되며, 이를 통해 경제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인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가 최종수요의 합에서 총수입을 공제한 값과 같음을 알 수 있다.

$$\sum_j (W_j + R_j) = \sum_i (F_i - M_i) \quad (7)$$

결론적으로 IO 표는 경제 내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하는 상품시장의 균형³⁶⁾을 전제로 정리된 통계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단일재화 경제가 아니라 현실의 다부문 경제에서 상품시장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되는 재화와 용역의 투입 및 배분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앞의 <표 II-8>에 제시된 지역계정의 생산

36) 상품시장의 균형은 그 유명한 거시경제학의 IS-LM 곡선 중 IS 곡선의 도출과정과 연결되는 것이다.

과 분배, 지출 등의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단위(monetary unit)의 수치자료(numerical data)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IO 표는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유형별로 재화와 용역의 소비구조를 나타내 준다. 구체적으로 최종수요의 소비지출의 주체는 가계(민간)이나 공공 부문 등이 된다. 그리고 앞서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되었듯이, 투자지출은 주로 기업들의 자본투자 행태에 연관되는 항목이다. 즉 IO 표는 사업활동을 중심으로 개별 경제주체 별 경제행위를 체계화한 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주로 수요 측면을 중심으로 제공된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나. 지역 투입산출표

앞에서는 전국 IO 표를 기준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즉 표에서 산업의 구분이 지역별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제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IO 표에 지역의 개념이 반영된 지역 IO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됨으로써 지역 IO 표를 통해 경제의 지역간 · 산업간 연관관계(inter-regional · inter-industrial relationship)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역 IO는 단일 지역 IO(single-region IO)와 다지역 IO(many-region IO)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다지역 IO는 다시 지역간 IO(inter-regional IO, IRIO)와 다지역 IO(multi-regional IO, MRIO)로 구분된다. 양자의 차이는 표를 추계하는 과정에 직접조사 방법이 적용되느냐 간접적 방법이 적용되느냐이다. 구체적으로 IRIO는 기업(firms) 단위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IO 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조사의 기본 단위가 기업이므로 이 표의 작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의 수가 많아지면 지역간 제품의 흐름을 나타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MRIO는 각 산업단위서 제품의 지역간 흐름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방법이다. 참고로 이는 지역간 제품의 흐름이 이미 조사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Miller and Blair(1985)에 기술되어 있다.

배분 투입			중 간 수 요		최종수요		총 산 출
			지역 r	지역 s	지역 r	지역 s	
			$1 \cdots j \cdots n$	$1 \cdots j \cdots n$			
중 간 투 입	지 역 r	$1 \vdots i \vdots n$					
	지 역 s	$1 \vdots i \vdots n$					
부가 가치	노동소득 자본소득						
총투입							

- i 와 j 는 개별 산업을 나타냄.

(그림 III-5) 지역 IO 표의 구조

지역 IO 표의 구조는 일반적인 전국 IO의 구조와 다르지 않으며, 중간재와 최종재 수요의 지역구분이 추가될 뿐이다. 지역 r 과 s 두 지역으로 구분된 경제의 지역IO 구조는 <그림 III-5>와 같다. 그림에서 최종수요는 지역별로 다시 민간과 정부의 소비지출(C 와 G)과 투자지출(I), 수출(E), 그리고 공제항목인 수입(M)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IRIO와 MRIO의 구분은 결국 표에 포함되는 중간재 수요를 추계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동일하다.

투입			지역 r										지역 s									
			중간수요					최종수요					중간수요					최종수요				
			#1	...	#n	C	I	G	X	M			#1	...	#n	C	I	G	X	M		
지역 r	중간 투입	# 1																				
		⋮																				
		#n																				
	부가 가치	노동 소득																				
		자본 소득																				
		기타																				
지역 s	중간 투입	# 1																				
		⋮																				
		#n																				
	부가 가치	노동 소득																				
		자본 소득																				
		기타																				

(그림 III-6) 일본 IRIO의 기본 구조

결국 지역 IO를 통해 우리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지역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의 지역간 거래가 앞서 식(2)에 대한 설명에서 소득유출의 원인들 중 일부임이 언급된 바 있다.

1960년부터 기업단위를 대상으로 한 직접 조사법으로 IRIO 표를 작성하는 일본의 예는 소득 유출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일본의 IRIO 표에서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지역간 거래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구성항목들의 지역간 거래도 규명해 놓고 있다. 나중에 다시 설명되겠지만, 이는 노동과 자본의 지역간 이동이 구체적으로 계측되었을 때 확인되는 항목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지역경제 순환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한 것이다. 일본 經濟通産省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5년 기준 10개 광역권 및 29개 산업분류 기준으로 구분된 IRIO 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참고로 이 때 지면의 한계와 분석결과 제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산업은 5개로 통합조정해서 제시한다.

4) 투입산출표의 한계와 사회계정행렬³⁷⁾

앞에서는 경제 내 다양한 활동을 생산과 수요로 구분하여 산업간 연관관계와 함께 재화와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투입산출표임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IO 표에서는 재화를 소비하는 경제주체들의 소득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물론 IO 표를 통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임금 및 자본소득)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IRIO 표에서와 같이 지역간 산업간의 생산요소 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요소소득의 지역간 이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IO 표를 보면 가계부문에서 소비하는 산업별 수요규모(C)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한 품목별 소비규모를 위해 가계부문의 소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고정자본형성과 관련된 투자수요(I)의 규모는 가계부문의 저축이나 정부의 저축, 그리고 해외부문의 투자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IO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정부소비지출(G)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소득은 간접세와 직접세, 그리고 관세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소득의 형성과정도 IO 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소득형성 메커니즘과 함께 주체들간의 거래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IO 표를 이용하여 사회 내 소득분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

현재 논의 중인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IO 표가 일본의 IRIO 표와 같이 요소소득의 지역간 이동이 구체적으로 반영된다면,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는 상당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특히 경제만이 아닌 사회경제 문제로 논의를 확대하여, 경제 내 계층별 소득분배와 같은 문제는 IO 표를 통해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문제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IO 표로는 점차 복잡화 되어가는 경제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소비지출을 위한 소득은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 내 산업들의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은 계속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IO 표는

37) 사회계정행렬(SAM)에 대한 설명은 Pyatt and Round(1985)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김홍배(2005)의 내용을 인용한다.

경제주체들의 소득형성 과정과 그들의 소비지출 과정이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 내 생산 분배 지출의 순환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IO 표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이라고 할 수 있다(김홍배 2005).

SAM은 IO 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확장한 것으로, 특정 년도의 해당경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표이다. 사회계정 SAM이 IO 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행과 열의 구성에 있다. SAM은 경제 내 모든 주체들의 거래를 나타내기 위하여 정방행렬($n \times n$)의 형태로 작성되며, 그들의 소득과 지출의 합이 일치되게 하는 복식부기 원리(double entry book-keeping principle)에 의해 작성된다. SAM의 일반 구조는 (그림 III-7)과 같다. 그림서 보듯이 SAM의 행과 열에서 각 부문은 동일하게 구성된다. 다시 말해 행에서 어떤 부문이 있다면 그 부문은 열에도 공히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SAM의 행은 수입(receipts or incomings)을 그리고 열은 지출(expenditures or outgoings)을 가리키며, 한 부문의 수입은 그 부문의 지출과 같게 된다. 즉, 각 부문의 행 합과 열 합은 언제나 같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로부터 경제 내 각 부문별로 소득과 제품의 흐름은 물론, 개별 경제주체들의 생산과 소득, 그리고 소비의 관계까지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사회계정 SAM은 산업간 거래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사이의 거래도 나타내므로 경제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것이다.

구분	계정 1 계정 2 ... 계정 i ... 계정 n	계
계정 1		S_1
계정 2		S_2
·		·
계정 i		S_i
·		·
계정 n		S_n
계	S_1 S_2 ... S_i ... S_n	

- 김홍배(2005)에서 인용.

(그림 III-7) SAM의 일반 구조

지금까지의 설명은 주로 국민경제 단위에서의 사회계정에 대해 설명이었다. 그러나 지역경제 단위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역경제 단위에서 사회계정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경제 순환을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지역사회계정의 구조는 다음 (그림 III-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림에서 지역은 2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산업부문들과 개별 경제주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의 산업부문들은 생산활동과 재화 부문에 구체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산업분류의 정도는 자료의 구득 및 이용의 가능성과 연결된다. SAM은 IO 표 같은 경제계정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수입	지출	지역 r					지역 s					정부*	해외	합 계
		생산 활동	재화	생산 요소	가계 부문	자본 시장	생산 활동	재화	생산 요소	가계 부문	자본 시장			
지역 r	생산활동													
	재화													
	생산요소													
	가계부문													
	자본시장													
지역 s	생산활동													
	재화													
	생산요소													
	가계													
	자본시장													
정부부문*														
해외부문														
합 계														

- 김홍배(2005)에서 인용

- *: 중앙 및 지방 구분 가능

(그림 III-8) 다지역 사회계정 SAM의 기본구조

사회계정 SAM의 유용성은 우리나라 통계청(2007)에서 주관한 국제 컨퍼런스(2007 KNS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wth, Distribution, and Social Accounting Matrices”)에서 발표된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 컨퍼런스의 명칭이 경제의 순환(생산·분배 지출)과 직결된 것은, 사회계정 SAM이 경제순환을 분석하고 진단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SAM의 확장가능성과 일반균형 이론체계인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의 적용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yatt and Round(1985)나 언급하고 있듯이, 사회계정은 정형화된 구조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연구자들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수집되는 자료에 따라 SAM의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OECD(2000)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환경이나 보건,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국민계정의 부속계정으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의 작성과정에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성(flexibility)을 허용하고 있다(CEC, OECD, UN and WTO 2001; OECD 2000 등).

참고적으로 앞서 언급한 일본 經濟通産省의 IRIO 표는 일반적인 지역 IO 표의 구조에 추가적으로 지역간 요소소득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經濟通産省의 IRIO 표는 진일보한 형태의 사회계정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득의 역외유출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일본은 1960년 이래, 오랜 동안 기업단위 실사를 통해 지금의 결과물과 같은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계정을 작성한 것이다. 반면 우리의 지역계정 작성의 역사는 일천한데, 일본의 예는 향후 우리의 지역계정 작성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경제순환 분석 및 진단 수단

경제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경제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의 균형(equilibrium)이 달성되고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실제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된 Edgeworth나 Pareto가 제시한 개념도 구체적인 실증자료로부터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의 논의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경제의 균형을 달성하는 재화나 요소들의 가격과 각각의 수급규모를 결정하고, 이 결과들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 배분 (또는 재배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³⁸⁾ 특히 CEC, IMF, OECD, UN(2001, 1993 등) 등의 국제기구들이 SNA나 위성계정 작성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경제계정이 일반균형 이론체계에 입각해서 작성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절에서는 경제순환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수단으로서 경제 및 사회 계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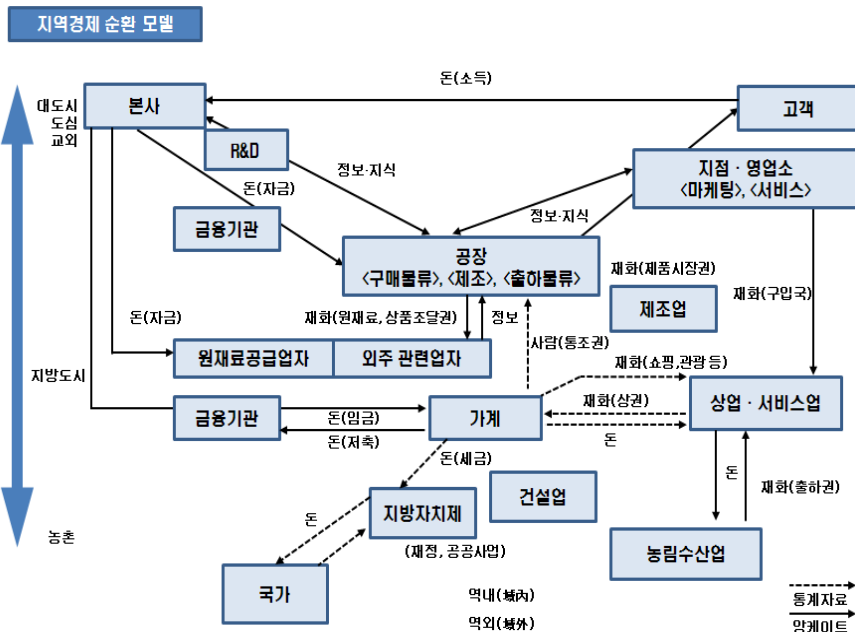
1) 경제 및 사회계정 작성의 필요성

가. Tokyo 모형을 통해 살펴 본 경제 및 사회계정 작성의 필요성

앞의 제 1 절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지만, 경제순환은 경제 내 수요와 공급을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양 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다. 이 때 개별 경제주체들과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들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개별 경제 주체들이 경제 내 생산(공급)과 소비(수요)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신동호 외(2012)에서 지역경제 순환의 분석과 진단을 위해 대표적인 수단으로 일본 Tokyo 대학 「지역경제 순환연구회」의 지역경제 순환모델(Tokyo 모형)이 언급되었는데 다 (그림 III-9)에서 알 수 있듯이, Tokyo 모형은 한 마디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거래나 상품(재화나 용역 등)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에서는 상품과 금전 외에도 지식이나 정보, R&D 등의 흐름도 고려되고 있는데, 포함된 변수들은 앞서 제 2 장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것들이다.

38) 일반균형론에 입각해서 정책이나 계획 분야에서 이루어진 분석사례에 대해서는 Shoven and Whalley(1984), Davarajan(1986), 그리고 Decaluwe and Martens(1988) 등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김홍배 2005).



- 신동호 외(2012)에서 재인용.

(그림 III-9) 도쿄대학 「지역경제 순환연구회」의 지역경제 순환모델

Tokyo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내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 그리고 생산요소들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투입요소들의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생산된 재화가 처분되는 경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Tokyo 모형은 다지역 다산업부문의 지역경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이론적 체계는 수요나 공급 중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두거나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와 산업부문의 참여 수를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부분 균형이 아니라, 일반균형 이론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III-3〉 Tokyo 대학 지역경제 순환모형의 특성 요약

- ① 2개 이상의 지역경제로 구분된 국민경제: 역내와 역외
- ② 전 경제주체 동시 고려: 가계, 기업(본사, 공장, 지점 등), 공공부문(중앙 및 지방 등)
- ③ 다산업부문의 경제: 농림수산, 제조업, 금융, 건설업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
- ④ 생산요소 및 중간원자재 투입구조 고려
- ⑤ 저축과 투자고려
- ⑥ 지식과 정보, R&D 투자 등을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로 고려
- ⑦ 단일도심모형(mono centric mode)* 하의 개념도(그림 참조)

* 단일도심모형은 CBD(중심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거리를 변수로 하는 도시체계를 설명하는 모형임

일반균형 이론 체계 하에서 지역경제 분석작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구성하는 다 지역 다산업부문의 경제 내 전 경제주체들의 수요와 공급 관련 행위에 대한 정보들이 요구된다. 대개의 국가에서 이 정보들은 경제계정(economic accounts)들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SNA에 입각해서 제공되는 경제계정이 경제의 순환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계정의 대표적인 예인 IO표는 일부 경제주체들의 소득형성 과정이 분명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향후 계층간 소득격차 문제와 같은 사회경제 문제까지 확장이 가능한 사회계정 SAM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다

국가단위에서 경제계정은 UN이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NA)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별 산업부문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가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국민계정이 국민경제(national economy) 차원에서 작성되는 것이라면, 지역계정은 지역경제(regional economy) 차원에서 작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계정의 경우 그동안 생산측면 중심으로 작성·제공되다 최근 들어 지출 측면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생산 → 분배 → 지출 등, 경제순환의 3측면을 완벽하게 추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간적으로 지역경제계정의 작성은 광역시도 단위까지만 가능하며, 시군 단위 이하의 경제 단위에 대한 관련통계 구축은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충청남도과 도 내 개별 소규모 지역단위의 경제순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충청남도 지역 사회계정 행렬을 작성하고 그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지역경제 통계생산 현황

참고로 일본 IRIO 표를 인용한 설명에서 언급되었듯이, 본문에서 설명한 경제계정 IO 표의 구성항목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일본 IRIO는 지역경제의 소득유출을 ‘① 중간원자재 조달과정의 결과’, ‘② 최종재 수요과정의 결과’, ‘③ 자본이동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 노동이동의 결과’ 등으로 구분 ·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역외유출 원인은 제 2 장에서 제시된 지역경제(산업활동)의 비용함수로부터 도출된 설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의 경우 실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경제계정 작성과정을 통해 지역간 소득유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IRIO 작성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 장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지역계정(구체적으로 IRIO 표)의 구성항목 차이는 주로 두 나라의 경제통계 작성 및 관리 환경이 상이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동일한 개념의 지역간 투입산출(IRIO) 표를 이미 1960년에 발표할 정도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경험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 최초의 IRIO 표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최초로 시도되어 발표되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일천한 상태이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통계제공의 내용과 그 범위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소규모 지역경제 단위로 내려갈수록 경제 내 제품과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 이용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통계는 광역시도 이상의 단위에서만 경제계정의 체계를 유지하고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시군구 단위에서는 산업들의 생산활동 측면에서 부가가치와 중간원자재 투입규모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중간원자재나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교통 D/B에서는 시군단위에서 화물품목별로 지역간 물동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관리하며 도로나 철도 등 교통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지역 투입산출표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지역간 제품의 흐름은 간접적 방법에 의한 추계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MRIO 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표 III-3〉 지역경제 단위별 경제통계 제공현황(2013년 현재 기준)

구분		국민경제	지역경제		
			광역시도	시·군·구	지역사회 (local community)
경제통계 제공 현황	산업생산 활동	○	○	○	△
	산업연관 /가치사슬	○	○	-	-
	경제계정 제공	국민계정	지역계정	-	-
SAM 전환 가능성		가능	가능	-	-
향후 과제		사회계정 전환 (경제계정 + 사회문제)		경제계정(IO) 작성	value-chain 조사 및 D/B구축
				사회계정 SAM 작성	
비고			(국가교통D/B) 여객 및 품목별 화물물동량 자료 제공		2010산업총조사* (읍면동 단위)

- * 읍면동의 경우 제조업 세분 불가.

지역경제 단위에서 경제통계의 미정비 문제는 지역경제 순환을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과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공간 단위가 소규모가 될 수록, 구체적으로 지역사회(local community) 단위로 내려갈수록 관련된 기초통계는 정비되지 못한 상태이다(〈표 III-3〉 참조).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통계환경은 지역경제 순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련통계의 정비 및 D/B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 순환의 분석과 진단을 위해 사회계정 SAM의 유용성 이 인정된다면, 개별 경제단위 별로 이에 대한 고려와 준비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2) 경제순환 분석 및 진단 지표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에 따라 지역의 경제계정(지역계정)과 이를 발전시킨 사회계정이 준비된다면, 지역경제의 순환은 구체적으로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제순환의 분석의 대상과 진단과정을 구체화할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경제가 선순환되고 있는지, 악순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과 악의 판단 기준 뿐만 아니라, 만일 해당경제가 선순환하고 있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쉽게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 입수된 해외 선진사례 중,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현재 일본의 IRIO의 예외에 없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다. 물론 일본의 IRIO의 예는 현(縣) 단위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작성된 계정이므로, 우리나라 광역시도 단위와 직접적인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충청남도를 구성하는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검토작업의 지속화 및 D/B 구축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지역경제의 순환분석은 <표 III-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소득의 역외 유출규모와 수도권 의존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측면은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외에 지역의 산업구조에 대한 검토 작업도 병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족성 측면에서 특정 산업 집중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도 살펴보고자 한다. 단, 이 항목들을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관련된 구체적 설명은 뒤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의 기초자료는 지역의 경제계정 및 사회계정이다.

항목별 분석결과는 일본의 지역 평균 및 우리나라 광역시도 지역 평균과 비교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소득 역외유출이나 수도권 의존도에 대한 상대적 지표화 작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제 4 장에서 다루어진다.

<표 III-4> 지역경제 순환분석 항목(광역시도 지역경제 기준)

구분	세부 항목	비고
소득의 역외유출	- 부가가치 · 자본소득 · 노동소득	총 5개 산업부문으로 분류 - 1차산업(농림수산 및 광업) - 제조업 - 서비스
수도권* 의존도	- 중간원자재 조달 - 최종재 배달	· 생활지원 서비스 · 기업지원 서비스 · 공공서비스
산업구조	부가가치 기준	산업 대분류 기준

참고로 시군 단위 이하의 지역경제 단위에서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용가능한 자료구득의 한계로, 시군단위에서는 지역계정인 투입산출표(정확이 표현하자면, 실사가 아닌 주로 간접적 방법을 이용해 추계된 시군단위 다지역 투입산출표, MRIO표)가 작성되고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사회(local community) 단위에서 기초통계 미비로 인한 대안제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군단위 경제순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단위경제를 유형화가 이루어지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된 가치사슬(value chain) 규명과 D/B 구축작업을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진다.

3. 경제 및 사회계정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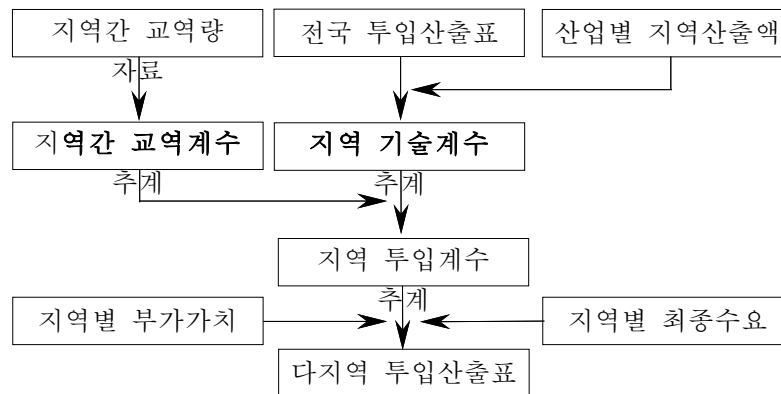
본 장의 제 2 절에서는 지역경제 순환의 분석과 진단을 위한 경제계정 및 사회계정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사회계정 SAM이 사회·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임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계정 SAM은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작성 및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연구자들이 경제의 일반균형 이론체계의 실제 적용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서, 연구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되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정의 진일보한 형태임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사회계정의 작성과정에 대한

1) 작성과정

통계청(2007)이나 국내외의 관련 문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계정 행렬(SAM)은 직접 조사되어 작성되기 보다는 투입산출표(IO table)로부터 간접적으로 작성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실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SAM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IO 표로부터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역시도 단위인 충청남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의 사회계정 SAM은 기존에 한국은행에서 작성, 제시된 지역계정(IRIO 표)을 중심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이다. IO 표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정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계정 행렬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김홍배(2005)와 Pyatt and Round(1985)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군 단위 이하의 지역투입산출표가 공식적으로 조사 작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2009)의 『200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³⁹⁾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각년호)의 『화물 품목별 지역간 물동량』 자료를 바탕으로 Polenske(1980)가 제시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MRIO 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MRIO 와 IRIO를 포함한 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2000)과 국토연구원(2002, 2001) 등에 의해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있으므로,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본 연구에서 MRIO 표의 작성과정은 아래 (그림 III-10)과 같이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박재룡(1997)에서 인용.

(그림 III-10) 시군단위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과정

가. 지역기술계수의 추계

지역기술계수는 해당 지역의 생산기술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중간투입재의 규모만을 나타낼 뿐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이입된 것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지역기술계수를 작성하는 방

39) 투입산출표는 거래액의 평가방법에 따라 구매자가격평가표와 생산자가격평가표로 구분되고, 수입거래액의 취급방법에 따라 경쟁수입형표와 비경쟁수입형표로 구분된다(한국은행, 2003).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가격기준으로 작성된 경쟁수입형표를 이용하여 다지역투입산출표를 작성한다.

법에는 제품혼합법(product-mix method), 가중치기법(weighting method), 입지상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혼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기술계수를 추계하도록 한다. 여기서 제품혼합법이란 산업이 세밀하게 구분될수록 각 산업의 투입구조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지역기술계수를 추계하는 방법이다(김홍배 2005).

$$a_{ij}^r = \frac{\sum_k a_{ij(k)} \cdot x_{j(k)}^N}{X_j^r}, \quad (8)$$

a_{ij}^r : 지역의 기술계수, $a_{ij(k)}^N$: 전국의 투입계수,

$x_{ij(k)}^r$: 지역 내 j 산업의 세분된 k 산업의 산출액.

나. 지역간 교역계수의 추계

지역간 교역계수는 지역간 재화의 거래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지역간 교역계수를 추계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조사방법과 함께 중력모형, 엔트로피모형, LQ 모형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00). 본 논문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간 물동량 자료를 바탕으로 교역계수를 추계한다. 그리고 지역간 거래규모의 파악이 불가능한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입지상(location quotient, LQ) 법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다. 지역투입계수 추계

지역투입계수는 지역 내 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가 어느 지역 어느 산업으로부터 유입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식(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한 지역기술계수와 지역간 교역계수의 곱으로 계산된다.

$$CA = \begin{bmatrix} C^{rr} & C^{rs} \\ C^{sr} & C^{ss} \end{bmatrix} \cdot \begin{bmatrix} A^r & 0 \\ 0 & A^s \end{bmatrix}, \quad (9)$$

CA : 지역투입계수 행렬, C^{rs} : 지역간 교역계수, A^r : 지역기술계수.

그리고 지역별로 최종수요는 민간소비수요와 정부지출수요, 투자수요, 그리고 수출입 수요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부가가치의 경우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그리고 간접세 등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의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의 추계는 한국토지공사 (2004)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작성결과

앞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작성된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사회계정 SAM과 도내 시군단위 투입산출표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주어진 지면의 한계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결과를 정리한 축약된 표들만 제시한다. 원래 포함된 28개 산업부문 전체를 펼쳐놓을 수 없으므로, 보고서에는 산업부문을 모두 통합하거나 <표 III-5>와 같이 5개 부문으로 통합한 결과물 위주로 제시된다. 작성된 결과물을 토대로 이루어진 분석결과는 다음 장에서 설명된다.

〈표 III-5〉 SAM과 IO 표 상의 산업분류

구분	산업대분류 (28 부문 기준)	5 부문	비고
산업 부문	1. 농림수산물	#1. 1차산업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經濟通産省의 10-region 29-sector IRIO의 산업분류도 옆의 5 부문으로 조정· 분석이 이루어짐. 단, 산업부문 통합과정 이 100%일치하지 않음.
	2. 광산물		
	3. 음식료품	#2. 제조업	
	4. 섬유 및 가죽제품		
	5. 목재 및 종이제품		
	6. 인쇄 및 복제		
	7. 석유 및 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1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 및 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 제품		
	17. 전력·가스 및 수도	#3. 생활지원서비스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 및 숙박		
	21. 운수 및 보관	#4. 기업지원서비스	
	22. 통신 및 방송		
	23. 금융 및 보험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 및 국방	#5. 공공서비스	
	26. 교육 및 보건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28. 기타		

가. 충남 지역경제의 사회계정행렬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2005년 기준 16-지역 28산업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된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사회계정행렬 작성 결과는 <표 III-6>에 요약된 바와 같다. 참고로 본 표는 산업부문의 구분이 축약된 거시적 사회계정(macro SAM)의 형태이다. 산업활동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미시적 사회계정행렬(micro SAM)은 부록 II에 정리되어 있다. 부록의 미시적 SAM을 통해 <표 III-6>에서 음영이 반영된 칸의 값들은 그 출발 지역과 목적 지역들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참고로 표에서 이 값들은 재화의 지역간 거래, 특히

11.3	308.2	68.3	83.0	16.2
------	-------	------	------	------

 부분은 충청남도 지역경제로 이입되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거래 규모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때 이들

27.3
440.4
73.7
19.8
10.2

의 출발지역에 대한 정보는 미시적 사회계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반대로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작성된 SAM을 통해 경제 주체나 부문별로 수입과 지출구조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IRIO와 같이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의 지역간 이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결국 작성된 SAM 중 가계부문의 수입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제시될 예정이다.

40) 일례로 168개 산업별로 구분된 지역계정 자료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들의 지역간 및 지역내 물동량 거래규모에 대한 추계작업이 시도되었다. 이 결과는 지역 내 관련 인프라 시설의 수요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III-6〉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사회계정 행렬(macro SAM)(2005년 기준)

(단위: 천억원)

충남	생산활동					재화					생산요소		가계	자본시장	정부	타지역	해외	재고	계
	#1	#2	#3	#4	#5	#1	#2	#3	#4	#5	노동	자본							
생산활동	#1					57.7											0.3		58.0
	#2						614.0										226.5		840.5
	#3							193.4									2.8		196.2
	#4								91.7								4.8		96.5
	#5									117.2							0.4		117.6
재화	#1	3.6	92.8	17.1	0.0	0.8							4.9	0.4	0.0	27.3		0.7	147.7
	#2	14.5	445.8	51.7	7.6	21.1							46.4	75.1	0.0	440.4		3.3	1,105.9
	#3	1.8	28.1	19.4	3.9	11.8							29.8	94.4	0.0	73.7		0.4	263.4
	#4	2.3	57.7	18.4	19.3	7.8							43.7	14.8	1.3	19.8		0.0	185.1
	#5	1.3	9.8	3.7	3.9	8.7							39.0	0.0	59.8	10.2		0.0	136.4
생산요소	노동	99.1	72.4	40.0	21.6	49.1													188.8
	자본	30.9	88.7	35.7	34.9	17.0													207.2
가계											188.8	207.2							396.0
자본시장													91.1		149.3	-84.5	33.2		189.1
정부	0.7	42.2	10.2	5.5	1.1	1.6	7.9	0.0	0.0	0.0			141.1						210.4
타지역						11.3	308.2	68.3	83.0	16.2									487.0
해외						77.1	175.7	1.7	10.5	3.0									268.0
재고														4.4					4.4
계	58.0	840.5	196.2	96.5	117.6	147.7	1,105.9	263.4	185.1	136.4	188.8	207.2	396.0	189.1	210.4	487.0	268.0	4.4	

나. 충청남도 내 시군지역 중심 다지역 투입산출표

도내 시군단위 지역경제의 순환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본 연구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을 48개 지역, 그리고 산업부문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대분류(28개 부문)기준으로 구분된 다지역 투입산출(MRIO)표를 작성하였다. 참고로 이 때의 지역구분은 충청남도 내 15개⁴¹⁾ 개별 시군과 거래가 있는 경기도와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등의 광역행정구역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을 48개 지역으로, 산업부문을 28산업으로 구분한 다지역 투입산출표(48-지역 28-산업 MRIO 표)가 작성되었으며, 이 표는 중간연심회 과정에서 별도로 인쇄되어 제출되었다.

작성된 48-지역 28-부문 MRIO 표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본 연구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군 단위에서 시도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상품의 지역간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의 구체적 세분작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이 결과물은 지속적인 확인 및 보완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범적으로 시도된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결과물의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장기 대형과제인 본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의 후속작업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31개 지역 1-산업부문으로 조정된 충청남도 시군단위 MRIO 표는 <표 III-7>에 정리된 바와 같다. 참고로 시군단위 MRIO 표는 지면상의 한계로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1) 200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연기군이 포함된 16개 시군이 정확한 표현이다.

제4장 충청남도 지역경제 순환분석

앞의 제 3 장에서는 지역경제 순환을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들과 함께, 이를 적용하여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회 및 경제계정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다. 특히 광역시도 단위인 충청남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의 사회계정행렬 SAM이, 그리고 충청남도 내 시군단위 경제분석을 위한 MRIO표가 제시되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순환에 대한 분석작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된다. 참고로 그 전에 일본의 IRIO표로부터 정리된 결과가 설명된다. 일본 IRIO 표는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IRIO 표에 비해 소득유출 및 경제순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벤치마킹: 일본 지역경제의 소득 역외유출

〈표 IV-1〉에 제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의 수출입 의존도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즉,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상대적으로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더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 지역간 수요 역시 이러한 해외의 수출입 수요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앞서 제 1 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표 IV-1〉 한·중·일 3국의 무역의존도(2009년 기준)*

구분	한국	일본	중국
수출의존도	43.4%	11.4%	24.5%
수입의존도	38.8%	10.8%	20.5%

* 수출(또는수입) 규모/GDP를 의미

- 자료: 日本 總務省 統計局(<http://www.stat.go.jp/data/sekai/0116.htm#c09>)에서 인용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일본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광역지역들의 경제활동 개요는 <표 IV-2>에 정리된 바와 같다. 여기서 제시된 지역은 縣 단위 이상의 9개 광역단위로 구분되었으며, 이 자료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일본에서 우리의 수도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關東(kanto) 지역의 경제비중(부가가치 기준)이 43.7%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참고로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⁴²)를 보면, 東北(tohoku)과 中國(chugoku), 그리고 四國(shikoku) 등 경제비중이 미약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산업점유율들의 변동계수가 낮다는 것은, 전 산업부문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반면 關東(kanto) 지역의 산업구조의 변동계수는 1.325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21. 상업’과 ‘22. 금융 및 부동산, 사업서비스’, 그리고 ‘27. 기업지원서비스’ 등이 집중된 산업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關東(kanto) 지역이 일본의 수도권 지역으로, 기업지원 부문에서 전국적인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 沖繩(okinawa)와 北海道(hokkaido) 지역들의 산업구조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은 일본 본토에서 떨어진 섬 경제로, 경제규모도 크지 않으므로 논외로 한다.

직관적으로 일본의 지역별 산업구조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뒤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분석결과와 대비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일본 IRIO 표를 통해 정리된 중간원자재, 최종재 등의 지역간 이출입 구조, 그리고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의 지역간 거래구조가 제시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역소득의 역외유출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구체적으로 <표 IV-3>과 <표 IV-4>에서는 각각 중간원자재와 최종소비재(가계외 소비, 민간 및 정부 소비)의 지역간 이출입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각 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표 IV-4>의 최종재 이출입 구조 중, 北海道에서 최종재의역외이입 비중이 7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입규모가 매우 큼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42) 변동계수(CV= 표준편차/평균)는 해당 변수들 편차의 상대적 척도로, 그 값이 작을수록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나타낸다.

〈표 IV-2〉 일본 지역경제 개요(2005년 기준)

구분		Hokkaido	Tohoku	Kanto	Chubu	Kinki	Chugoku	Shikoku	Kyusyu	Okinawa	Total (Japan)
산업 구조	1.농림어업	5.8%	3.3%	0.8%	0.9%	0.6%	1.5%	2.8%	2.9%	1.7%	1.4%
	2. 광업	0.2%	0.1%	0.1%	0.1%	0.0%	0.1%	0.2%	0.1%	0.2%	0.1%
	3. 음식료품	3.4%	4.0%	2.5%	2.4%	2.8%	2.4%	2.7%	3.6%	2.2%	2.8%
	4. 섬유제품	0.1%	0.4%	0.1%	0.5%	0.5%	0.6%	0.5%	0.2%	0.0%	0.3%
	5.목재및가구	0.5%	0.5%	0.2%	0.6%	0.4%	0.5%	0.7%	0.4%	0.1%	0.4%
	6.펄프및종이	0.9%	0.7%	0.4%	0.6%	0.5%	0.5%	2.3%	0.3%	0.1%	0.5%
	7. 화학	0.3%	1.0%	1.5%	1.7%	1.8%	2.5%	2.2%	0.9%	0.1%	1.5%
	8. 석유제품	1.5%	0.5%	0.9%	1.2%	0.8%	2.8%	1.8%	0.5%	1.0%	1.0%
	9.플라스틱	0.1%	0.5%	0.6%	1.4%	0.8%	0.7%	0.5%	0.3%	0.0%	0.7%
	10.세라믹	0.4%	0.8%	0.4%	1.2%	0.6%	0.8%	0.7%	0.8%	0.6%	0.6%
	11.철강	0.7%	0.5%	0.8%	1.6%	1.6%	3.9%	0.4%	1.4%	0.2%	1.2%
	12.비철금속	0.0%	0.6%	0.3%	0.7%	0.3%	0.3%	0.5%	0.2%	0.0%	0.3%
	13. 금속	0.5%	1.0%	1.0%	1.7%	1.5%	0.9%	1.0%	0.8%	0.4%	1.1%
	14. 일반기계	0.3%	1.5%	1.9%	3.9%	2.8%	2.3%	1.8%	1.3%	0.1%	2.2%
	15.전기전자	0.4%	3.8%	2.2%	3.4%	2.6%	2.1%	1.9%	2.1%	0.0%	2.4%
	16.수송장비	0.3%	0.7%	1.8%	6.5%	0.9%	3.2%	0.9%	1.4%	0.1%	2.1%
	17. 정밀기기	0.0%	0.5%	0.4%	0.2%	0.3%	0.2%	0.1%	0.1%	0.0%	0.3%
	18.기타제조업	0.7%	1.1%	1.5%	1.7%	1.5%	1.4%	0.8%	1.1%	0.5%	1.4%
	19. 건설	7.3%	6.9%	5.7%	5.8%	5.8%	5.7%	6.8%	5.9%	9.0%	5.9%
	20. P/U	2.5%	4.8%	2.1%	2.7%	3.0%	2.8%	2.9%	2.8%	3.1%	2.6%
	21. 상업	14.6%	12.8%	15.7%	14.4%	15.7%	12.1%	11.9%	14.1%	11.0%	14.8%
	22.금융,부동산	16.4%	15.8%	17.8%	13.9%	17.7%	15.0%	17.2%	16.7%	19.0%	16.9%
	23. 운송	6.0%	5.0%	4.7%	4.0%	4.8%	6.5%	5.9%	5.5%	7.2%	4.9%
	24.정보통신	3.9%	3.1%	7.9%	3.3%	4.1%	3.2%	4.1%	3.7%	3.8%	5.5%
	25. 행정, 교육	10.2%	10.5%	7.9%	7.7%	8.1%	9.2%	9.4%	9.4%	13.6%	8.4%
	26.의료, 보건	9.9%	8.3%	4.8%	6.1%	7.0%	8.8%	10.9%	11.3%	12.3%	6.8%
	27. 기업지원	6.2%	5.5%	9.6%	6.4%	7.5%	5.3%	4.2%	5.8%	5.8%	7.7%
	28.개인서비스	6.8%	5.9%	6.3%	5.6%	6.2%	4.9%	5.2%	6.4%	8.2%	6.1%
	29.기타	-0.1%	-0.1%	-0.1%	-0.1%	-0.2%	-0.1%	-0.1%	-0.1%	-0.2%	-0.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산업구조 변동계수		1.329	1.183	1.325	1.073	1.277	1.091	1.215	1.282	1.491	1.232
GRDP(십억 엔)		19,063	30,952	214,940	57,122	80,934	29,056	13,537	42,614	3,246	491,522
GRDP/GDP		3.9%	6.3%	43.7%	11.6%	16.5%	5.9%	2.8%	8.7%	0.7%	100.0%

- 자료: 일본 經濟通産省.

〈표 IV-3〉 일본의 사례: 중간재로 인한 소득유출 (중간재 조달구조)

(단위: 십억엔)

from \ to	北海道	東北	關東	中部	近畿	中國	四國	九州	沖縄 (Okinawa)	(합계)
北海道	10,630,039	511,285	1,960,065	590,393	521,846	151,142	58,384	183,779	12,299	14,619,232
東北	370,684	16,409,376	5,505,097	952,347	905,965	307,032	127,636	377,057	25,132	24,980,326
關東	2,392,599	6,199,344	161,086,119	11,588,613	8,437,157	3,915,270	1,761,653	4,994,112	321,711	200,696,578
中部	520,383	1,221,281	9,168,654	44,089,102	5,132,209	1,625,044	578,112	1,884,417	91,497	64,310,699
近畿	511,611	1,079,378	8,173,165	5,244,571	50,753,371	2,537,527	1,251,797	2,165,107	112,535	71,829,062
中國	194,711	368,724	3,244,458	1,904,228	2,717,973	22,302,424	766,334	1,881,341	50,299	33,430,492
四國	82,211	177,345	1,543,410	693,875	1,091,517	641,813	7,131,776	510,589	16,364	11,888,900
九州	134,166	307,442	2,723,291	1,166,556	1,631,877	1,264,566	372,677	24,616,803	131,178	32,348,556
沖縄(Okinawa)	3,965	8,189	146,677	40,196	45,879	12,002	4,026	62,655	1,758,210	2,081,799
합계(A)	14,840,369	26,282,364	193,550,936	66,269,881	71,237,794	32,756,820	12,052,395	36,675,860	2,519,225	456,185,644
역외조달규모(B)	4,210,330	9,872,988	32,464,817	22,180,779	20,484,423	10,454,396	4,920,619	12,059,057	761,015	117,408,424
(B/A×100)	28.4%	37.6%	16.8%	33.5%	28.8%	31.9%	40.8%	32.9%	30.2%	25.7%

- 자료: 일본 經濟通産省, 2005년 기준 IRIO표.

〈표 IV-4〉 일본의 사례: 최종재*로 인한 소득유출 (최종소비지출구조)

(단위: 십억엔)

from \ to	北海道	東北	關東	中部	近畿	中國	四國	九州	沖縄 (Okinawa)	(합계)
北海道	9,948,755	308,525	1,333,712	318,900	384,792	104,332	32,801	109,513	7,225	12,548,555
東北	373,525	20,310,460	3,379,592	480,708	555,519	178,281	95,744	250,572	14,349	25,638,750
關東	27,834,638	3,101,578	138,913,115	4,578,839	4,458,082	1,525,383	792,664	1,977,057	173,620	183,354,976
中部	298,577	414,535	4,003,147	30,261,983	2,462,418	504,930	251,667	630,749	36,139	38,864,145
近畿	410,786	508,533	4,164,839	2,548,339	51,768,512	1,217,137	715,439	1,165,617	73,916	62,573,118
中國	116,478	145,545	1,321,642	500,353	1,120,335	17,527,675	360,233	883,857	27,703	22,003,821
四國	31,257	70,020	597,185	245,896	589,891	345,178	9,276,710	213,491	9,350	11,378,978
九州	109,689	192,932	1,710,410	667,535	1,135,136	812,623	208,614	31,678,111	85,719	36,600,769
沖縄(Okinawa)	6,129	8,070	183,713	46,602	66,152	10,889	5,456	43,438	2,806,400	3,176,849
합계(A)	39,129,834	25,060,198	155,607,355	39,649,155	62,540,837	22,226,428	11,739,328	36,952,405	3,234,421	396,139,961
역외이입규모(B)	29,181,079	4,749,738	16,694,240	9,387,172	10,772,325	4,698,753	2,462,618	5,274,294	428,021	83,648,240
(B/A×100)	74.6%**	19.0%	10.7%	23.7%	17.2%	21.1%	21.0%	14.3%	13.2%	21.1%

* 최종재 중 소비지출(가계의 소비지출, 민간소비지출, 그리고 정부소비지출만 고려함)

** 北海道의 이입규모가 매우 높은 것은 주로 關東 지역을 포함한 본토의 공공서비스 소비에 기인한 것임

- 자료: 일본 經濟通産省, 2005년 기준 RIO표.

다음으로 <표 IV-5>와 <표 IV-6>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지역간 이출입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는 부가가치의 주요 구성항목들로, 전자는 임금소득(또는 노동소득)을 후자는 자본소득을 가리킨다. 만일 경제 내 산업들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요소가 앞서 2장에서 제시된 Cobb-Douglas형 생산함수($Q = A \cdot K^a \cdot L^b$)와 같이 노동과 자본의 두 가지만 조제하는 경우라면, 이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이입규모가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산업들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 외에 다양한 중간재들이 존재하므로, 앞서 <표 IV-3>의 중간재 이입규모 역시 소득의 역외유출에 해당됨을 이미 설명하였다.

<표 IV-5>의 노동소득의 지역간 이입구조를 보면, 열(column)은 해당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을 위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 거주지역을, 그리고 행(row)은 그들이 근무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표는 결국 지역 내 산업생산 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출발지역/목적지역(origin/destination, O/D) 자료, 그리고 이들의 임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결합됨으로써 도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9개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노동소득(피용자보수)의 역외유출비율은 2005년 기준 평균적으로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의 경우 지역내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이 주로 자기 지역 내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수치가 상대적인 크기로 제시되었을 때에만 이러한 피용자 보수 역외유출 비율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표 IV-6>은 일본의 지역별 자본소득(영업잉여)의 이출입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에서 보이듯이, 지역간 자본거래인 자본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유출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즉, 다른 지역들로 유출되는 자본소득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그러나 노동소득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본소득의 경우에도 지역간의 이출입 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수익(return)을 좇아 생산활동에 대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IRIO 표에서는 자본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자본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 규모만 제시하고 있다.

〈표 IV-5〉 일본의 사례: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파용자보수)의 이출입

(단위: 십억엔)

from to	北海道	東北	關東	中部	近畿	中國	四國	九州	沖縄 (Okinawa)	(합계)
北海道	9,764,445	30,599	48,994	6,173	6,586	1,258	501	3,520	201	9,862,277
東北	17,437	15,709,802	194,503	14,813	10,274	3,487	2,736	7,329	281	15,960,662
關東	337,049	866,448	108,789,784	1,116,785	1,319,680	429,835	152,264	633,651	29,813	113,675,309
中部	17,513	31,664	479,505	29,508,646	261,793	28,462	8,647	43,519	2,214	30,381,963
近畿	52,088	103,625	1,005,315	474,903	35,724,900	246,298	90,485	239,256	8,939	37,945,809
中國	4,402	8,027	99,997	21,072	86,092	14,693,674	37,847	92,976	1,112	15,045,199
四國	2,341	4,582	30,104	7,600	30,447	41,328	6,951,878	12,106	878	7,081,264
九州	5,988	9,944	124,906	24,067	44,519	92,826	16,616	29,973,985	7,428	30,300,279
沖縄(Okinawa)	363	93	4,988	2,202	1,191	339	107	2,605	1,745,763	1,757,651
합계(A)	10,201,626	16,764,784	110,778,096	31,176,261	37,485,482	15,537,507	7,261,081	31,008,947	1,796,629	262,010,413
역외유출구모(B)	437,181	1,054,982	1,988,312	1,667,615	1,760,582	843,833	309,203	1,034,962	50,866	9,147,536
(B/A×100)	4.3%	6.3%	1.8%	5.3%	4.7%	5.4%	4.3%	3.3%	2.8%	3.5%

- 자료: 일본 經濟通産省, 2005년 기준 IRIO표.

앞 장에서는 일본의 IRIO표가 일반적인 지역 IO표의 구조에 비해 진일보한 형태임을 언급하였다. 노동소득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만, 영업잉여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본 IRIO 역시 경제계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로 자본과 관련된 저장(stock)과 유량(flow)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축적과 투자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유형고정자산을 중심으로 자본 스톡을 추계하려는 시도는 표학길(2012), 표학길 외(2007)과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들이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초통계는 매 10년 단위로 제공되는 『국부통계』이다. 따라서 관련된 스톡의 추계 외에 지역간 자본투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참고로 일본 IRIO의 경우 생산요소 중 노동은 불완전 이동을 자본은 완전이동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은 시장에서 그의 거래가 완벽하게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당기에서 나타나는 지역간의 이동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정과정이 완벽하게 종료된 것으로, 더 이상의 지역간 자본의 이동은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신고전적 지역성장이론과 또 그를 확장 발전시킨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의 적용 사례들로부터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김홍배·임재영, 2006, 1998외). 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자본의 저장과 유량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신고전적 이론체계 하에서 지역경제 내에서 발생한 자본유량의 변화(감가상각 또는 신규투자 등)는 해당 산업활동의 성과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균형 이론체계인 CGE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회계정 SAM이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자본의 유량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요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의 경험과 실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본 IRIO에서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작업이 그 만큼 어려운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이출입 구조를 통해 정리된 지역별 부가가치의 이출입 구조는 <표 IV-7>에 정리된 바와 같다. 단, 표에는 보조금(subsidy)과 고정자본소모, 그리고 간접세(indirect tax)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IV-6〉 일본의 사례: 부가가치 중, 자본소득(영업잉여)의 이출입

(단위: 십억엔)

from to	北海道	東北	關東	中部	近畿	中國	四國	九州	沖縄 (Okinawa)	(합계)
北海道	4,112,188	-	-	-	-	-	-	-	-	4,112,188
東北	-	5,964,477	-	-	-	-	-	-	-	5,964,477
關東	-	-	44,844,645	-	-	-	-	-	-	44,844,645
中部	-	-	-	10,759,197	-	-	-	-	-	10,759,197
近畿	-	-	-	-	20,256,405	-	-	-	-	20,256,405
中國	-	-	-	-	-	5,435,770	-	-	-	5,435,770
四國	-	-	-	-	-	-	2,696,559	-	-	2,696,559
九州	-	-	-	-	-	-	-	12,121,170	-	12,121,170
沖縄(Okinawa)	-	-	-	-	-	-	-	-	562,176	562,176
합계(A)	4,112,188	5,964,477	44,844,645	10,759,197	20,256,405	5,435,770	2,696,559	12,121,170	562,176	106,752,587
역외유출규모(B)	-	-	-	-	-	-	-	-	-	-
(B/A×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자료: 일본 經濟通産省, 2005년 기준 IRIO표.

지금까지 일본의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중간원자재와 최종재 등의 제품, 그리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과 관련된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제품이나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의 출발지/목적지(O/D)는 소득유출의 개념으로 전환했을 때 반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간원자재를 조달하는 지역의 입장에서, 타 지역으로부터 중간원자재 구입규모만큼 지역의 소득이 유출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모든 중간원자재를 조달이 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지역 외부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조달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결국 지역 내에서 누군가의 소득이 타 지역 중간원자재 생산자에게 유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의 역외유출을 설명하는 경우, 이해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지역주민 누군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피용자보수가 타 지역 주민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타 지역주민에게 제공된 임금이 그의 노동한 대가임은 분명하다. 자본의 경우라면, 자본투자의 대가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 2 장의 식(1)과 (2)에 반영되어 있듯이, 해당 제품과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들의 지역간 이출입의 규모(양, quantity)와 그들의 단위 가격에 대한 정보가 의미하는 바와 이들이 계정 상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의 형태로 제시된 영업잉여의 지역간 이출입 자료는 정방행렬의 형태로 모든 지역간의 거래관계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그의 설명력은 물론 현실적합성은 더욱 제고되는 것이다.

〈표 IV-7〉 일본의 사례: 부가가치* 이출입 구조

(단위: 십억엔)

from to	北海道	東北	關東	中部	近畿	中國	四國	九州	沖縄 (Okinawa)	(합계)
北海道	18,531,359	36,940	55,431	6,801	7,990	1,425	569	4,221	219	18,644,955
東北	20,341	29,673,522	211,201	16,805	12,183	3,789	2,836	8,314	334	29,949,325
關東	410,649	1,049,461	212,604,452	1,340,944	1,689,442	523,943	185,580	755,461	36,096	218,596,028
中部	21,205	38,323	556,598	55,140,155	297,657	34,314	10,352	51,599	2,672	56,152,875
近畿	63,354	126,284	1,207,088	553,349	81,566,562	292,229	108,071	283,499	10,795	84,211,231
中國	5,313	9,742	118,669	24,883	100,565	28,049,214	42,496	103,069	1,335	28,455,286
四國	2,815	5,483	35,172	8,942	35,337	46,339	13,228,199	14,212	1,053	13,377,552
九州	7,164	11,904	145,729	27,589	52,564	104,463	18,861	56,439,434	8,888	56,816,596
沖縄(Okinawa)	428	98	5,453	2,282	1,365	360	111	2,950	3,105,323	3,118,370
합계(A)	19,062,628	30,951,757	214,939,793	57,121,750	83,763,665	29,056,076	13,597,075	57,662,759	3,166,715	509,322,218
역외유출규모(B)	531,269	1,278,235	2,335,341	1,981,595	2,197,103	1,006,862	368,876	1,223,325	61,392	10,983,998
(B/A×100)	2.8%	4.1%	1.1%	3.5%	2.6%	3.5%	2.7%	2.1%	1.9%	2.2%

* 보조금, 간접세, 고정자본소모 등 제외

- 자료: 일본 經濟通産省, 2005년 기준 RIO표.

2.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소득 역외유출

앞 절에서는 소득의 역외유출 개념을 토대로, 실제 일본의 9개 광역지역 사이에서 나타난 소득의 역외유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經濟通産省에서 제공하는 실사에 기반한 IRIO 표가 이용되었으며, 그 내용 중 특히 자본이동(투자)과 관련된 소득의 유출이 불분명함이 설명되었다.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순환과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규모와 산업구조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851, 952십억원이며, 각 지역별 GRDP 규모는 <표 IV-8>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경제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제시되었다. 충청남도의 경제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약 5.3%이며, 2013년 현재까지 이 비중이 계속 상승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보면,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계산된 일본 산업구조의 변동계수는 1.232인데 반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동계수는 0.987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본 내 각 지역들의 산업구조 변동계수는 일본 전체 변동계수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지역별 산업구조 변동계수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이나 울산의 변동계수 값이 각각 1.7820과 1.867인데 반해, 충남과 경남의 변동계수 값은 각각 0.867과 0.864이다. 즉, 충남과 울산의 산업구조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충남의 경우에는 최대 주력업종인 전기전자가 10.6%에 불과한 반면 서울의 주력업종인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업종이 29.3%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충청남도는 전 제조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구조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충청남도 지역경제는 서비스 부문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금융 및 보험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 부문의 구성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우리나라 지역경제 개요(2005년 기준)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1.차산업	00%	08%	17%	03%	70%	78%	08%	100%	98%	00%	63%	13%	00%	52%	88%	161%	31%
3.음식료	02%	23%	23%	67%	71%	29%	63%	64%	11%	14%	31%	12%	04%	41%	80%	18%	24%
4.섬유 및 가죽	27%	07%	14%	04%	12%	07%	03%	08%	01%	30%	18%	18%	00%	07%	01%	00%	13%
5.목재 및 종이	01%	14%	10%	14%	17%	10%	02%	18%	03%	08%	04%	03%	03%	08%	01%	01%	00%
6.인쇄 및 복제	07%	01%	03%	02%	02%	01%	02%	01%	00%	03%	03%	03%	00%	01%	01%	01%	03%
7.석유 및 석탄	00%	21%	00%	00%	00%	77%	00%	00%	100%	00%	02%	01%	308%	00%	00%	00%	27%
8.화학 제품	02%	32%	51%	48%	73%	73%	28%	43%	94%	10%	40%	14%	109%	30%	08%	02%	38%
9.비금속 광물	01%	07%	09%	03%	23%	28%	01%	18%	10%	04%	23%	02%	02%	10%	23%	00%	00%
10.제1차 금속	00%	49%	10%	02%	08%	19%	00%	07%	143%	10%	120%	22%	28%	20%	02%	00%	20%
11.금속	02%	33%	22%	03%	18%	13%	14%	03%	00%	27%	21%	20%	22%	41%	02%	01%	10%
12.일반 기계	03%	50%	30%	10%	18%	24%	31%	10%	03%	30%	14%	22%	23%	91%	03%	00%	23%
13.전기 및 전자	10%	44%	116%	08%	97%	100%	59%	09%	03%	23%	160%	14%	33%	40%	03%	02%	53%
14.정밀 기기	02%	04%	07%	03%	13%	04%	01%	00%	00%	03%	03%	04%	00%	07%	03%	00%	04%
15.수송 장비	00%	28%	31%	07%	10%	54%	62%	54%	14%	23%	18%	28%	104%	80%	09%	00%	33%
16.기타 제조업	03%	13%	10%	03%	03%	03%	03%	04%	00%	02%	03%	03%	00%	03%	01%	01%	03%
17.전자·가스 및 수도	02%	48%	14%	04%	09%	40%	03%	08%	63%	03%	61%	37%	10%	39%	11%	11%	22%
18.건설	68%	78%	89%	84%	90%	92%	82%	97%	83%	79%	70%	90%	33%	84%	118%	100%	80%
19.도소매	132%	53%	60%	82%	47%	32%	90%	59%	30%	100%	31%	109%	20%	47%	53%	70%	74%
20.음식 및 숙박	33%	22%	23%	30%	24%	19%	29%	23%	14%	34%	18%	38%	11%	23%	49%	60%	27%
21.문화 및 오락	45%	119%	20%	39%	27%	19%	24%	34%	34%	34%	28%	88%	23%	28%	33%	52%	40%
22.통신 및 방송	52%	22%	20%	30%	19%	10%	28%	23%	11%	30%	12%	30%	07%	13%	30%	27%	28%
23.금융 및 보험	130%	49%	43%	63%	42%	27%	63%	51%	28%	80%	29%	69%	19%	38%	37%	60%	63%
24.부동산 및 사업	203%	122%	179%	233%	100%	79%	135%	100%	58%	178%	81%	150%	40%	94%	90%	138%	164%
25.공공행정 및 국방	30%	40%	50%	78%	77%	57%	62%	89%	63%	60%	53%	49%	13%	70%	191%	89%	50%
26.교육 및 보건	88%	88%	91%	140%	102%	73%	151%	138%	60%	144%	73%	123%	41%	83%	112%	123%	93%
27.사회복지 서비스	50%	24%	40%	32%	27%	10%	33%	28%	13%	37%	13%	29%	11%	21%	40%	68%	34%
28.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변동계수	1.80	0.92	1.16	1.44	0.97	0.85	1.03	1.08	1.05	1.25	1.03	1.06	1.87	0.84	1.37	1.37	0.87
GDP(백만원)	19105	4154	17004	2070	2407	4533	1918	2439	4457	2810	3336	4786	4044	502	2332	744	80.92
GDP/GDP	2.4%	49%	200%	24%	29%	53%	22%	29%	52%	33%	69%	50%	47%	60%	28%	09%	1000%

1)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소득 역외유출

충청남도의 소득유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지역경제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규명되어야 함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앞서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충청남도 지역경제를 기준으로 한 소득의 역외유출도 중간원자재 및 최종재 등 제품의 지역간 이출입과 그리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에 기반한 소득유출 순으로 살펴 본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중간원자재 이출입으로 인한 소득유출

<표 IV-9>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의 중간원자재 총 거래규모는 1,216,826십억원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58.7%만이 자기 지역에서 조달되고, 나머지 41.3%인 501,970십억원치의 중간원자재가 다른 지역들로부터 이입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각 지역경제별로 중간원자재의 지역외 이입비율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체로 역외조달 비율은 앞서 설명한 지역경제의 규모와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역경제들의 중간원자재 역외의존도가 앞서 일본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를 갖고서 양국 사이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지역구분과 우리나라의 지역구분이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예시된 IRIO 상의 일본 지역경제들은 자족성 확보정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업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지역경제 별로 총량 단위의 거래규모만으로 소득유출의 문제점은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개별 지역경제마다 저마다의 주어진 경제환경(endowments)에 따라 산업구조가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의 예에서와 같이, 서울은 기업지원 서비스의 비중이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간 중간원자재 이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품목별로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되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된다.

〈표 IV-9〉 소득의 역외유출: 중간원자재 거래(2005년 기준)

(단위: 십억원)

from to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진국)
서울	112,170	7,644	31,386	1,795	2,538	4,193	1,738	2,000	3,079	2,248	5,850	3,821	2,683	4,519	1,801	547	188,012
인천	9,576	39,313	11,431	664	1,389	3,356	697	911	1,334	718	2,369	1,342	1,544	2,373	969	193	78,178
경기	23,194	7,613	144,054	2,142	4,176	8,532	2,375	2,666	3,005	2,417	8,059	3,629	4,547	6,088	2,629	491	225,617
대전	1,344	399	1,811	7,923	698	3,170	252	317	387	214	628	287	466	494	171	60	18,619
충북	2,854	967	4,746	1,127	17,202	1,347	438	579	665	462	1,414	607	793	1,121	331	118	34,770
충남	5,983	2,730	11,014	2,049	2,628	49,431	1,086	1,604	2,442	930	3,068	1,379	3,287	2,175	866	270	90,940
광주	651	277	1,109	147	224	531	11,724	1,305	1,467	152	441	334	472	724	79	172	19,810
전북	1,706	534	2,325	251	548	983	1,357	15,061	1,968	312	824	542	556	903	147	368	28,386
전남	4,188	3,885	8,744	683	1,454	3,073	2,137	3,312	67,609	738	3,836	2,187	2,858	3,216	494	482	108,898
대구	1,283	473	1,897	181	339	801	278	315	357	14,862	4,092	1,176	1,972	2,076	168	54	30,325
경북	4,675	2,244	8,163	686	1,513	3,382	710	780	1,478	3,673	71,416	3,962	5,599	7,964	818	137	117,199
부산	1,674	865	2,986	242	485	965	478	544	855	943	2,494	29,008	5,756	5,499	320	109	53,224
울산	4,022	2,763	8,097	637	1,294	3,151	809	1,349	2,385	1,826	5,573	3,715	71,368	5,359	839	271	113,459
경남	2,211	1,707	5,675	424	888	1,811	950	1,052	1,548	1,792	4,933	4,471	4,508	52,859	634	207	85,669
강원	1,572	547	2,260	146	288	457	87	132	304	153	528	243	206	443	10,829	27	18,222
제주	316	85	352	39	80	119	274	364	456	42	90	116	59	148	27	2,932	5,499
(합계)(A)	177,420	72,045	246,048	19,137	35,744	85,302	25,391	32,289	89,340	31,482	115,613	56,819	106,671	95,963	21,123	6,440	1,216,826
역외조달 규모(B)	65,249	32,732	101,995	11,214	18,542	35,870	13,667	17,228	21,731	16,620	44,198	27,810	35,303	43,104	10,294	6,412	501,970
(B/A×100)	36.8%	45.4%	41.5%	58.6%	51.9%	42.1%	53.8%	53.4%	24.3%	52.8%	38.2%	48.9%	33.1%	44.9%	48.7%	99.6%	41.3%

나. 최종재 이출입으로 인한 소득 유출

<표 IV-10>은 민간 및 정부소비 등과 관련된 최종재의 이출입으로 인한 지역간 소득유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중간원자재 조달과정이 주로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과정을 통해 규명되는 생산비용 측면의 개념임은 앞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반면에 민간 및 정부소비와 같은 최종재의 이출입을 인한 소득의 유출은 개별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나 공공의 후생 극대화 과정을 통해 규명되는 소비 규모를 결정케 하는 개념이다. 특히 소비규모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복지경제학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필수조건인 잉여(surplus)나 손실(loss) 등의 개념이 도출됨은 김홍배(2003) 등과 같은 관련 교과서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중간 원자재와 그리고 뒤에서 설명될 생산요소의 이출입과 관련된 소득의 유출이 경제의 생산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면, 최종재 이출과 관련된 소득의 유출은 경제의 소비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뒤에서 지역주민들의 만족 또는 효용(utility) 수준과 연결한 설명이 제시될 예정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관련 최종재 소비 규모는 1,030,972십억원이다. (단, 여기서는 고정자본형성과 재고, 수출 등의 부문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민간 및 정부소비를 위한 타 지역 조달 규모는 33.7% 정도로, 전체의 66.3% 정도만 지역 내에서 자체 조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민간 및 정부소비 관련 최종재의 지역 외 조달비율은 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

충청남도의 역외조달 비율은 35.1%로 중간원자재 조달의 경우와 유사하게 다른 지역들이나 전국의 평균치에 비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러한 최종재 수요 역시 산업 품목별로 구분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지역별 품목별로 제시되는 최종재 소비구조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효용수준을 계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 결과는 뒤에서 설명될 예정이다.

뒤에서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등 생산요소와 관련된 소득의 역외유출 분석결과가 제시된다. 이 유출은 자본투자 등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과 관계된 것임은 앞서 설명하였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IV-10〉 소득의 역외유출: 최종재(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중심) 거래(2005년 기준)

(단위: 십억원)

from to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서울	89,322	6,275	25,846	1,135	1,161	1,531	961	1,293	1,349	1,754	1,878	2,369	708	2,058	1,178	382	49,879
인천	4,037	17,585	2,675	246	252	332	186	250	261	343	368	389	116	338	267	74	23,682
경기	14,749	3,126	86,372	938	960	1,265	742	998	1,041	1,406	1,505	1,816	543	1,577	1,107	295	103,690
대전	1,100	281	1,157	11,009	362	1,781	126	169	176	229	245	256	76	222	139	50	16,279
충북	1,606	411	1,690	476	11,813	391	163	219	228	292	313	352	105	306	176	65	16,998
충남	3,014	771	3,171	1,280	614	14,585	295	397	414	487	522	603	180	523	374	117	24,335
광주	867	222	912	157	161	212	9,956	804	1,305	226	242	317	95	275	101	244	15,229
전북	1,161	297	1,221	184	188	248	653	14,178	815	238	276	413	124	359	110	232	19,557
전남	1,973	505	2,076	279	285	376	566	766	14,777	338	362	559	167	485	189	172	21,902
대구	564	144	594	93	95	125	70	94	98	18,032	1,815	572	171	497	78	28	22,506
경북	2,503	640	2,633	342	350	462	251	338	353	1,685	20,955	1,334	399	1,158	371	100	31,371
부산	1,184	303	1,246	169	173	228	184	248	258	610	653	27,078	1,260	2,206	127	73	34,817
울산	2,045	523	2,151	283	290	382	271	365	380	709	759	899	7,125	721	283	108	15,251
경남	1,427	365	1,501	207	212	279	254	341	349	928	993	1,919	617	27,783	172	101	36,020
강원	1,729	442	1,820	156	159	210	65	87	91	195	209	179	53	155	16,030	26	19,877
제주	423	108	445	58	59	78	356	432	358	64	68	118	35	103	26	4,245	6,553
(합계)(A)	127,704	31,998	135,509	17,011	17,135	22,486	15,099	20,978	22,256	27,557	31,163	39,172	11,775	38,767	20,727	579,338	1,030,972
역외조달 규모(B)	38,382	14,413	49,138	6,002	5,322	7,901	5,143	6,800	7,479	9,524	10,208	12,094	4,650	10,984	4,697	192,737	347,092
(B/A×100)	30.1%	45.0%	36.3%	35.3%	31.1%	35.1%	34.1%	32.4%	33.6%	34.6%	32.8%	30.9%	39.5%	28.3%	22.7%	33.3%	33.7%

다. 생산요소 중 노동이동으로 인한 소득(비용자보수)의 역외유출

부가가치 중 비용자 보수의 역외유출규모는 <표 IV-11>에 정리된 바와 같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005년 한 해에 지출된 비용자보수는 총 397,118십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게 지출된 부분은 전체의 75.6%이며, 나머지 24.4%인 97,033십억원이 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개별 지역별로 비용자 보수의 역외유출 비율은 표에 제시되어 있다.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경우, 비용자보수로 지출된 금액이 총 18,883십억원인데, 이 중 47.1%에 해당하는 8,886십억원이 지역 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임금소득 역외 유출율은 전국 평균 24.4%의 두 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임금소득의 과도한 역외유출은 주변지역들인 수도권과 충북 및 대전 등으로부터의 출퇴근 노동자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경제계정인 IO 표 상에 비용자보수는 행 벡터(row column)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비용자 보수의 이출입, 즉 노동의 O/D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확인했듯이, 노동의 O/D를 고려하여 비용자보수를 행렬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만일 노동의 출발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목적지만 중심으로 임금소득(비용자보수)가 추계된다면, 앞서 일본의 영업잉여와 같이 대각행렬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표적인 경제계정인 IO표가 초보적인 단계의 사회계정 SAM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문제가 복합화된 문제를 다루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계층간의 격차와 같이 경제만이 아닌 사회·경제로 복합화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자 보수나 영업잉여의 주체들의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여 계정 내에 추가시키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라. 자본소득(영업잉여)의 역외유출

영업잉여와 같은 자본소득의 유출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스톡과 플로우, 특히 신규 자본투자자와 같은 유량과 관련된 정보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함을 앞서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상당 제한적이므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한다.

〈표 IV-11〉 부가가치의 역외유출: 피용자보수(2005년 기준)

(단위: 십억원)


from to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서울	84,174	3,201	21,643	171	336	1,332	44	245	205	70	236	92	45	265	1,162	269	113,489
인천	1,592	15,195	2,386	11	33	378	6	79	19	2	40	7	5	14	192	5	19,963
경기	11,326	1,331	55,736	96	316	2,252	23	122	96	14	247	17	10	153	1,390	-	73,128
대전	100	11	138	9,742	363	2,609	9	213	29	16	132	11	3	37	33	-	13,448
충북	125	21	250	144	9,538	929	5	82	36	16	319	6	0	13	439	26	11,951
충남	186	86	749	410	327	9,997	12	378	50	13	196	5	59	50	128	-	12,645
광주	30	6	66	11	11	90	8,201	501	5,180	2	46	7	-	54	25	7	14,237
전북	73	28	73	63	104	644	147	8,856	717	13	139	6	8	112	15	1	11,001
전남	32	17	21	8	12	67	897	381	8,800	2	235	25	12	294	35	28	10,870
대구	75	2	61	22	81	116	11	41	25	13,271	7,211	41	127	486	34	28	21,633
경북	51	5	33	16	99	150	6	93	85	790	13,388	48	356	617	224	0	15,961
부산	137	6	71	18	11	100	2	34	114	71	479	22,547	643	7,065	14	71	31,382
울산	15	0	28	1	14	96	23	16	99	35	714	236	12,843	1,142	11	2	15,275
경남	44	4	38	11	18	46	18	103	188	76	598	1,081	564	17,567	59	3	20,418
강원	182	29	444	10	163	77	1	31	28	6	286	6	2	27	7,387	3	8,684
제주	72	2	-	-	25	-	11	8	25	10	1	24	2	5	7	2,842	3,034
(합계)(A)	98,215	19,944	81,737	10,735	11,452	18,883	9,415	11,183	15,698	14,408	24,266	24,161	14,679	27,902	11,154	3,285	397,118
역외유출 규모(B)	14,041	4,750	26,001	993	1,914	8,886	1,214	2,327	6,898	1,137	10,878	1,614	1,836	10,335	3,767	444	97,033
(B/A×100)	14.3%	23.8%	31.8%	9.2%	16.7%	47.1%	12.9%	20.8%	43.9%	7.9%	44.8%	6.7%	12.5%	37.0%	33.8%	13.5%	24.4%

〈지역간 자본투자 규모 결정〉

- #1: 일본 IRIO의 경우와 같이, 자본의 완전이동 전제(당기 자본투자 없음)
- #2: 지역별 자본스톡의 규모에 비례해서 자본투자 이루어짐 전제
 - 지역 자본스톡 추계: <표 II-1>의 수식 $Y^{A(B)} = w \cdot L^{A(B)} + r \cdot K^{A(B)}$ 적용
- #3: 자본투자 및 유형고정자산 거래 관련 업종의 중간투입 규모에 비례해서 자본투자 이루어짐 전제

지역의 가계부문이 노동과 자본 양 자의 공급 주체인 것이 일반적인 오늘 날, 자본투자로 인한 지역간 자본소득의 유출입은 매우 당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우 #1을 제외한 #2와 #3의 경우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따른 자본소득(영업잉여)의 지역간 유출입 규모는 <표 IV-12> ~ <표 IV-14>에 정리되어 있다.

시나리오 #2와 #3의 경우 충남의 영업잉여 역외유출 비율은 각각 95.0%와 55.5%로 계산되었다. 시나리오 #2의 경우, 결국 지역의 자본축적 정도에 따라 자본소득의 역외유출 규모는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본투자와 같은 자본의 유량이 그의 스톡과 비례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정이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확인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작업은 앞서 제 3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계정행렬 SAM이 IO표를 구체적으로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작업은 <표 III-6>의  부분들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의 설명이 주로 간접방법에 의한 추계과정을 기반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실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간 제품과 요소의 이출입으로 인한 소득의 유출입 부분이 규명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표 IV-12〉 부가가치의 역외유출: 영업잉여(시나리오 #1*)

(단위: 십억원)

from to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서울	65,045	-	-	-	-	-	-	-	-	-	-	-	-	-	-	-	65,045
인천	-	11,664	-	-	-	-	-	-	-	-	-	-	-	-	-	-	11,664
경기	-	-	48,637	-	-	-	-	-	-	-	-	-	-	-	-	-	48,637
대전	-	-	-	5,304	-	-	-	-	-	-	-	-	-	-	-	-	5,304
충북	-	-	-	-	6,934	-	-	-	-	-	-	-	-	-	-	-	6,934
충남	-	-	-	-	-	12,526	-	-	-	-	-	-	-	-	-	-	12,526
광주	-	-	-	-	-	-	5,006	-	-	-	-	-	-	-	-	-	5,006
전북	-	-	-	-	-	-	-	7,603	-	-	-	-	-	-	-	-	7,603
전남	-	-	-	-	-	-	-	-	14,517	-	-	-	-	-	-	-	14,517
대구	-	-	-	-	-	-	-	-	-	8,136	-	-	-	-	-	-	8,136
경북	-	-	-	-	-	-	-	-	-	-	20,272	-	-	-	-	-	20,272
부산	-	-	-	-	-	-	-	-	-	-	-	13,895	-	-	-	-	13,895
울산	-	-	-	-	-	-	-	-	-	-	-	-	8,739	-	-	-	8,739
경남	-	-	-	-	-	-	-	-	-	-	-	-	-	15,206	-	-	15,206
강원	-	-	-	-	-	-	-	-	-	-	-	-	-	-	6,358	-	6,358
제주	-	-	-	-	-	-	-	-	-	-	-	-	-	-	-	2,637	2,637
(합계)(A)	65,045	11,664	48,637	5,304	6,934	12,526	5,006	7,603	14,517	8,136	20,272	13,895	8,739	15,206	6,358	2,637	252,480
역외유출 규모(B)	-	-	-	-	-	-	-	-	-	-	-	-	-	-	-	-	-
(B/A×100)	-	-	-	-	-	-	-	-	-	-	-	-	-	-	-	-	-

* 일본 IRIO와 같이 지역간 자본이동(자본투자) 고려

〈표 IV-13〉 부가가치의 역외유출: 영업잉여(시나리오 #2)

(단위: 십억원)

from to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서울	16,757	3,005	12,530	1,366	1,786	3,227	1,290	1,959	3,740	2,096	5,223	3,580	2,251	3,917	1,638	679	65,045
인천	3,005	539	2,247	245	320	579	231	351	671	376	937	642	404	702	294	122	11,664
경기	12,530	2,247	9,369	1,022	1,336	2,413	964	1,465	2,797	1,567	3,905	2,677	1,684	2,929	1,225	508	48,637
대전	1,366	245	1,022	111	146	263	105	160	305	171	426	292	184	319	134	55	5,304
충북	1,786	320	1,336	146	190	344	137	209	399	223	557	382	240	418	175	72	6,934
충남	3,227	579	2,413	263	344	621	248	377	720	404	1,006	689	434	754	315	131	12,526
광주	1,290	231	964	105	137	248	99	151	288	161	402	276	173	302	126	52	5,006
전북	1,959	351	1,465	160	209	377	151	229	437	245	610	418	263	458	191	79	7,603
전남	3,740	671	2,797	305	399	720	288	437	835	468	1,166	799	503	874	366	152	14,517
대구	2,096	376	1,567	171	223	404	161	245	468	262	653	448	282	490	205	85	8,136
경북	5,223	937	3,905	426	557	1,006	402	610	1,166	653	1,628	1,116	702	1,221	511	212	20,272
부산	3,580	642	2,677	292	382	689	276	418	799	448	1,116	765	481	837	350	145	13,895
울산	2,251	404	1,684	184	240	434	173	263	503	282	702	481	303	526	220	91	8,739
경남	3,917	702	2,929	319	418	754	302	458	874	490	1,221	837	526	916	383	159	15,206
강원	1,638	294	1,225	134	175	315	126	191	366	205	511	350	220	383	160	66	6,358
제주	679	122	508	55	72	131	52	79	152	85	212	145	91	159	66	28	2,637
(합계)(A)	65,045	11,664	48,637	5,304	6,934	12,526	5,006	7,603	14,517	8,136	20,272	13,895	8,739	15,206	6,358	2,637	252,480
역외유출 규모(B)	48,288	11,125	39,268	5,192	6,744	11,905	4,907	7,374	13,683	7,874	18,645	13,130	8,437	14,290	6,198	2,609	219,668
(B/A×100)	74.2%	95.4%	80.7%	97.9%	97.3%	95.0%	98.0%	97.0%	94.3%	96.8%	92.0%	94.5%	96.5%	94.0%	97.5%	99.0%	87.0%

* 지역 자본스톡 규모 계산, 스톡의 규모에 비례해서 자본투자 이루어짐 전제함

〈표 IV-14〉 부가가치의 역외유출: 영업잉여(시나리오 #3)

(단위: 십억원)

from to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국)
서울	58,356	5,022	20,310	1,334	1,814	3,211	1,056	1,627	3,082	1,692	5,343	2,940	1,730	3,222	1,509	532	112,781
인천	847	5,609	542	73	113	194	71	112	231	109	441	185	158	223	90	32	9,031
경기	3,953	504	25,976	344	590	1,083	369	582	1,329	560	3,047	947	1,026	1,281	451	147	42,289
대전	330	67	392	3,255	526	2,116	47	70	122	49	163	33	30	51	64	20	7,335
충북	156	35	161	38	3,589	151	16	26	40	23	47	12	10	15	15	6	4,337
충남	235	51	264	164	193	5,570	30	46	78	33	75	19	19	26	25	10	6,838
광주	107	29	102	8	11	16	3,044	617	1,224	7	18	14	9	16	4	45	5,269
전북	95	27	87	8	10	15	182	4,080	454	6	16	12	7	14	4	108	5,123
전남	97	27	87	8	11	16	50	57	7,226	7	19	12	7	15	4	32	7,677
대구	146	28	107	9	9	25	20	35	69	5,434	2,212	62	38	66	10	9	8,278
경북	116	23	87	7	7	20	48	87	164	84	8,637	66	90	97	8	16	9,558
부산	223	60	196	17	19	32	14	22	75	61	111	9,431	1,393	1,664	14	8	13,341
울산	54	14	47	4	4	7	3	5	17	13	24	54	3,854	49	3	2	4,153
경남	150	44	139	10	12	19	9	14	50	38	70	84	359	8,444	8	5	9,455
강원	140	23	110	20	22	37	7	12	21	20	42	18	9	20	4,145	4	4,650
제주	40	11	30	3	4	6	39	213	335	3	7	5	2	5	2	1,661	2,365
(합계)(A)	65,045	11,664	48,637	5,304	6,934	12,526	5,006	7,603	14,517	8,136	20,272	13,895	8,739	15,206	6,358	2,637	252,480
역외유출 규모(B)	6,689	6,055	22,661	2,048	3,345	6,957	1,962	3,524	7,291	2,702	11,635	4,464	4,886	6,762	2,213	976	94,168
(B/A×100)	10.3%	51.9%	46.6%	38.6%	48.2%	55.5%	39.2%	46.3%	50.2%	33.2%	57.4%	32.1%	55.9%	44.5%	34.8%	37.0%	37.3%

* 유형고정자산 및 자본투자 관련 업종(23. 금융 및 보험과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지역별 중간재 투입규모에 비례하여 자본유입 규모 추산

2)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지역별 산업별 중간재 및 최종재 이입

앞서 <표 IV-9> 와 <표 IV-10>을 통해 중간재와 민간 및 정부 부문의 최종소비 관련된 제품(재화와 용역)의 구매(이입) 과정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역외유출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역간 이입구조 위주로 제시됨으로써,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중간재와 최종재 이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충청남도의 소득 역외유출에 대해 살펴본다.

가. 산업별 중간재 조달과정에서의 소득 역외유출

<표 IV-15>에서는 충청남도의 각 산업별 중간재 이입을 통한 소득유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과 대전·충북 지역 등으로부터의 중간재 이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를 통해 확인되듯이, 충청남도 지역경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후방효과를 강하게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의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원자재를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조달하는 과정에서 소득유출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충남 지역경제의 주력품목인 ‘전기·전자’와 ‘수송장비 제조업’은 물론 ‘일반기계’ 등의 제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조업 부문에서의 소득유출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 전반에서 소득의 역외유출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 및 보험’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과 대전·충북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큼으로써 나타나는 소득의 유출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지역 내 ‘금속제품’, ‘수송장비’나 ‘일반기계’, 그리고 ‘기타 제조업’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들은 충청남도 내부보다는 지역 외부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를 크게 발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제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기업지원서비스 부문의 유기적 관계를 감안할 때, 도내 대기업 중심의 핵심 제조업 부문에서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로 이 문제는 분공장 가설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후 본사와 같이 공장의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점과 본사의 문제로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제조업과 기업지원 서비스 부문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표 IV-15〉 충남 지역경제의 산업별 중간재 역외이입 구조

구분	전체 역외유출규모(십억원)			역외유출 비율			
	(합계)	수도권	대전충북	(합계)	수도권	대전충북	기타
1. 농림수산물	1,161	613	142	52.8%	27.9%	6.4%	18.5%
2. 광산물	80	25	23	51.8%	16.1%	14.8%	20.8%
3. 음식료품	2,221	1,027	269	37.0%	17.1%	4.5%	15.4%
4. 섬유및가죽제품	545	208	67	55.0%	21.0%	6.8%	27.3%
5. 목재및종이제품	442	180	79	41.8%	17.0%	7.4%	17.3%
6. 인쇄및복제	35	17	6	68.6%	34.2%	11.1%	23.3%
7. 석유및석탄제품	474	136	51	6.8%	2.0%	0.7%	4.1%
8. 화학제품	3,740	1,114	380	28.9%	8.6%	2.9%	17.3%
9. 비금속광물제품	959	289	208	48.8%	14.7%	10.6%	23.5%
10. 제1차금속제품	2,294	551	135	47.7%	11.5%	2.8%	33.4%
11. 금속제품	1,121	443	58	71.7%	28.3%	3.7%	39.7%
12. 일반기계	1,853	991	232	62.5%	33.4%	7.8%	21.3%
13. 전기및전자기기	4,984	2,773	721	37.9%	21.1%	5.5%	11.3%
14. 정밀기기	251	138	34	59.2%	32.6%	8.0%	18.6%
15. 수송장비	5,535	2,215	430	56.4%	22.6%	4.4%	29.5%
16. 기타제조업제품	483	248	47	64.6%	33.3%	6.3%	25.1%
17. 전력가스및수도	1,725	1,424	105	46.8%	38.6%	2.9%	5.3%
18. 건설	2,977	1,371	353	57.6%	26.5%	6.8%	24.2%
19. 도소매	426	237	97	46.5%	25.9%	10.7%	9.9%
20. 음식점및숙박	662	220	140	53.0%	17.6%	11.2%	24.1%
21. 운수및보관	444	125	43	46.0%	12.9%	4.5%	28.6%
22. 통신및방송	260	163	59	51.6%	32.4%	11.6%	7.6%
23. 금융및보험	335	168	146	44.3%	22.2%	19.2%	2.8%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32	377	148	50.8%	30.2%	11.9%	8.7%
25. 공공행정및국방	421	134	76	33.5%	10.7%	6.1%	16.7%
26. 교육및보건	630	375	108	48.3%	28.8%	8.3%	11.2%
27. 사회및가타서비스	349	181	61	51.2%	26.4%	8.9%	15.8%
28. 기타	832	336	299	46.5%	18.8%	16.7%	11.0%
(전산업)	35,870	16,081	4,517	42.1%	18.9%	5.3%	17.9%

〈표 IV-16〉 충남 지역경제 산업별 최종재 소비지출(민간 및 정부) 구조

구분	역외 이입 규모	역외이입 비율			
	(십억원)	전체	수도권	대전충북	기타
1농림수산물	253.7	51.6%	2.6%	3.2%	45.8%
2광산물	-	-	-	-	-
3음식료품	975.2	57.7%	13.6%	14.3%	29.8%
4섬유및가죽제품	441.4	62.3%	50.9%	2.2%	9.1%
5목재및종이제품	16.7	81.5%	43.1%	13.2%	25.2%
6인쇄및복제	1.9	54.0%	49.5%	3.3%	1.2%
7석유및석탄제품	359.2	56.8%	2.8%	0.3%	53.7%
8화학제품	167.9	58.5%	34.9%	12.8%	10.8%
9비금속광물제품	7.8	56.2%	23.7%	3.3%	29.3%
10제차금속제품	0.9	na	na	na	na
11금속제품	18.8	48.5%	25.4%	3.3%	19.8%
12일반기계	37.3	66.2%	32.0%	10.3%	24.0%
13전기및전자기기	430.8	77.8%	27.3%	3.4%	47.0%
14정밀기기	35.8	49.6%	29.1%	4.5%	16.0%
15수송장비	314.4	72.7%	30.5%	0.3%	41.9%
16기타제조업제품	58.8	41.5%	30.7%	1.9%	8.9%
17전력가스및수도	217.2	55.8%	32.6%	2.9%	20.3%
18건설	-	-	-	-	-
19도소매	983.0	86.7%	45.4%	11.7%	29.6%
20음식점및숙박	702.9	48.2%	19.3%	14.7%	14.2%
21운수및보관	244.0	46.5%	14.6%	21.5%	10.3%
22통신및방송	35.1	46.7%	24.0%	22.1%	0.6%
23금융및보험	309.7	30.5%	5.5%	24.3%	0.7%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697.2	31.8%	15.2%	12.8%	3.8%
25공공행정및국방	-	0.0%	0.0%	0.0%	0.0%
26교육및보건	804.8	17.8%	4.2%	10.7%	2.9%
27사회및가사서비스	467.6	29.8%	16.4%	11.0%	2.5%
28기타	-	-	-	-	-
(전산업)	7,901.1	35.1%	13.9%	9.7%	11.6%

- n. a.: not available.

나. 산업별 최종재 조달과정에서의 소득 역외유출

민간 및 정부의 소비지출 등 최종재 수요와 관련된 소득의 역외유출은 산업품목 및 지역별로 <표 IV-16>에 정리되어 있다. 충청남도의 민간 및 정부의 소비와 관련된 제품의 역외이입 비율은 전체의 35.1%로, 앞의 <표 IV-10>에 대한 설명에서와 같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들과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부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된 재화와 용역들이 고르게 충남 지역경제로 이입되어 관련된 소득유출이 발생시키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종재 소비와 관련된 소득의 역외유출은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언급했던 바와 같이, 최종재의 소비는 제 2 장의 <표 II-1>에서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만족이나 효용 수준과 직결된 것이다. 최종재 소비를 바탕으로 측정되는 지역주민들의 효용수준은 뒤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만족이나 효용의 수준이 언급됨으로써 양적 지표 위주의 설명에서 질적 지표로 논의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이나 효용수준도 계량화가 가능한 것들로서, 아직은 지역경제의 질적 측면까지 다루기에는 요원한 것이다.

3) 충남 시군단위 지역경제의 소득 역외유출

제 2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듯이,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는 지역경제 단위가 소규모일 수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소득의 유출이 바로 지역경제의 성망과 지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득의 유출은 <표 II-4>에서와 같이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소득의 유출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뿐만 아니라 중간원자재로부터 발생됨을 경제학의 생산자 이론을 통해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충청남도 내 시군단위 지역경제들의 소득유출 문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참고로 시군단위 지역경제의 순환실태 분석과 진단을 위해 작성된 시군단위 MRIO표는 제 3 장의 <표 III-7>에 제시된 바와 같다. MRIO표를 통해 최종재와 중간재의 이출입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단, 표에서는 부가가치 및 최종수요 구성항목들이 세분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로 자료구득의 한계에 기인함을 설명하였다.

가. 지역경제 개요 및 지역경제의 유형 구분

2005년 기준, 충청남도 내 16개 시군단위 지역경제 개요는 뒤의 <표 IV-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서 산업구조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산업총생산액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역경제 현황과 함께, 작성된 MRIO 표를 통해 도출된 중간원자재의 이입구조를 바탕으로 구분된 시군단위 지역경제의 유형구분 결과는 <표 IV-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기서 최종재의 구매와 관련된 소득의 역외유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역경제 유형구분의 기준은 먼저 도내 경제비중이 높은 시군과 낮은 시군의 구분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간재 조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이다. 이 의존도는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와 비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형 #1은 도내 경제 비중이 큰 시군들로서, 수도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천안과 아산, 서산, 그리고 당진 등 충청남도 내 북부권에 소재한 도시경제들이다. 그리고 유형 #2는 충청남도 내에서 경제비중은 낮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역외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들이다. 공주와 논산, 금산, 서천, 그리고 청양 등의 시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유형 #3은 경제규모도 작으며, 수도권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군들로는 보령과 계룡, 부여, 홍성, 예산, 그리고 태안 등이다.

결국 유형 #1의 지역경제들은 수도권 지역과의 지역간 ·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활발한 산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성장하는 지역들이며, 유형 #3의 지역경제들은 반대로 쇠퇴하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형 #2의 시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결국 유형 #3의 지역경제 범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이들 유형 #2와 #3의 지역들이 <표 II-4>에 제시된 경제 악순환의 기로에 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유형 #1의 지역경제들은 선순환 기조를 경험해 왔고 지속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7〉 충청남도 시군단위 지역경제 개요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1차산업	12%	9.7%	11.9%	1.1%	2.5%	11.9%	1.4%	6.2%	5.5%	6.2%	18.8%	11.2%	18.4%	21.9%	14.9%	11.7%	4.7%
3.음식료	5.7%	11.4%	4.0%	4.5%	10.2%	14.0%	1.6%	13.2%	8.7%	24.5%	12.0%	26.3%	12.5%	2.9%	20.1%	0.3%	8.5%
4.섬유및가죽	2.8%	6.2%	1.7%	1.6%	1.9%	4.7%	0.3%	3.1%	2.4%	3.6%	1.7%	0.4%	0.7%	0.5%	2.1%	0.1%	2.3%
5.목재및종이	1.6%	1.5%	0.2%	1.5%	0.3%	1.3%	0.0%	2.3%	2.7%	8.8%	5.4%	1.0%	0.7%	0.6%	0.2%	0.0%	1.6%
6.인쇄및복제	0.6%	0.6%	0.2%	0.5%	1.0%	0.5%	0.2%	0.2%	1.2%	0.5%	0.3%	0.6%	0.7%	0.1%	1.0%	0.0%	0.6%
7.석유및탄	0.0%	0.0%	0.0%	0.1%	7.2%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1.2%
8.화학제품	7.8%	4.7%	0.6%	8.7%	17.0%	7.2%	0.3%	18.9%	8.7%	7.4%	4.5%	16.7%	4.1%	4.2%	2.1%	0.4%	9.8%
9.비금속광물	1.6%	3.2%	2.0%	5.5%	4.5%	2.7%	0.4%	1.5%	6.5%	5.4%	2.3%	5.4%	7.5%	1.2%	2.7%	0.2%	3.5%
10.제1차금속	1.1%	0.6%	0.3%	1.3%	0.0%	0.7%	0.0%	0.7%	1.0%	1.2%	1.7%	0.0%	0.0%	1.3%	0.0%	0.7%	0.8%
11.금속	3.8%	2.0%	1.2%	4.7%	4.2%	3.4%	0.4%	2.2%	2.0%	7.4%	1.6%	2.2%	1.8%	0.9%	2.7%	0.3%	3.6%
12.일반기계	8.9%	2.2%	0.3%	7.0%	0.5%	0.9%	0.0%	4.6%	1.5%	0.7%	1.6%	1.2%	0.6%	0.7%	0.5%	0.2%	4.6%
13.전기및전자	26.3%	0.4%	0.1%	27.4%	0.3%	3.6%	0.2%	2.6%	17.5%	0.2%	0.1%	0.1%	3.4%	3.2%	0.7%	0.1%	14.1%
14.정밀기기	1.3%	3.9%	0.3%	0.3%	0.3%	0.4%	0.0%	2.5%	0.4%	0.5%	0.2%	0.1%	0.1%	0.0%	2.1%	0.0%	0.9%
15.수송장비	5.1%	1.6%	2.9%	17.4%	33.8%	1.8%	0.0%	3.0%	3.4%	0.1%	2.1%	0.0%	9.8%	2.1%	1.1%	0.4%	11.8%
16.기타제조업	1.4%	0.8%	0.6%	3.2%	2.2%	1.8%	2.6%	2.6%	1.4%	0.8%	0.5%	0.3%	1.4%	0.4%	1.9%	0.1%	2.0%
17.전력가스및수도	1.0%	1.1%	32.6%	0.6%	0.6%	1.2%	1.9%	9.8%	1.3%	1.6%	1.1%	4.5%	0.9%	1.1%	1.1%	37.3%	3.5%
18.건설	7.0%	7.8%	10.1%	7.9%	4.4%	5.3%	30.7%	14.2%	5.0%	5.4%	7.1%	4.8%	6.7%	7.9%	13.9%	20.2%	7.9%
19.도소매	2.7%	3.7%	3.6%	0.6%	1.0%	4.8%	4.3%	1.5%	3.5%	2.8%	3.8%	2.6%	2.7%	5.5%	3.9%	2.9%	2.1%
20.음식및숙박	1.9%	3.5%	3.5%	0.6%	0.8%	2.9%	5.3%	1.3%	2.2%	2.0%	2.8%	1.9%	2.3%	3.2%	3.1%	3.9%	1.6%
21.운수및보관	2.3%	2.4%	4.0%	0.6%	1.6%	3.4%	5.9%	1.4%	1.6%	1.7%	3.5%	2.5%	1.2%	2.4%	3.3%	2.9%	1.8%
22.통신및방송	1.4%	2.2%	1.3%	0.4%	0.6%	1.5%	4.5%	0.8%	2.8%	1.6%	0.4%	0.9%	1.7%	4.9%	1.2%	1.3%	1.1%
23.금융및보험	1.7%	3.1%	2.7%	0.5%	0.8%	3.5%	2.4%	1.1%	2.4%	2.4%	3.8%	2.2%	3.4%	4.8%	3.4%	2.3%	1.5%
24.부동산및사업	4.1%	5.0%	2.9%	0.9%	1.2%	3.8%	6.2%	1.5%	3.1%	2.6%	4.2%	2.5%	3.0%	11.8%	4.0%	3.3%	2.6%
25.공공행정및국방	2.2%	8.0%	6.7%	1.1%	1.4%	8.3%	19.8%	2.3%	7.6%	6.1%	11.0%	7.3%	11.3%	8.4%	7.9%	6.2%	3.3%
26.교육및보건	4.4%	11.0%	4.0%	1.2%	1.1%	6.9%	7.6%	1.5%	4.9%	4.1%	7.1%	3.1%	2.9%	7.0%	3.3%	3.3%	3.1%
27.사회및기타서비스	1.8%	3.1%	2.1%	0.5%	0.7%	3.2%	3.6%	0.9%	2.4%	2.3%	2.4%	2.0%	2.0%	3.0%	2.7%	2.0%	1.4%
28.기타	0.1%	0.3%	0.1%	0.0%	0.0%	0.2%	0.3%	0.0%	0.1%	0.1%	0.1%	0.1%	0.1%	0.1%	0.1%	0.1%	0.1%
반동계수	1.408	0.913	1.778	1.686	1.953	0.972	1.874	1.319	1.020	1.357	1.188	1.621	1.264	1.283	1.361	2.208	1.005
총생산액(십억원)	30,459	4,177	4,434	33,735	20,903	4,244	588	10,649	2,500	3,750	2,244	3,066	1,381	2,784	2,941	2,888	13,875
시군/충청남도	23.3%	3.2%	3.4%	25.8%	16.0%	3.2%	0.4%	8.1%	2.0%	2.9%	1.7%	2.3%	1.1%	2.1%	2.2%	2.2%	100.0%

〈표 IV-18〉 충청남도 내 시군단위 지역경제 유형구분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내용	도내 경제비중	高	低	低
	수도권 및 역외 의존도	高	高	低
도내 해당시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공주, 논산, 금산, 서천, 청양	보령, 계룡, 부여 홍성, 예산, 태안
	도내 지역경제 비중(생산액 기준)	중간원자재의 역외의존도		
		수도권	충청남도 (자기 지역제외)	대전·충북
천안	23.3%*	22.2%	14.8%	37.3%
공주	3.2%	19.7%	12.5%	30.2%
보령	3.4%	18.7%	10.0%	24.9%
아산	25.8%*	32.1%	10.1%	38.9%
서산	16.0%	21.1%	5.4%	40.1%
논산	3.2%	21.9%	10.1%	29.6%
계룡	0.4%	16.8%	12.8%	21.3%
당진	8.1%	23.4%	14.6%	20.5%
금산	2.0%	23.6%	12.1%	31.5%
연기	2.9%	21.8%	9.3%	17.1%
부여	1.7%	19.1%	10.1%	18.3%
서천	2.3%	18.3%	12.4%	25.5%
청양	1.1%	20.4%	7.8%	23.4%
홍성	2.1%	11.9%	9.3%	24.6%
예산	2.2%	15.6%	14.1%	15.5%
태안	2.2%	17.5%	11.0%	10.3%

*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2005년 천안이 1위 아산이 2위 순임.

충청남도 내에서 이러한 양 극단의 순환이 지속된다면, 결국 충청남도의 일부 지역에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지속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퇴락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지역경제 단위가 지역사회 단위로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분명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 쇠퇴해 가는 소규모 지역경제 단위에서 경제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특히 지역경제의 기초단위인 지역 사회 단위의 경제(local community base economy)에서의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표 IV-19〉 시군별 중간재 이입규모(2005년 기준)

구분		유형 #1: 아산시		유형 #2: 공주시		유형 #3: 부여군	
		(십억원)	(비율)	(십억원)	(비율)	(십억원)	(비율)
수도권		76.1	32.1%	4.6	19.7%	2.3	19.1%
대전·충북		92.2	38.9%	7.0	30.2%	2.2	18.3%
충청남도	천안	0.7	0.3%	0.1	0.5%	0.0	0.1%
	공주	5.3	2.2%	6.0	25.7%	0.0	0.4%
	보령	1.7	0.7%	0.2	0.8%	0.0	0.3%
	아산	14.6	6.2%	0.7	2.9%	0.0	0.4%
	서산	0.5	0.2%	0.0	0.2%	0.0	0.0%
	논산	7.9	3.4%	0.8	3.5%	0.2	1.8%
	계룡	0.5	0.2%	0.1	0.5%	0.1	1.2%
	당진	0.3	0.1%	0.1	0.3%	0.1	0.7%
	금산	3.9	1.7%	0.4	1.5%	0.1	1.0%
	연기	0.6	0.3%	0.1	0.5%	0.0	0.4%
	부여	0.5	0.2%	0.1	0.5%	3.2	26.1%
	서천	0.1	0.0%	0.0	0.0%	0.0	0.2%
	청양	0.3	0.1%	0.1	0.3%	0.1	0.9%
	홍성	1.1	0.4%	0.2	0.7%	0.1	0.7%
	예산	0.2	0.1%	0.1	0.2%	0.1	1.1%
	태안	0.3	0.1%	0.1	0.3%	0.1	1.1%
기타 지역		30.0	12.7%	2.7	11.8%	3.2	26.3%
중간재 계		236.9	100.0%	23.2	100.0%	12.2	100.0%
역외이입 규모		222.29	93.8%	17.20	74.3%	9.03	73.9%

나. 지역경제 유형별 사례분석

여기서는 앞서 구분된 지역경제 유형별로 대표 지역경제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소득유출 현상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유형 #1은 아산시를 선정하며, 유형 #2는 공주시, 그리고 유형 #3는 부여군 지역경제로 선정한다. 각 시군단위 지역경제의 소득 역외유출 구조는 중간재와 최종재 이입구조 별로 각각 <표 VI-19>와 <표 VI-20>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한다.

<표 IV-20> 시군별 최종재(민간 및 정부 소비) 이입규모(2005년 기준)

구분		유형 #1: 아산시		유형 #2: 공주시		유형 #3: 부여군	
		(십억원)	(비율)	(십억원)	(비율)	(십억원)	(비율)
수도권		12.0	30.8%	1.5	9.0%	0.4	9.6%
대전·충북		8.7	22.5%	3.4	19.8%	0.4	10.3%
충청남도	천안	0.1	0.4%	0.1	0.5%	0.0	0.0%
	공주	0.9	2.3%	9.1	52.8%	0.0	0.2%
	보령	0.4	1.1%	0.1	0.7%	0.0	0.2%
	아산	6.1	15.8%	0.4	2.3%	0.0	0.1%
	서산	0.1	0.1%	0.0	0.2%	0.0	0.0%
	논산	0.7	1.8%	0.5	2.7%	0.0	1.0%
	계룡	0.1	0.3%	0.1	0.4%	0.0	1.1%
	당진	0.1	0.2%	0.0	0.3%	0.0	0.6%
	금산	0.3	0.7%	0.2	0.9%	0.0	0.4%
	연기	0.1	0.3%	0.1	0.5%	0.0	0.4%
	부여	0.1	0.3%	0.1	0.4%	2.2	52.1%
	서천	0.0	0.1%	0.0	0.1%	0.0	0.2%
	청양	0.1	0.2%	0.0	0.2%	0.0	0.7%
	홍성	0.2	0.4%	0.1	0.6%	0.0	0.5%
	예산	0.1	0.2%	0.0	0.2%	0.0	1.0%
	태안	0.1	0.3%	0.0	0.2%	0.0	0.9%
기타 지역		8.6	22.2%	1.4	8.4%	0.9	20.7%
중간재 계		38.8	100.0%	17.2	100.0%	4.2	100.0%
역외이입 규모		32.70	84.2%	8.12	47.2%	2.02	47.9%

3. 충청남도 지역경제 순환의 문제점과 과제

지금까지 소득의 역외유출을 중심으로 지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순환문제를 살펴 보았다.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충남 지역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과 그 실천을 통해 충청남도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1) 충남 지역경제 순환의 문제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바와 같이, 소득유출은 노동 및 자본소득의 유출, 그리고 중간원자재 조달과정에서의 유출 등으로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노동소득, 즉 피용자 보수의 역외유출문제이다. 본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문제는 직주분리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충남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공급 주체가 충남 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충청남도의 경우 이러한 역외로부터의 통근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자본소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추계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내의 상대적 자본축적 정도가 미약하므로 타지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으로 인한 영업잉여의 유출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노동과 자본소득이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중간원자재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유출은 지역경제의 산업구조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충남 지역경제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므로, 지역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이다. 이 문제는 다음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다.

다음 두 번째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유기적 관계가 단절된 문제이다. 산업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충청남도 지역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구조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조업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중간재 조달은 물론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수도권과 대전 등의 역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순환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상당 부분이 충청남도 내가 아니라 이들 역외 지역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충청남도 지역경제 순환의 문제점〉

- ① 소득의 역외유출
 - 노동소득 유출: 직주분리
 - 자본소득 유출: 지역 내 자본축적 미흡*
 - 중간원자재 조달비용 유출: 수도권 의존형 경제구조(특히 기업지원서비스)
- ②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유기적 관계 단절 ⇨ 역외의존도 높임
 - 제조업 활동 지원기능 미흡
- ③ 생산과 소비의 유기성 단절 ⇨ 지역주민 효용수준 저하
 - 자본투자자와 수도권 지역만 혜택
- ④ 시군단위 소지역경제 이하에서 지역경제 순환의 지역간 양극화
 - 선순환 지역과 악순환 지역 공존 및 격차 심화 지속 ⇨ “지역존망의 문제”
- ⑤ 공급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
 - 경제성장 성과분배가 지역주민 삶의 질에 기여 못함

⇨ “지역경제 순환구조의 왜곡”

* 자본의 축적과 투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수행 필요.

다음 세 번째로 생산활동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의 소비활동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경제순환의 기본개념을 감안한다면, 지역경제 생산증대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그 구조가 다양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작성된 경제 및 사회계정을 통해 살펴 본 바, 이러한 관계는 목격되지 못하였다. 네 번째는 시군 단위 이하의 지역경제에서 지역경제 순환의 양극화 문제가 확인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북부 권역 소재 지역경제(지역경제 유형 #1)들에서 충청남도 경제성장의 성과를 독점하는 문제이다. 경제순환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인 변화를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충청남도 내에서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렇지 못하는 지역의 구분과 그 정도

의 심화는 향후 충청남도의 주요 고민거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비측면과 연결되지 못하는 공급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이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의 순환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계속 언급했듯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역 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생산자나 타지역의 자본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현상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기초로 충남 지역경제 순환의 한 마디로 문제점을 정리하면 “지역경제 순환구조의 왜곡”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V-21〉 분석결과 요약: 충남 지역경제의 현실(2005년 기준)

구분	인구	취업자	GRDP	노동 소득	일인당 GRDP	평균 임금	효용수준	일인당 utility
	(천명)	(천명)	(십억원)	(십억원)	(백만원)	(백만원)	(십억util)	(백만util/명)
서울	9,762.5	3,922.6	199,095.5	98,215.2	20.4	25.0	26,212	2.68
인천	2,517.7	808.2	41,514.4	19,944.5	16.5	24.7	5,078	2.02
경기	10,341.0	3,489.9	170,664.1	81,737.4	16.5	23.4	25,347	2.45
대전	1,438.6	432.2	20,749.5	10,735.3	14.4	24.8	1,941	1.35
충북	1,453.9	593.1	24,626.7	11,451.5	16.9	19.3	2,319	1.59
충남	1,879.4	919.6	45,573.1	18,882.6	24.2	20.5	2,762	1.47
광주	1,413.6	429.2	19,128.0	9,415.4	13.5	21.9	2,094	1.48
전북	1,778.9	689.1	24,359.2	11,182.5	13.7	16.2	2,885	1.62
전남	1,815.2	871.3	44,256.9	15,698.3	24.4	18.0	2,935	1.62
대구	2,456.0	728.0	28,100.5	14,407.9	11.4	19.8	4,202	1.71
경북	2,594.7	1,133.7	58,585.9	24,265.7	22.6	21.4	4,526	1.74
부산	3,512.5	1,127.4	47,785.9	24,160.8	13.6	21.4	6,910	1.97
울산	1,044.9	411.6	40,464.1	14,679.2	38.7	35.7	1,670	1.60
경남	2,594.7	1,262.4	56,072.2	27,902.4	21.6	22.1	5,899	2.27
강원	1,460.8	579.9	23,582.5	11,154.4	16.1	19.2	2,788	1.91
제주	530.7	203.9	7,423.8	3,285.3	14.0	16.1	842	1.59
전국	46,595.2	17,601.8	851,982.2	397,118.4	18.3	22.6	98,409	2.11

지금까지 분석된 지역경제 순환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충남 지역경제의 현실은 <표 IV-2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의 지역경제 성장의 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고 자랑하던 양적 지표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동안 생산활동의 활황으로 GRDP를 기준으로 한 지역경제의 성장률이나 일인당 GRDP의 높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지역경제 성장의 지표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의 성과로 자주 언급되는 GRDP가 생산 또는 공급 측면 중심의 지표라면 지역 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취업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은 수요 측면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는 주로 임금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굳이 Uzawa(1960)의 전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본소득은 재투자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만족이나 효용수준과 직결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더욱 직접적인 지표는 평균임금 수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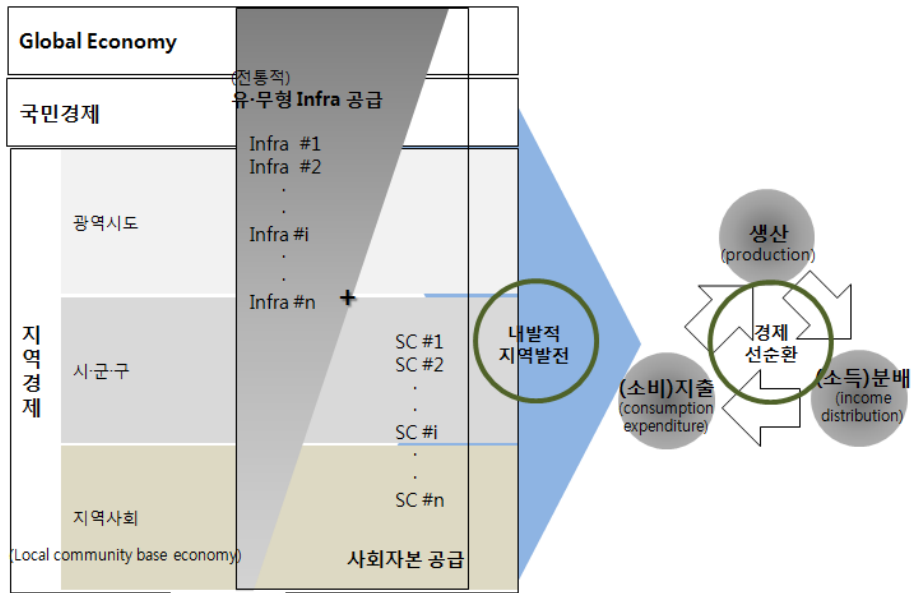
일인당 GRDP를 기준으로 충남의 그것은 전국 평균 18.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31.7백만원이었다. 그러나 평균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 22.6백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5백만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지역주민 일인당 평균 효용수준도 전국평균 2.09백만 util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92 백만 util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그동안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지역의 일인당 GRDP의 증가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느낌 사이의 괴리를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생산측면의 소득지표인 일인당 GRDP의 허상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지역경제의 과제

충남 지역경제의 순환구조가 왜곡되어 있음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왜곡된 순환구조를 개선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고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된다. 참고로 이런 대안의 모색과정에서 국내외의 선진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단위별로 처해 있는 경제환경이 다르므로, 그 이해와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음이 설명되었다. 결국 지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목표의 설정 및 그 과정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양적 투입요소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지역발전 수단으로 내발적 지역발전과 사회자본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자본 공급이 내발적발전의 매개로 자리매김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 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이 과제로 남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수단으로 사회자본 뿐만 아니라, 유형의 SOC 나 무형의 법 제도 정비나 개선 같은 인프라의 구축도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경제 단위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림 IV-1) 경제선순환을 위한 과제

결국 양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개별 경제단위별로 지역경제 선순환의 토대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의 유형별 공급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정책 및 계획의 입안과 함께 관련된 구체적 사업을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경제의 질적 수준까지 향상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논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5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012년 이후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대형 아젠다 하에서 다양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아젠다 하에서 본 연구는 신동호 외(2012)에 의해 수행된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의 한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향후 궁극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2차 연도 과제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체 선순환 연구의 과정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1차연도 연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지역경제 선순환의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1차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경제순환 분석 및 진단 수단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결국 광범위하게 체계 없이 진행된 1차 연구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기초통계의 정비작업이 병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와 도내 시군단위 지역경제 차원 모두에서 구체적으로 경제순환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충청남도 지역경제와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소득의 역외유출은 지역경제의 순환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득유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경제의 순환은 경제 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는 개념으로, 이에 걸맞은 기초통계의 정비와 분석방법론이 준비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제 내 모든 경제주체들과 산업부문의 수입과 지출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사회계정행렬(SAM)과 이를 이용한 분석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시된 한국은행의 16개 광역시도간 지역투입산표를 기반으로 하여 광역 행정구역인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계정행렬(SAM)이 작성되었다. 이

외에도 도내 시군단위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군단위 다지역 투입산출표(MRIO table)이 작성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경제 및 사회계정은 일반균형 이론체계 하에서 지역의 소득유출을 통한 지역경제 순환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참고로 일본의 經濟通産省에서는 자국 내 광역 지역간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IRIO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물을 통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소득의 역외유출과 경제순환에 대한 개념정립 및 채택된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작성된 사회계정 SAM과 경제계정(MRIO 표)을 이용하여 충청남도과 도내 16개 시군 지역경제 단위에서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와 O/D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 참고적으로 소득의 유출은 주로 생산활동 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원자재의 조달, 그리고 노동 및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경제학 생산자이론에 포함된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를 통한 이해작업이 선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순환구조가 왜곡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박스표 안에 정리된 바와 같다.

- ① 소득의 역외유출
 - 노동소득 유출: 직주분리
 - 자본소득 유출: 지역 내 자본축적 미흡*
 - 중간원자재 조달비용 유출: 수도권 의존형 경제구조(특히 기업지원서비스)
- ②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유기적 관계 단절 ⇨ 역외의존도 높임
 - 제조업 활동 지원기능 미흡
- ③ 생산과 소비의 유기성 단절 ⇨ 지역주민 효용수준 저하
 - 자본투자자와 수도권 지역만 혜택
- ④ 시군단위 소지역경제 이하에서 지역경제 순환의 지역간 양극화
 - 선순환 지역과 악순환 지역 공존 및 격차 심화 지속 ⇨ “지역존망의 문제”
- ⑤ 공급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
 - 경제성장 성과분배가 지역주민 삶의 질에 기여 못함

⇨ “지역경제 순환구조의 왜곡”

〈표 IV-22〉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의 지역경제 성장의 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고 자랑하던 양적 지표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동안 생산활동의 활황으로 GRDP를 기준으로 한 지역경제의 성장률이나 일인당 GRDP의 높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지역경제 성장의 지표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표 IV-22〉 경제 및 사회계정을 이용한 분석결과 요약

구분	일인당GRDP	평균임금	효용수준	일인당 utility
	(백만원)	(백만원)	(십억util)	(백만util/명)
충청남도	31.7	20.5	2,762	1.92
전국 평균	18.1	22.6	98,409	2.09

일인당 GRDP를 기준으로 충남의 그것은 전국 평균 18.1백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31.7백만원이었다. 그러나 평균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 22.6백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5백만원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지역주민 일인당 평균 효용수준도 전국평균 2.09백만 util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92 백만 util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측면의 소득지표인 일인당 GRDP의 허상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충남 지역경제의 순환구조가 왜곡되어 있음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왜곡된 순환구조를 개선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고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된다. 참고로 이런 대안의 모색과정에서 국내외의 선진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단위별로 처해 있는 경제환경이 다르므로, 그 이해와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음이 설명되었다. 결국 지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목표의 설정 및 그 과정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자본을 매개로한 다양한 내발적 지역발전 수단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및 후속과제

본 연구는 내발적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순환의 개념을 연결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2차년도 과제인 본 연구는 경제이론에 입각한 개념정립과 분석 및 진단단계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동호 외(2012)의 1차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선순환이라는 광범위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범위를 주어진 시간 내에 수행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애초 의도하였던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며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노출하였다.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공간 단위별로 특성화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합당한 정책대안의 모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국내외 선진사례를 통해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고자 의도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경제단위별로 경제순환의 문제를 유형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발적 지역발전 수단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애초부터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는 사회자본 공급 등을 매개로 내발적 발전 수단을 통해 구축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의 한계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회자본의 공급과 내발적 발전의 수단들의 적용사례에 대한 실증 및 문헌연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정리하고 D/B화 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내 시군 단위 지역경제의 순환문제를 분석·진단하기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시군단위 MRIO표를 2005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 및 최종재의 세부항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료를 2010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작업은 광역시도 단위의 IO 표와 연동해서 진행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지역경제 순환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와 도내 시군 단위 지역경제까지만 고려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최대의 한계이자, 향후 주된 관심을 두고

서 관련 D/B 구축과 분석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듯이, 도·농·어촌의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악순환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는 경우 결국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곳은 농어촌의 지역사회 단위 경제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관련된 경제통계는 매우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범주화된 시군단위 지역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표본추출, value chain 조사 및 D/B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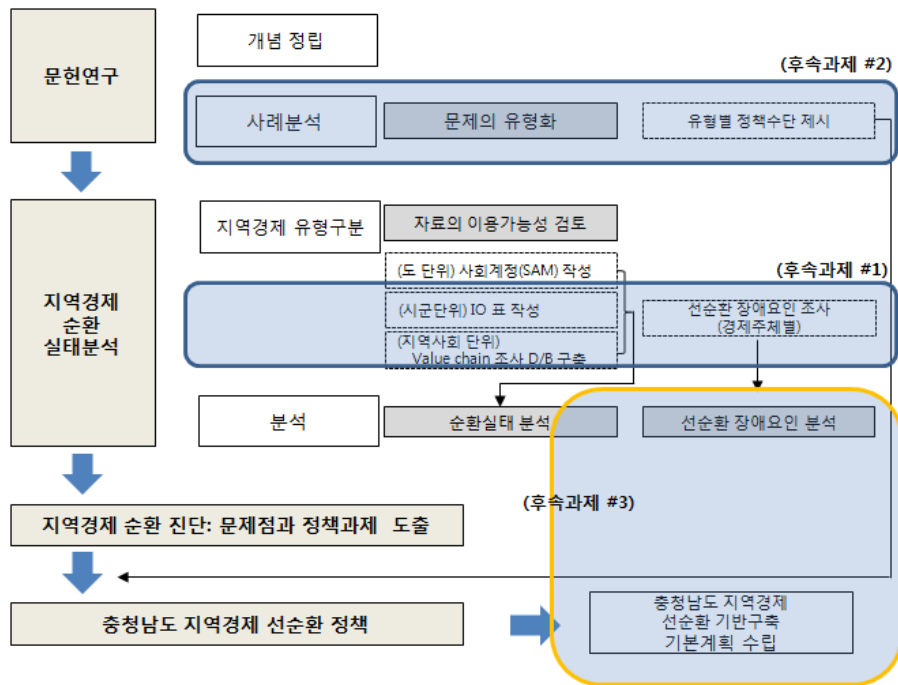
다음은 작성된 사회계정 SAM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경제 문제를 다루지 못한 한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까지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 보완 접근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반균형 이론에 입각한 분석체계의 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후속과제

앞서 설명한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된 문제와 한계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충청남도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구축의 현실가능성은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제 1 장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 대해 설명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그림 1-3)에서 미진하거나 생략된 부분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후속과제로 제안한다.

후속과제 #1은 지속적인 사례조사 작업을 통한 사회자본과 내발적 발전의 수단, 그리고 지역경제 순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된 결과는 구체적 정책입안 과정과 시책 및 사업 구상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후속과제 #2는 2차 연도 연구에서 작성된 MRIO 표를 보완해서, 그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동안 2년간의 연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지역사회 경제 단위에서 경제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조사하고 D/B화 하는 작업이다. 결국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정비되었을 때, 비로서 충남 지역경제 순환의 문제는 제대로 분석·진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의도하는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기본계획의 수립은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림 V-1) 후속 과제

부록 I. 일본 경제통산성의 2005년 기준 IRIO표

〈부록 표 I-1〉 중간재 거래표

(단위 : million yen)

구분	北海道						東北						關東					
	1차산업	제조업	생활지원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지원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지원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北海道	1차산업	275,180	1,267,195	165,053	119	10,143	17,028	43,723	3,977	1	1,059	41,800	220,895	36,332	51	4,560		
	제조업	282,247	988,392	855,868	227,406	326,234	16,785	86,284	83,992	37,337	24,186	13,411	630,156	238,803	124,556	53,296		
	생활지원	76,637	394,467	618,674	274,180	403,885	2,509	28,462	19,082	5,524	10,173	2,421	78,602	66,037	26,759	24,193		
	기업지원	147,335	342,647	1,467,917	1,408,842	633,542	2,805	25,218	53,415	25,793	13,841	4,088	115,528	106,074	117,954	33,826		
	공공	25,822	66,236	121,012	99,258	151,748	28	7,834	1,385	582	262	36	9,955	4,512	4,919	1,301		
東北	1차산업	11,356	55,213	9,211	19	1,147	245,136	1,203,947	423,249	62	16,295	23,916	270,276	52,971	147	8,510		
	제조업	10,589	62,351	53,802	15,099	31,952	256,552	2,957,188	1,132,732	239,704	537,082	30,314	2,173,606	618,222	310,246	219,490		
	생활지원	4,477	18,437	23,272	6,835	13,065	61,012	671,130	878,180	330,858	540,683	12,196	427,007	406,298	202,039	168,210		
	기업지원	3,174	9,916	16,302	11,486	7,684	125,906	864,738	2,027,963	1,791,797	839,652	7,334	193,883	157,448	118,278	40,619		
	공공	59	2,613	1,410	902	313	36,161	582,682	217,033	141,058	228,576	115	28,093	15,067	16,465	4,347		
關東	1차산업	7,298	24,892	4,811	18	1,283	5,502	78,297	10,476	6	2,837	278,098	6,098,427	1,622,483	1,183	58,021		
	제조업	40,574	346,919	243,997	155,116	359,600	84,627	1,546,035	537,517	255,892	394,554	538,347	35,901,335	9,899,712	5,494,003	3,558,962		
	생활지원 서비스	17,260	80,735	97,853	33,798	55,687	42,398	571,128	371,373	110,124	193,091	188,714	7,480,891	7,654,065	4,962,039	3,448,073		
	기업지원	19,711	76,588	237,183	318,966	165,343	27,483	376,994	514,289	496,948	311,715	313,106	9,308,133	18,733,508	30,692,969	6,728,255		
	공공	1,091	61,272	25,217	11,828	5,549	556	222,037	29,978	10,191	5,296	49,678	4,213,845	1,233,955	1,382,641	1,275,676		

(표 계속)

구분	中部						近畿						中國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北海道	1차산업	10,002	33,574	3,839	-	704	9,801	94,303	6,872	5	1,095	8,718	18,796	2,199	-	278		
	제조업	4,320	274,335	34,833	19,467	14,118	1,892	145,760	43,521	18,978	17,240	651	39,947	5,226	2,347	4,633		
	생활지원	933	52,287	20,608	5,638	9,130	599	39,130	25,274	7,529	11,507	601	22,391	10,345	3,734	6,593		
	기업지원	889	40,739	31,985	21,328	9,376	510	28,809	32,025	20,195	8,448	356	9,494	7,570	4,601	2,318		
	공공	4	1,254	451	327	132	15	3,213	2,419	1,984	722	-	246	45	37	16		
東北	1차산업	3,993	38,876	2,746	5	685	3,963	115,382	7,699	21	1,784	1,301	10,228	1,876	2	1,029		
	제조업	4,074	443,691	58,825	48,584	42,972	2,874	317,003	76,401	36,903	101,304	1,999	148,210	14,442	7,807	20,084		
	생활지원	1,912	120,368	44,124	11,896	19,005	1,024	73,776	44,417	12,863	20,172	936	39,566	17,008	5,737	10,568		
	기업지원	1,264	52,914	25,618	16,544	7,726	658	33,467	23,536	15,889	6,993	476	11,373	6,246	4,512	2,200		
	공공	13	3,841	1,319	961	391	18	3,993	2,756	2,254	815	5	728	307	271	121		
關東	1차산업	4,794	68,690	22,090	45	5,188	2,810	55,042	21,127	54	4,519	2,578	14,313	2,996	2	835		
	제조업	24,119	5,051,583	497,852	251,966	397,823	11,301	2,756,351	574,069	357,033	521,247	6,834	1,217,756	153,736	105,218	294,292		
	생활지원 서비스	19,209	1,281,274	469,112	133,145	201,358	8,872	695,768	411,445	130,891	184,701	8,356	391,440	163,568	58,147	99,100		
	기업지원	15,682	982,963	731,310	767,291	333,560	7,539	523,936	589,687	788,598	321,930	8,425	318,602	296,838	407,570	225,283		
	공공	243	306,998	23,590	13,344	4,784	198	396,802	38,788	25,355	9,094	111	121,695	9,845	4,966	2,734		

(표 계속)

구분	四國						九州						沖縄(オキナワ)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北海道	1차산업	5,033	8,959	1,128	-	162	30,671	31,230	3,406	-	376		355	475	137	1	44
	제조업	1,554	14,356	1,959	877	2,583	3,479	41,822	10,675	2,406	9,070		21	1,731	631	2,071	1,174
	생활지원	472	5,806	3,774	1,038	2,919	1,136	11,103	8,823	2,424	5,983		67	291	1,007	246	563
	기업지원	154	1,763	4,221	870	608	811	5,132	6,387	5,180	2,476		66	314	1,244	952	462
	공공	1	91	26	20	10	5	929	142	75	38		5	32	230	132	48
東北	1차산업	2,139	8,281	1,350	4	873	1,859	18,936	3,155	7	1,438		290	9,554	232	3	77
	제조업	3,258	35,918	10,261	4,388	16,773	6,002	149,458	28,806	14,677	46,794		261	794	2,729	802	4,705
	생활지원	1,261	16,331	10,016	2,755	6,795	2,831	31,025	23,152	6,292	15,775		121	597	1,922	455	1,073
	기업지원	250	2,367	2,037	1,425	787	1,437	8,154	6,810	5,286	2,916		35	153	411	661	184
	공공	3	177	90	67	30	9	1,595	292	173	78		-	24	25	14	10
關東	1차산업	1,642	8,820	1,239	3	668	5,078	27,787	2,663	6	755		207	1,776	1,376	20	444
	제조업	9,425	355,764	69,305	45,467	143,766	24,153	1,370,959	245,370	205,433	590,044		1,601	15,094	29,541	18,458	73,456
	생활지원 서비스	11,621	155,448	94,832	28,796	63,891	21,350	247,818	178,544	54,595	122,595		1,310	6,497	21,199	6,128	11,666
	기업지원	9,439	131,851	186,187	248,513	144,064	20,031	245,537	446,170	590,963	373,245		950	6,468	33,287	52,201	30,545
	공공	211	41,155	4,699	3,297	1,550	800	177,554	24,417	12,098	6,147		102	3,021	3,250	1,773	1,341

(표 계속)

구분	北海道						東北						關東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中部	1차산업	1,573	8,750	1,725	2	126	536	2,703	3,530	12	283	2,733	70,696	26,417	99	3,558		
	제조업	16,523	132,940	84,585	97,607	81,930	11,180	622,924	145,514	105,101	101,666	42,783	5,018,581	1,307,875	709,684	478,967		
	생활지원	3,574	15,747	19,355	5,674	10,956	5,705	73,851	47,463	13,022	25,184	9,390	361,283	277,733	113,733	101,135		
	기업지원	1,461	5,038	12,261	11,172	4,093	1,749	13,584	19,121	11,747	6,612	5,971	149,315	142,042	184,380	44,608		
	공공	54	3,083	1,274	611	269	21	8,074	1,118	391	190	138	92,523	10,644	11,499	2,867		
近畿	1차산업	772	2,174	3,109	5	285	1,733	7,087	442	-	227	2,483	19,641	17,176	11	748		
	제조업	9,853	87,695	96,511	32,337	107,801	12,538	413,493	144,093	42,402	91,939	28,138	3,487,939	1,087,694	606,590	693,375		
	생활지원	4,931	22,081	28,877	8,943	16,509	7,742	103,446	67,683	18,646	36,066	10,898	418,373	323,343	134,384	118,707		
	기업지원	2,026	8,255	22,565	28,716	11,843	2,181	21,345	29,760	27,134	18,915	6,932	210,366	226,531	399,480	78,385		
	공공	167	9,434	3,941	1,950	831	67	27,183	3,512	1,138	606	344	242,417	24,877	27,814	6,519		
中國	1차산업	1,158	2,460	2,756	2	86	698	8,426	1,139	-	360	3,904	28,829	16,290	19	1,699		
	제조업	14,799	47,837	43,074	30,640	27,645	15,906	182,756	44,800	20,670	17,827	22,829	1,858,675	341,329	206,403	106,779		
	생활지원	707	3,027	3,752	1,111	2,125	1,695	20,434	13,160	3,715	7,021	3,146	111,982	90,904	37,598	33,831		
	기업지원	850	2,877	3,970	3,342	1,229	1,364	9,077	9,116	5,546	2,436	5,028	131,372	94,117	82,098	25,348		
	공공	13	749	304	131	67	6	2,079	318	117	58	65	24,842	7,416	7,806	2,149		

(표 계속)

구분	中部						近畿						中部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中部	1차산업	98,072	2,045,423	733,661	199	19,202	1,371	43,886	18,615	55	2,752	469	8,360	885	3	189		
	제조업	162,499	18,371,124	2,173,738	867,797	813,891	14,857	2,584,627	642,342	330,077	343,504	3,542	966,328	144,578	63,582	92,543		
	생활지원	34,141	2,116,655	1,296,614	616,316	734,564	4,671	344,329	236,434	80,178	105,206	3,260	151,728	62,557	20,168	38,251		
	기업지원	76,903	2,969,732	3,338,063	3,619,810	1,329,354	1,496	89,107	98,416	105,921	36,221	1,195	22,082	18,292	11,599	6,904		
	공공	15,282	1,797,836	328,429	211,447	318,350	28	38,514	4,933	3,263	1,306	6	7,481	600	302	140		
近畿	1차산업	1,735	35,924	9,249	7	1,289	68,051	2,004,206	624,109	232	21,420	1,167	9,370	1,318	-	463		
	제조업	16,790	2,604,236	512,670	136,844	203,522	95,560	11,369,973	3,218,064	1,221,200	1,207,167	12,069	1,136,360	245,279	75,793	149,089		
	생활지원	9,484	620,180	235,494	64,846	101,756	36,781	2,678,871	2,632,092	1,550,186	1,391,735	6,399	299,684	126,849	42,285	77,501		
	기업지원	3,445	201,136	174,724	133,215	65,921	75,391	3,526,844	6,131,994	7,692,688	2,360,897	2,468	79,096	84,846	79,130	43,340		
	공공	72	100,094	6,873	3,456	1,609	15,384	1,424,925	469,874	383,486	552,241	54	57,395	4,315	2,127	1,130		
中國	1차산업	892	7,161	2,496	2	330	1,957	40,927	13,103	19	2,559	63,609	2,562,053	259,461	70	10,637		
	제조업	10,617	1,282,417	158,767	53,161	58,583	17,709	1,523,029	324,557	130,463	126,336	116,935	8,229,827	1,095,395	460,662	467,747		
	생활지원	1,716	108,609	39,812	10,758	17,223	1,590	113,141	69,252	20,427	31,392	16,341	905,686	563,196	329,256	441,480		
	기업지원	2,003	81,919	32,984	18,482	8,907	1,756	103,565	79,240	65,697	22,132	54,682	1,293,960	1,592,334	1,833,161	768,791		
	공공	10	5,556	938	627	258	32	17,991	5,406	4,122	1,571	10,463	716,058	163,708	122,212	224,700		

(표 계속)

구분	四國						九州						沖縄(오кина와)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中部	1차산업	1,997	5,374	1,382	2	574	1,449	4,586	1,185	4	235		103	93	137	1	31
	제조업	5,446	238,441	72,108	48,250	55,289	12,503	1,040,234	178,864	134,676	206,087		959	10,380	17,370	19,297	25,209
	생활지원	3,936	51,515	31,472	8,682	21,327	7,738	86,168	62,730	17,363	42,910		300	1,478	4,761	1,142	2,654
	기업지원	848	6,935	10,554	7,863	3,613	2,592	15,798	20,382	22,744	11,049		129	698	1,768	3,029	1,284
	공공	10	2,079	240	161	64	56	12,125	1,694	844	401		7	219	232	126	90
近畿	1차산업	579	5,959	1,091	2	448	1,393	10,989	688	2	293		39	218	135	1	45
	제조업	18,024	440,089	150,795	57,334	94,302	24,102	708,343	267,236	101,965	271,205		1,154	10,969	25,882	9,043	27,012
	생활지원	8,938	116,110	73,138	21,361	49,797	14,530	164,811	121,721	36,205	83,153		451	2,180	7,133	1,848	3,968
	기업지원	4,385	38,920	48,559	64,769	30,944	5,870	53,600	80,299	92,385	55,481		181	992	4,050	10,500	3,909
	공공	108	21,475	2,401	1,632	637	244	58,092	7,372	3,275	1,853		30	883	972	557	373
中國	1차산업	4,141	22,999	2,536	2	1,088	7,406	31,694	3,764	8	1,297		56	84	106	-	32
	제조업	33,235	311,192	121,510	45,525	48,696	87,359	721,533	271,999	189,536	185,012		1,283	4,936	13,631	9,005	7,036
	생활지원	3,089	38,223	24,663	7,177	17,101	6,691	72,514	53,887	14,984	36,753		93	474	1,516	362	848
	기업지원	1,785	21,082	19,690	25,159	9,749	6,983	49,632	50,024	46,567	26,899		330	1,547	3,777	2,790	1,517
	공공	39	5,738	956	644	315	65	12,953	2,088	1,118	575		10	140	402	221	103

(표 계속)

구분	北海道						東北						關東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四國	1차산업	1,362	1,032	642	3	129	1,263	18,277	2,303	3	732	1,674	19,381	17,131	32	1,663		
	제조업	1,897	19,614	10,051	4,814	26,831	2,214	61,141	21,992	4,650	23,325	8,131	684,241	194,104	170,516	121,922		
	생활지원	312	1,249	1,672	488	925	963	11,581	7,483	2,099	3,969	1,575	54,661	47,028	20,584	18,143		
	기업지원	399	1,337	3,772	4,074	1,009	640	3,897	4,704	3,663	1,307	2,062	53,041	42,495	51,101	11,259		
九州	공공	7	380	139	41	32	2	1,001	96	18	22	43	8,929	5,809	6,182	1,703		
	1차산업	5,737	16,732	2,537	9	469	4,506	25,308	5,702	13	1,128	4,661	121,741	38,353	105	5,683		
	제조업	6,623	19,896	13,840	8,653	18,102	7,174	105,455	32,694	13,993	19,459	15,146	1,095,072	290,289	148,964	101,107		
	생활지원	1,162	4,413	6,221	1,843	3,520	2,055	23,973	15,786	4,465	8,628	3,659	124,279	101,136	40,460	36,958		
沖縄 (오키나와)	기업지원	1,206	3,962	10,215	4,962	2,257	1,673	10,177	12,968	6,132	2,935	6,561	164,729	145,258	181,986	44,365		
	공공	19	1,001	444	251	92	7	2,533	435	178	65	83	29,586	9,680	10,698	2,732		
	1차산업	45	430	425	2	67	27	209	339	1	40	293	6,002	3,324	13	502		
	제조업	693	137	93	4	26	120	484	2,030	145	34	1,088	15,528	5,827	2,175	411		
	생활지원	27	99	149	48	77	56	625	426	121	220	123	3,721	3,485	1,508	1,216		
	기업지원	44	181	487	538	309	78	764	988	935	519	458	14,661	28,179	42,437	11,267		
	공공	1	52	20	6	5	-	9	10	7	2	8	1,321	1,317	1,429	384		

(표 계속)

구분	中部						近畿						中國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四國	1차산업	1,834	44,610	11,978	12	2,599	1,391	39,645	19,003	44	4,034	2,319	41,362	8,319	10	3,408		
	제조업	2,629	333,351	62,589	24,947	42,697	5,346	451,228	161,628	63,705	80,473	4,209	215,584	74,702	25,011	45,044		
	생활지원	844	51,206	19,151	5,162	8,306	835	59,348	36,556	10,738	16,548	1,457	63,401	27,762	9,427	17,207		
	기업지원	1,071	34,453	20,461	16,879	5,101	979	45,774	35,836	30,392	9,587	1,317	32,951	21,450	28,289	8,297		
九州	공공	8	2,374	798	572	243	29	8,247	4,835	3,867	1,449	22	7,190	1,409	1,123	543		
	1차산업	2,531	23,864	5,733	5	750	4,509	86,430	30,784	81	6,109	3,624	59,925	17,232	29	5,683		
	제조업	3,245	558,522	118,447	29,685	38,455	5,843	655,983	217,273	52,941	76,762	16,770	508,742	143,021	31,590	50,647		
	생활지원	2,083	121,221	47,773	12,824	21,339	1,467	98,721	63,223	18,690	29,007	2,968	120,484	54,860	19,826	34,584		
沖繩 (오키나와)	기업지원	2,019	83,157	47,451	26,236	11,299	1,659	86,042	87,711	61,263	21,046	2,287	61,901	47,056	44,493	18,002		
	공공	17	6,353	1,773	1,276	498	38	13,036	6,304	5,138	1,817	29	16,398	2,224	1,532	659		
	1차산업	148	1,874	1,010	5	98	103	2,697	1,075	4	167	49	2,399	236	1	43		
	제조업	422	5,368	966	540	162	91	3,453	1,731	974	342	106	1,771	1,007	20	29		
	생활지원	51	2,939	1,161	314	494	50	2,900	2,240	646	912	50	1,689	828	318	528		
	기업지원	119	7,008	7,779	5,936	3,410	130	5,778	8,118	9,311	3,229	72	1,002	820	690	311		
	공공	1	195	97	70	29	4	639	605	500	180	-	25	4	3	1		

(표 계속)

구분	四國					九州					沖縄(오키나와)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四國	1차산업	65,513	1,041,637	144,656	46	10,098	1,198	5,814	1,004	2	449	48	112	207	2	63
	제조업	84,202	1,095,888	456,309	127,060	215,088	9,625	209,236	75,844	46,432	70,728	269	1,559	5,346	1,542	4,235
	생활지원	17,163	247,978	262,651	127,207	210,846	2,117	22,535	16,868	4,567	11,469	47	213	728	177	403
	기업지원	48,814	469,339	755,301	854,714	386,747	1,618	9,625	8,283	7,510	3,431	32	142	352	480	178
	공공	14,548	213,422	84,274	67,444	130,831	8	1,764	259	123	80	2	83	77	34	33
九州	1차산업	2,325	10,309	1,644	1	426	263,504	1,880,998	424,274	276	35,313	610	6,551	3,613	31	866
	제조업	6,225	135,453	42,665	16,133	38,163	427,705	4,656,421	1,686,724	441,074	670,518	7,743	19,798	36,684	7,365	14,688
	생활지원	2,372	28,876	19,469	5,455	15,282	98,012	1,040,520	1,254,447	593,609	940,875	328	1,603	5,312	1,326	2,985
	기업지원	1,429	12,930	14,527	9,727	4,637	172,939	1,263,439	2,819,741	3,084,587	1,449,146	484	2,062	5,225	8,310	3,272
	공공	28	3,051	744	561	245	33,655	502,400	257,907	211,773	406,946	26	711	816	465	304
沖縄(오키나와)	1차산업	134	568	211	1	58	789	7,847	429	2	118	6,345	152,623	41,805	82	1,866
	제조업	5	23	34	4	9	2,774	3,834	13,234	2,367	2,187	16,435	60,159	178,816	55,792	34,981
	생활지원	45	509	364	108	242	402	3,705	3,114	841	2,037	7,176	29,431	148,050	56,097	99,092
	기업지원	60	359	504	466	315	598	3,042	5,141	6,661	2,805	11,209	31,514	261,258	372,747	121,995
	공공	-	6	-	1	-	4	362	173	133	56	1,118	3,487	19,060	17,979	29,093

〈부록 표 1 - 2〉 최종재 거래표(민간 및 정부소비지출) (단위: million yen)

구분		北海道	東北	關東	中部	近畿	中國	四國	九州	沖縄 (오кина와)
北海道	1차산업	127,373	8,196	76,775	3,791	11,826	653	187	2,180	194
	제조업	1,382,700	150,531	457,938	119,671	154,005	27,808	13,679	50,771	2,144
	생활지원	3,579,684	118,013	595,111	151,649	178,378	66,681	17,327	48,655	3,863
	기업지원	3,689,194	31,621	203,676	43,789	40,550	9,190	1,608	7,907	1,024
	공공	1,169,804	164	212	-	33	-	-	-	-
東北	1차산업	16,555	172,680	147,109	11,384	22,853	6,704	5,135	10,290	680
	제조업	170,578	1,904,362	1,435,641	212,494	269,146	79,507	50,014	128,453	8,160
	생활지원	155,351	4,518,104	1,532,440	220,017	227,078	83,446	38,279	102,107	5,016
	기업지원	30,824	5,666,853	263,812	36,766	36,402	8,616	2,316	9,716	492
	공공	217	8,048,461	500	47	40	8	-	6	1
關東	1차산업	18,331	30,110	1,017,857	81,629	78,749	7,926	4,354	6,654	3,617
	제조업	848,828	1,198,435	18,255,998	1,488,018	1,755,635	543,274	275,536	886,890	73,347
	생활지원	758,743	1,472,899	40,168,189	2,340,093	2,050,003	731,219	371,233	750,799	69,092
	기업지원	240,212	398,722	44,019,582	687,060	572,330	241,520	141,035	331,155	27,421
	공공	25,988,524	1,412	35,451,489	2,039	1,365	1,444	506	1,559	143
中部	1차산업	2,605	8,847	56,854	233,041	33,808	2,491	5,160	3,064	270
	제조업	162,599	202,049	1,965,547	3,717,601	1,035,633	226,168	115,349	348,703	20,132
	생활지원	113,688	185,698	1,748,711	7,548,737	1,184,410	249,192	119,043	253,792	12,820
	기업지원	19,681	17,937	232,022	8,894,321	208,562	27,077	12,114	25,187	2,917
	공공	4	4	13	9,888,283	5	2	1	3	-
近畿	1차산업	3,786	2,030	13,836	12,690	250,605	4,074	2,800	2,083	296
	제조업	208,831	232,734	2,045,349	896,374	5,435,919	492,020	286,090	588,340	45,942
	생활지원	163,340	243,295	1,805,066	1,396,756	13,525,299	606,377	352,133	488,630	22,742
	기업지원	34,745	30,412	299,262	242,449	16,134,652	114,613	74,396	86,502	4,930
	공공	84	62	1,336	70	16,422,067	53	20	62	6

(표 계속)

구분		北海道	東北	關東	中部	近畿	中國	四國	九州	沖縄 (오кина와)
中國	1차산업	1,524	3,626	22,533	5,652	28,704	96,568	6,176	9,238	200
	제조업	86,968	73,831	632,117	251,691	532,692	1,822,137	177,148	505,032	21,236
	생활지원	22,834	59,258	524,943	198,505	442,535	3,578,668	151,155	285,737	3,737
	기업지원	5,024	8,830	141,921	44,455	116,325	4,949,937	25,736	83,849	2,473
	공공	128	-	128	50	79	7,080,365	18	1	-
四國	1차산업	2,202	7,392	31,715	28,916	62,083	28,105	70,006	2,623	475
	제조업	12,988	22,509	246,955	79,638	222,091	113,377	779,132	121,561	6,320
	생활지원	10,479	33,560	246,536	104,386	243,550	166,536	1,789,053	76,915	2,167
	기업지원	5,572	6,558	71,908	32,939	62,151	37,152	2,708,626	12,279	388
	공공	6	1	11	17	16	8	3,929,883	113	-
九州	1차산업	7,948	17,242	114,406	11,538	96,046	56,643	4,163	281,498	5,361
	제조업	47,078	88,636	589,237	300,456	513,860	277,177	96,942	2,640,762	54,100
	생활지원	44,571	76,485	773,450	299,683	429,908	420,723	97,788	7,458,463	19,719
	기업지원	9,865	10,567	233,077	55,780	95,269	58,027	9,721	8,290,829	6,533
	공공	227	2	240	68	53	53	-	13,006,559	6
沖縄 (오кина와)	1차산업	846	1,041	7,636	2,460	3,040	580	617	1,224	15,984
	제조업	862	847	10,732	1,955	3,685	721	295	2,961	193,031
	생활지원	2,481	3,997	90,547	22,818	41,349	8,017	3,480	31,531	652,599
	기업지원	1,940	2,185	74,796	19,369	18,072	1,568	1,064	7,691	669,346
	공공	-	-	2	-	6	3	-	31	1,275,440

〈부록 1-3〉 부가가치 거래표

(단위 : million yen)

구분	北海道						東北						關東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北海道	피용자보수	217,212	761,906	3,400,856	2,189,580	3,194,891	395	4,979	9,839	5,888	9,498	177	8,102	16,328	13,845	10,542		
	영업잉여	672,539	449,520	1,055,546	1,807,916	126,667	-	-	-	-	-	-	-	-	-	-	-	-
	부가가치계	1,141,534	1,880,211	5,775,980	6,074,807	3,658,827	632	6,531	11,669	8,094	10,014	233	9,458	17,920	16,890	10,830		
東北	피용자보수	388	1,361	6,073	3,909	5,706	202,575	2,556,103	5,052,056	3,022,544	4,876,524	702	32,169	64,822	54,959	41,851		
	영업잉여	-	-	-	-	-	510,820	880,983	1,663,526	2,806,855	102,293	-	-	-	-	-	-	-
	부가가치계	549	1,767	6,915	5,127	5,983	1,041,672	5,377,334	9,002,178	8,817,269	5,435,069	849	35,688	68,949	62,860	42,855		
關東	피용자보수	7,488	26,298	117,391	75,580	110,282	11,172	140,978	278,637	166,704	268,957	392,604	17,992,145	36,256,690	30,740,274	23,408,071		
	영업잉여	-	-	-	-	-	-	-	-	-	-	932,950	5,460,315	13,323,083	24,889,927	238,370		
	부가가치계	11,538	36,630	138,732	106,422	117,327	18,048	185,611	331,503	230,437	283,862	1,884,470	35,447,366	63,353,834	85,295,073	26,623,709		
中部	피용자보수	390	1,364	6,100	3,928	5,731	408	5,151	10,183	6,093	9,829	1,731	79,303	159,806	135,491	103,174		
	영업잉여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594	1,882	7,170	5,474	6,085	657	6,777	12,104	8,412	10,373	2,404	95,537	178,862	171,990	107,805		
近畿	피용자보수	1,159	4,065	18,142	11,680	17,042	1,337	16,861	33,323	19,937	32,167	3,628	166,264	335,045	284,067	216,311		
	영업잉여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1,776	5,645	21,410	16,401	18,122	2,189	22,385	39,869	27,828	34,013	5,389	208,761	384,920	379,594	228,424		

(표 계속)

구분	北海道						東北						關東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中國	비용자보수	98	345	1,533	986	1,440	103	1,308	2,581	1,543	2,492	361	16,538	33,326	28,256	21,516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148	470	1,797	1,371	1,527	166	1,724	3,078	2,141	2,633	524	20,472	37,942	37,093	22,638		
四國	비용자보수	52	182	815	526	766	60	745	1,474	881	1,422	109	4,979	10,032	8,507	6,477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77	244	953	728	813	93	966	1,733	1,195	1,496	151	6,046	11,287	10,908	6,780		
九州	비용자보수	133	467	2,085	1,343	1,960	128	1,620	3,197	1,912	3,087	452	20,658	41,627	35,294	26,875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198	630	2,429	1,835	2,072	200	2,095	3,765	2,596	3,248	632	25,044	46,773	45,156	28,124		
沖縄 (오키나와)	비용자보수	8	28	127	81	119	1	14	30	19	29	18	826	1,662	1,409	1,073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11	35	148	109	125	1	15	33	20	29	21	920	1,779	1,630	1,103		

(표 계속)

구분		中部						近畿						中國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北海道	피용자보수	27	1,831	1,850	1,117	1,348		18	1,437	1,639	1,639	1,853		8	265	356	262	367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33	2,054	2,000	1,326	1,388		25	1,739	2,143	2,143	1,940		10	316	393	324	382	
東北	피용자보수	64	4,395	4,439	2,680	3,235		27	2,242	2,558	2,558	2,889		21	734	990	728	1,014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85	5,098	4,925	3,330	3,367		35	2,655	3,244	3,244	3,005		24	834	1,055	835	1,041	
關東	피용자보수	4,799	331,355	334,633	202,081	243,917		3,577	288,033	328,472	328,472	371,126		2,640	90,336	122,193	89,610	125,056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7,124	410,283	389,134	275,541	258,862		5,509	367,378	461,236	461,236	394,083		3,914	122,540	142,275	122,035	133,179	
中部	피용자보수	126,815	8,755,328	8,841,977	5,339,567	6,444,959		709	57,139	65,161	65,161	73,623		175	5,982	8,091	5,933	8,281	
	영업잉여	277,246	2,191,751	3,315,203	4,820,761	154,236		-	-	-	-	-		-	-	-	-	-	
	부가가치계	567,859	16,136,606	15,691,804	15,332,379	7,411,507		897	64,835	78,038	78,038	75,849		253	7,986	9,339	7,950	8,786	
近畿	피용자보수	2,041	140,907	142,299	85,933	103,723		96,843	7,797,322	8,892,011	8,892,011	10,046,713		1,513	51,763	70,017	51,347	71,658	
	영업잉여	-	-	-	-	-		252,176	2,532,900	8,620,143	8,620,143	231,043		-	-	-	-	-	
	부가가치계	2,855	168,528	161,373	111,640	108,953		484,929	15,474,560	27,028,322	27,028,322	11,550,429		2,135	67,478	79,819	67,173	75,624	

(표 계속)

구분	中部						近畿						中國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中國	비용자보수	90	6,253	6,314	3,813	4,602	234	18,788	21,429	21,429	24,212		90,246	3,088,088	4,177,114	3,063,288	4,274,938	
	영업잉여	-	-	-	-	-	-	-	-	-	-		251,004	1,116,914	1,326,172	2,602,545	139,135	
	부가가치계	129	7,506	7,241	5,062	4,855	311	21,896	26,624	26,624	25,110		448,212	7,045,202	7,135,138	8,477,648	4,943,014	
四國	비용자보수	32	2,257	2,277	1,375	1,659	83	6,643	7,579	7,579	8,563		254	8,685	11,749	8,616	12,024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46	2,726	2,604	1,815	1,751	107	7,695	9,334	9,334	8,867		322	10,398	12,819	10,343	12,457	
九州	비용자보수	104	7,139	7,212	4,356	5,256	121	9,716	11,081	11,081	12,520		570	19,509	26,389	19,352	27,006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140	8,383	8,065	5,511	5,490	163	11,443	13,969	13,969	13,020		728	23,487	28,875	23,360	28,013	
沖縄 (오키나와)	비용자보수	9	655	659	399	480	3	261	296	296	335		2	72	96	71	98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10	677	683	427	485	4	294	360	360	347		2	76	101	80	101	

(표 계속)

구분		四國						九州						沖縄(오кина와)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北海道	피용자보수	7	81	148	101	164		1,045	1,579	631	101	164		1	6	66	45	83	
	영업인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9	92	168	129	171		1,153	1,839	773	190	203		1	7	71	53	87	
東北	피용자보수	36	441	816	546	897		1,889	2,855	1,141	546	897		3	8	91	63	116	
	영업인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39	460	843	588	906		2,071	3,380	1,339	588	906		3	11	110	88	122	
關東	피용자보수	2,005	24,532	45,440	30,377	49,909		177,620	288,522	107,223	30,377	49,909		226	1,128	9,628	6,600	12,231	
	영업인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2,973	33,068	53,358	43,128	53,053		198,029	327,845	133,406	43,128	53,053		338	1,677	11,441	9,649	12,971	
中部	피용자보수	114	1,333	2,580	1,725	2,855		12,504	18,905	7,550	1,725	2,855		17	83	714	491	909	
	영업인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164	1,829	2,987	2,375	2,997		13,901	22,979	9,947	2,375	2,997		26	120	848	716	982	
近畿	피용자보수	1,193	14,577	27,003	18,053	29,659		61,482	92,947	37,115	18,053	29,659		68	337	2,887	1,980	3,667	
	영업인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1,705	19,080	31,184	24,781	31,320		68,390	113,028	45,980	24,781	31,320		108	494	3,424	2,883	3,886	

(표 계속)

구분	四國						九州						沖縄(오кина와)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中國	비용자보수	409	6,009	11,294	7,550	12,405	23,439	35,433	14,149	7,550	12,405		8	44	339	246	455
	영업잉여	-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636	7,288	12,389	9,331	12,842	24,555	39,844	16,097	9,331	12,842		13	58	424	335	485
四國	비용자보수	91,607	1,119,983	2,074,652	1,386,922	2,278,704	2,284	3,453	1,378	2,536	2,455		7	33	283	194	351
	영업잉여	198,632	432,517	640,006	1,332,800	97,604	-	-	-	-	-		-	-	-	-	-
	부가가치계	355,955	2,453,743	3,548,302	4,188,461	2,657,738	2,538	4,087	1,657	2,954	3,011		11	45	332	282	383
九州	비용자보수	219	2,576	4,959	3,316	5,446	5,653,928	8,547,500	3,413,053	6,282,182	6,077,312		56	282	2,388	1,644	3,048
	영업잉여	-	-	-	-	-	617,708	4,739,020	923,951	1,930,338	3,890,153		-	-	-	-	-
	부가가치계	286	3,246	5,485	4,176	5,658	7,575,989	17,891,116	6,196,002	10,944,534	13,938,103		88	415	2,820	2,254	3,321
沖縄(오кина와)	비용자보수	1	17	32	22	35	482	742	297	546	538		13,274	61,126	563,711	386,474	716,178
	영업잉여	-	-	-	-	-	-	-	-	-	-		30,954	33,538	122,902	346,792	27,930
	부가가치계	1	18	33	24	35	527	846	342	615	620		61,166	171,520	914,335	1,144,543	813,759

부록 Ⅱ. 충청남도 사회계정행렬(Micro SAM)

부문구분		생산활동					서울					요소		가계	자본시장	
							재화					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142,885									
		제조업						27,693,534								
		생활서비스							85,943,072							
		기업지원서비스								158,061,194						
		공공서비스									69,806,378					
	재화	1차산업	3,422	774,965	1,155,756	1,689	331,903								2,835,255	26,617
		제조업	23,480	17,702,560	19,585,733	12,454,628	10,888,882								24,572,051	8,807,639
		생활서비스	8,367	2,618,686	5,736,822	5,844,104	9,176,153								20,887,219	26,081,762
		기업지원서비스	15,043	3,543,087	15,645,022	44,670,816	8,030,321								33,908,585	7,750,754
	요소	공공서비스	10,806	853,105	2,912,578	8,865,589	6,581,300								25,130,905	0
		노동	24,950	6,358,150	23,513,873	42,246,327	26,071,893									
		자본	54,803	3,787,685	19,328,275	54,077,126	8,214,942									
	가계										98,215,193	85,462,831				
	자본시장													47,382,418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111,210									
		제조업						6,943,029								
		생활서비스							3,758,655							
		기업지원서비스								2,996,977						
	요소	공공서비스									561,846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1,086,577									
		제조업						21,487,599								
		생활서비스							4,109,466							
		기업지원서비스								8,428,032						
	요소	공공서비스									4,782,366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12,172									
		제조업						1,302,173								
		생활서비스							523,897							
		기업지원서비스								512,375						
	요소	공공서비스									205,342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 구분		서울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66,202	3,425,069	428,913	307,683	176,80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05,261	6,679,739	1,596,412	446,293	258,52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4,352	1,190,530	340,163	185,776	125,56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80,904	2,243,589	324,335	213,790	125,87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서울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87,571	4,082,636	1,094,142	257,355	112,09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993	1,069,262	457,336	271,555	120,28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73,958	5,220,238	1,494,535	301,238	111,71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18,413	1,380,541	894,776	676,375	85,28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서울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0,368	6,840,197	239,338	163,446	24,97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3,732	3,015,676	686,013	324,625	68,15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06,385	1,523,287	667,996	353,366	390,35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14,493	71,989	172,257	111,546	74,52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3,082	1,846,122	3,966,936	7,783,039	1,818,286	41,325	976,631	350	1,997		28,961,590			
해외												589,749	17,111,854	2,402,838	11,305,804	2,150,856		18,351,419		
제고																			788,434	
계							143,453	37,489,380	91,844,825	175,943,278	71,093,600	5,216,551	112,232,574	105,144,264	184,917,792	79,193,129	98,215,193	85,462,831	183,678,023	61,786,625

부문구분		인천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7,573	1,597,350	3,119,830	8,028,712	2,039,01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80,764	43,048,661	20,688,972	19,822,187	11,489,671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9,867 139,094 21,752 48,763 20,738	4,130,138 29,943,143 2,870,144 3,756,627 789,049	4,243,981 4,107,503 1,900,485 2,059,319 369,575	287 4,278,324 829,613 6,140,126 1,013,963	73,991 1,772,260 1,565,172 1,050,747 880,524						725,171 6,284,778 5,342,311 8,672,777 6,085,888	11,432 4,510,323 7,117,281 1,494,421 ()			
	요소	노동	55,719	6,419,834	3,789,882	4,935,383	4,743,676										
	자본	262,808	5,485,965	3,524,170	7,212,309	1,383,350											
	가계											19,944,483	17,878,609				
	자본시장													9,621,916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91,007	7,354,703	1,589,225	1,348,281	1,052,84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304	402,666	145,990	120,053	49,62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 구분		인원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4,192	1,119,783	116,472	76,533	43,24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62,122	2,970,663	440,714	109,172	61,84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345	516,832	92,832	53,738	29,40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9,629	754,132	86,524	71,561	29,50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인원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87,066	3,824,703	301,067	91,168	25,75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356	428,727	132,377	64,332	29,49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09,869	2,384,010	415,024	79,917	27,34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5,055	772,808	246,782	233,860	19,75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부문구분		인원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470 3,882,971 63,784 53,103 5,87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6,305 2,014,600 199,897 113,011 16,01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48,186 521,160 171,948 74,523 90,19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5,104 18,378 42,414 32,235 17,49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정부			11,032	1,572,852	1,110,325	801,034	196,030	190,229	552,497		129	477		1,090,261		
해외								7,498,519	11,423,990	338,679	2,335,440	678,080			323,915	
제고															267,878	
계			599,772	54,967,751	21,116,240	25,211,037	11,675,756	9,463,065	83,588,625	28,202,501	32,768,075	15,705,641	19,944,493	17,878,609	37,823,102	
															13,077,429	

부문구분		경기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1,401	6,117,279	16,156,436	30,878,761	8,319,63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04,114	9,902,735	1,624,654	2,478,727	772,24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512,930	138,740,497	68,461,647	70,034,146	55,451,676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47,297	5,239,706	4,838,126	2,750	283,377	1,621,324	114,632,203	18,333,717	4,107,375	9,082,979	2,983,015	54,331	
	요소	노동	266,347	27,238,024	16,383,505	15,872,728	21,936,773								
	자본	2,449,445	25,304,167	11,624,176	27,031,497	7,541,871									
	가계											81,737,378	73,851,146		
자본시장													39,432,948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950	1,834,231	626,780	563,562	208,09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경기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26,748 5,423,741	499,730 315,796			177,34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52,296 11,860,796	1,774,103 499,377			253,23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9,525 1,646,239	399,769 181,780			120,94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29,179 2,668,970	371,574 218,076			121,34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경기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84,150	8,437,838	1,210,232	274,939	106,04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2,143	1,840,739	566,605	245,476	121,03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2,241	9,197,333	1,660,225	239,935	112,25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27,308	2,700,230	1,050,257	721,097	80,82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경기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2,228	10,714,646	271,969	169,013	24,06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5,165	7,338,076	789,343	324,374	65,58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47,935	2,111,115	733,085	311,085	374,80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70,577	82,686	181,863	99,651	72,53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120,551	5,361,473	3,976,606	4,044,450	1,572,514	155,688	1,974,955		323	1,820		4,616,935			
해외							5,180,133	51,709,379	1,468,361	5,154,450	2,087,068			6,499,381		
제고														982,891		
계		5,560,439	211,644,197	70,361,261	72,558,607	56,587,773	15,619,722	274,301,524	97,846,742	112,740,568	68,475,362	81,737,378	73,851,146	155,588,524		
														56,383,318		

부문구분		대전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87 559,027	724,215	1,588,364	342,07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621 557,574	163,880	211,179	25,64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9,246 2,254,452	414,506	513,135	137,58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99,121 9,166,897	7,952,833	11,366,532	8,749,855				
	재화	1차산업	5,471	410,320	124,121	1,000	56,172						364,488	5,279	
		제조업	20,934	5,320,242	2,334,706	929,687	1,299,061						3,440,804	1,164,584	
		생활서비스	2,831	481,058	388,467	434,908	813,022						2,208,688	3,691,161	
		기업지원서비스	4,217	904,130	1,130,586	2,041,356	684,945						3,235,235	725,726	
		공공서비스	2,676	214,594	222,884	562,190	747,281						2,901,191	0	
	요소	노동	6,130	1,288,371	2,091,140	3,385,217	3,964,476								
		자본	55,562	1,313,410	1,628,029	3,623,998	1,107,949								
		가계											10,735,334	7,728,947	
	자본시장													5,179,098	

부문구분		대전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5,878	1,319,076	53,552	174,409	51,13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03,435	1,807,846	880,560	235,968	197,87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011	230,288	70,728	25,115	14,80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1,077	319,115	65,738	29,569	16,06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대전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7,299	690,609	170,636	37,430	15,16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88	161,651	78,657	36,026	12,10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7,907	787,828	196,156	39,037	11,35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959	234,536	134,221	45,244	10,61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대전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354	943,277	31,384	10,309	3,04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9,241	676,597	85,367	24,618	8,12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3,345	129,564	77,230	42,602	41,75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8,841	8,711	32,435	13,496	6,39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1,873	1,185,396	434,659	556,806	106,440	16,567	146,042		21	172			1,134,707	
해외							262,015	2,884,835	144,478	355,917	212,152				2949,566
제고															80,010
계		99,665	11,117,522	8,354,591	11,535,162	8,779,345	1,028,162	22,847,898	11,256,577	14,748,972	9,855,887	10,735,334	7,728,947	18,464,281	8,616,325

부문구분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184	749,692	989,746	2,048,374	331,38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567	1,266,688	208,297	274,741	26,66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6,011	4,306,796	541,005	722,384	140,97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103	187,818	49,687	692,729	156,68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충북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819,268	25,341,664	8,487,151	7,222,869	8,957,265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75,167 657,813 90,116 124,055 65,031	2,120,047 16,257,752 1,411,601 3,139,474 598,179	125,465 2,722,921 394,323 1,030,720 213,916	144 533,333 352,803 1,494,618 304,399	57,630 1,714,956 854,786 620,515 674,281							373,049 3,521,618 2,261,574 3,311,282 2,987,007	15,422 3,097,720 4,894,490 769,117 0	
	요소	노동 자본	184,365 1,510,457	3,946,913 3,691,199	2,166,751 1,556,257	1,535,542 2,718,911	3,617,988 1,325,670									
		가계											11,451,540	10,802,494		
		자본시장													5,524,620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28,336	2,083,152	589,878	225,037	128,80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951	304,553	90,418	28,680	15,14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19,773	529,973	82,801	35,494	16,70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총액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91,252	1,260,235	237,479	49,369	15,58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971	315,555	103,608	42,116	12,27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5,773	1,584,803	277,380	53,570	11,52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9,144	441,535	181,951	62,308	10,81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총액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373	1,620,351	42,125	14,610	3,13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8,389	1,235,041	113,754	32,714	8,30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1,845	200,329	89,336	49,565	43,61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5,835	15,462	38,758	15,944	6,53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37,672	1,350,471	492,857	377,488	114,169	22,104	306,936	35	174			4275,884		
		해외						425,237	7,018,539	126,157	495,119	217,534			215,061	
		제고														273,380
		계	2844,706	32,525,636	8,703,240	7,317,218	8,979,945	4,273,115	48,769,171	12,249,591	12,065,658	10,102,918	11,461,540	10,802,494	22,254,033	8,835,068

부문구분		충남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251	1241,438	1,601,571	3,298,791	448,54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489	2,611,176	953,005	427,868	35,97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05,535	8,419,588	1,459,427	1,168,043	189,00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3,767	1,246,311	811,683	2,423,359	701,03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충남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08,193	1,294,725	54,952	374,358	50,06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766,099	61,401,562	19,342,176	9,167,483	11,722,707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62,823	9,282,098	1,714,688	413	84,650					491,780	38,299
			1,451,749	44,575,949	5,165,038	757,552	2,108,635					4,642,447	7,512,015
			175,431	2,813,350	1,939,655	393,373	1,182,246					2,980,050	9,444,562
			234,905	5,769,649	1,840,220	1,929,578	783,135					4,355,167	1,480,158
			127,381	979,906	366,231	390,831	872,028					3,904,982	0
	요소	노동	290,325	7,540,731	4,003,470	2,138,205	4,909,873						
	자본		3,085,555	8,865,786	3,572,110	3,489,784	1,703,794						
	가계										18,882,604	20,717,029	
	자본시장												9,109,623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957	65,135	141,678	42,452	20,12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93,016	925,732	128,004	52,797	21,95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충남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97,847	2,736,567	353,289	74,323	20,71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044	774,354	165,853	70,530	16,41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16,243	3,563,734	413,444	89,908	15,41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7,497	886,186	233,386	100,968	14,37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충남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781	3,624,014	67,682	23,488	4,16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6,016	2,468,280	201,153	51,311	11,01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7,415	366,725	130,423	73,912	57,66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9,881	22,941	58,512	23,744	8,36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68,713	4,223,883	1,016,852	549,954	114,047	162,906	793,473		68	236			14,105,584		
해외							7,710,438	17,567,775	167,426	1,047,450	302,066				5,489,306	
제고															499,016	
계		5,796,902	84,051,351	19,618,284	9,649,680	11,738,408	14,773,374	110,585,738	26,343,675	18,510,802	13,640,020	18,882,604	20,717,029	39,599,632	13,424,544	

부문구분		광주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22	497,052	841,139	1,432,235	245,67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76	588,727	140,055	187,233	13,16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200	2,334,935	417,178	500,859	80,73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55	241,261	78,733	55,213	7,27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광주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청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0,666	501,164	62,238	29,487	5,30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청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1,719	1,135,799	191,736	45,355	7,90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32,173	13,221,429	7,721,482	7,561,689	7,953,428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3,065	577,696	116,129	97	46,688						375,474	11,888		
		46,876	12,156,198	2,048,903	435,064	1,139,808						3,285,941	991,543			
		7,233	953,850	463,360	392,612	744,057						2,103,707	3,233,175			
		9,436	1,271,721	1,161,788	1,723,381	700,849						3,216,485	664,341			
		5,242	254,461	219,606	287,364	615,298						2,888,791	0			
	요소	노동	14,127	2,194,706	2,015,645	1,640,023	3,550,852									
	자본	135,101	1,813,520	1,594,959	2,748,552	1,068,942										
	가계											9,415,363	7,361,075			
	자본시장														45,422,233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13,020	1,234,956	230,082	406,561	67,53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광주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38,748	1,834,114	442,183	171,266	40,51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47	252,133	73,755	32,363	3,47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2,074	883,527	52,276	53,843	2,93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359	434,777	181,683	59,914	6,23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광주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149	1,078,851	55,689	11,953	1,89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0,964	1,023,026	218,273	27,192	4,35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840	86,450	37,392	15,396	7,23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76,821	84,908	62,004	150,108	71,32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2,582	1,370,127	410,675	452,205	115,988	18,115	177,315	26	161		363,736			
해외								266,484	4,520,906	157,357	427,301	211,831		1,811,550		
제고														52,366		
계			233,663	20,582,279	8,031,067	7,679,299	7,982,463	1,262,740	30,131,336	10,963,307	11,168,024	8,731,016	9,415,353	7,361,075	16,776,428	6,825,014

부문구분		전북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816	607,605	1,104,052	1,667,657	276,37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860	821,624	177,734	214,772	17,20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9,588	2,720,634	542,745	689,941	102,31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068	310,967	106,012	66,352	10,01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부문구분		전북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7,300	631,523	83,939	37,668	7,29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44,062	1,567,951	272,865	57,132	10,72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8,477	1,003,427	459,663	621,760	179,06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213,851	19,499,951	9,225,350	7,983,578	10,263,332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76,007	2,938,214	133,440	78	71,365						505,009	18,932	1613,932
			1,023,234	12,318,558	2,742,179	614,707	1,323,057						4,419,563	2,829,468	5,090,990
			137,020	1,313,264	525,193	458,170	1,006,154						2,829,468	4,326,145	698,466
			138,592	1,751,647	1,183,564	1,729,936	819,210						3,907,845		
			80,346	361,016	242,707	268,179	844,236								
요소	노동	186,637	2,391,424	2,355,412	1,642,903	4,606,142									
	자본	2,338,035	21,720,069	1,715,578	3,020,818	15,133,175									
		가계										11,182,518	10,759,675		
		자본시장												5,394,835	

부문구분		전북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30,650	2,788,452	655,263	110,759	20,89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175	279,552	101,974	43,710	4,44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3,685	988,139	72,009	75,752	3,78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085	490,655	247,378	79,365	8,21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전북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854	1,724,457	77,367	16,575	2,56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2,451	1,142,305	295,908	37,906	5,87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7,296	113,645	50,892	21,049	9,30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5,748	90,666	185,040	290,081	158,77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54,118	1,331,044	531,868	388,820	111,190	31,936	241,582		30	207		558,328		
해외							481,186	4,443,084	178,528	532,749	283,097			1,310,009	
제고														191,117	
계		4,233,458	24,567,236	9,429,942	8,123,611	10,238,509	5,776,188	39,436,220	13,836,807	12,482,057	11,363,690	11,182,518	10,739,675	8,923,436	

부문구분		전남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356	680,970	1,541,248	2,623,121	316,73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355	1,089,787	287,379	330,832	20,70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1,199	2,873,684	785,892	990,512	119,74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880	349,288	131,070	87,769	13,90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전남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재화						84,735	716,732	104,733	46,625	9,447		
	요소												
	자본												
	가계												
충남	생산활동												
	재화						139,578	2,322,688	432,498	74,394	14,238		
	요소												
	자본												
	가계												
광주	생산활동												
	재화						1,655	973,308	442,003	1,032,091	603,278		
	요소												
	자본												
	가계												
전북	생산활동												
	재화						171,973	1,930,688	312,718	504,478	215,299		
	요소												
	자본												
	가계												

부문구분		전남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144,240	66,966,153	17,105,492	8,762,827	11,002,323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53,211 1,665,281 243,589 296,149 187,045	17,363,066 41,627,865 3,466,188 4,247,063 942,150	254,705 5,207,029 1,025,168 1,921,020 428,552	52 1,296,847 468,239 3,356,966 320,518	98,404 1,507,951 1,301,102 757,115 884,804							536,939 4,611,481 2,962,337 4,514,006 4,038,666	45,381 3,875,978 7,976,835 988,938 ()	
	요소	노동 자본	515,658 3,790,355	4,959,141 8,766,932	3,533,355 4,048,887	1,947,653 3,542,061	4,682,512 1,698,197									
	가계												15,698,319	21,846,432		
	자본시장														7,573,414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046	289,234	141,709	69,669	5,02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3,465	1,725,901	99,316	132,801	4,30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0,744	705,824	344,046	145,327	10,21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전남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857	2,914,640	115,800	31,810	3,43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5,797	1,654,663	463,889	71,520	7,27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73,068	118,483	62,972	37,788	9,78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15,782	63,932	159,369	338,989	153,35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13,327,908	
해외															1,688,991
제고															344,209
계		7,199,581	86,788,180	17,306,969	11,263,120	11,039,081	22,709,466	99,875,666	22,730,166	17,456,024	12,838,778	15,688,319	21,846,432	37,544,761	11,542,349

부문구분		대구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72	728,107	1,002,852	2,273,533	394,57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22	639,094	182,833	282,633	27,16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845	2,695,735	515,309	807,100	149,68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86	256,855	108,800	66,910	15,59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대구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7,494	614,534	86,207	40,739	10,32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0,937	1,160,846	190,990	58,420	15,91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526	300,381	109,297	15,145	4,92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4,846	458,262	94,272	18,275	4,87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대구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82,779	876,509	91,273	27,168	46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57,655	16,357,108	11,767,494	14,129,859	12,057,852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080 58,881 9,388 13,349 6,469	501,832 11,387,052 1,102,827 1,495,461 385,469	203,470 3,159,640 689,634 1,803,255 346,834	112 871,536 596,964 3,203,306 476,301	72,299 1,904,989 1,162,329 1,076,814 928,391							681,499 6,391,754 3,957,639 6,440,192 5,068,019	6,469 1,531,690 4,623,177 1,181,407 ()		
	요소	노동 자본	16,320 147,359	2,928,152 2,193,510	3,155,073 2,536,409	3,053,104 5,138,111	5,255,288 1,513,434										
	가계												14,407,947	11,528,824			
	자본시장														6,950,894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64,240	3,716,135	648,341	215,154	241,43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4,105	767,995	503,070	228,741	55,92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대구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845	2,305,118	181,404	53,825	20,40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72,152	1,822,268	702,301	122,879	42,05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3,131	155,742	106,774	58,068	17,44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6,822	14,506	40,452	11,753	3,24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2,818	368,380	612,001	996,124	184,440	10,716	238,318		29	279		3,553,247		
해외							190,503	4,528,571	249,611	574,456	368,394			3,009,400	
제고														146,798	
계		293,705	20,372,684	12,506,356	14,335,578	12,088,136	1,386,286	37,726,084	16,581,280	18,974,687	13,434,855	14,407,947	11,528,824	10,498,990	

부문구분		경북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재화						3,166	1,278,366	1,900,566	5,044,813	469,458				
	요소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재화						4,283	2,053,378	364,397	629,528	31,808				
	요소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재화						30,599	7,473,705	971,543	2,461,390	173,677				
	요소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재화						3,169	558,095	176,116	143,180	21,814				
	요소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경북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04,141	1,406,475	136,487	60,541	13,71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04,236	3,182,576	349,109	92,670	21,65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878	603,377	180,818	24,833	5,68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0,113	941,740	153,497	34,031	5,63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경북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32,360	3,899,496	147,223	66,426	5,23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9,005	2,121,308	988,702	2,514,972	653,73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272,095	79,172,285	20,428,335	13,667,674	14,807,120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84,693	5,216,830	288,860	432	121,851					729,582	33,940
	요소	노동	1,515,332	68,706,533	5,853,019	1,481,980	2,336,380					6,842,724	7,959,650
	자본		213,827	5,086,438	1,185,738	591,739	1,649,279					4,236,892	9,047,473
	가계		284,351	10,224,001	2,439,535	3,367,895	1,064,010					6,894,580	1,644,118
	자본시장		141,419	1,275,400	497,408	551,078	1,155,306					5,425,592	0
	요소	노동	383,768	10,158,076	4,388,743	3,194,164	6,140,902						
	자본		3,328,684	14,617,071	5,159,653	5,007,694	2,245,698						
	가계											24,265,663	30,358,799
	자본시장											11,706,533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1,035	1,841,911	921,516	455,842	75,50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경북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7,381	6,139,363	356,232	102,785	29,47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78,074	4,675,444	1,429,863	218,363	56,14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00,669	276,034	150,667	107,885	18,06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7,586	23,522	64,328	22,974	3,43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67,679	2,192,006	1,009,567	547,661	144,497	68,561	772,646		138	330			18,788,489		
해의							2,705,599	27,625,152	241,744	2,065,276	444,160				2543,161	
제고															538,322	
계		6319,753	117,476,344	20,812,583	14,742,635	14,857,923	10,117,032	144,104,867	28,961,123	27,743,311	16,837,028	24,265,663	30,358,799	54,624,463	16,680,343	

부문구분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9 1,077,979	1,558,447		3,662,550	650,98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22 1,239,603	151,958		431,331	49,27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658 4,094,688	656,518		1,194,762	270,01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86 376,264	129,236		41,810	11,85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부산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4,456	847,662	94,784	23,312	9,79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1,183	2,001,276	123,508	36,963	13,82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005	751,292	205,511	31,377	17,81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0,360	1,008,541	179,016	41,713	18,07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부산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6,625	2,346,967	175,332	60,557	17,33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235	1,019,236	536,162	128,846	97,31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87,142	4,368,977	427,731	141,979	95,02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42,406	23,375,608	23,567,737	24,941,463	17,303,445				
	재화	1차산업	59,687	1,333,971	463,484	119	114,416								996,641	13,772
		제조업	535,506	18,411,939	6,041,747	2,781,611	2,715,691								8,853,788	3,871,280
		생활서비스	52,456	1,491,232	1,476,855	1,218,518	1,922,186								6,066,098	9,227,274
		기업지원서비스	180,194	2,227,076	3,434,065	7,029,499	1,455,629								9,142,602	1,775,472
		공공서비스	117,985	571,148	685,867	1,018,728	1,479,070								7,371,054	0
	요소	노동	375,446	4,339,081	6,094,823	6,000,883	7,350,545									
		자본	318,103	2,907,039	5,748,993	8,896,932	2,030,043									
		가계											24,160,778	19,961,130		
		자본시장													11,655,998	

부문구분		부산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159	4,761,893	123,902	242,579	40,89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28,396	4,942,389	766,833	224,379	71,38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0,955	248,104	95,840	33,523	29,35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3,090	31,555	82,194	38,444	11,54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12,982	653,458	1,232,186	1,496,889	288,479	34,518	378,697	70	415		35,727			
해외								707,684	7,156,299	487,085	2,485,975	585,788			1,316,432	
제고															218,951	
계			1,652,358	31,984,965	25,178,020	28,443,179	17,396,059	3,775,999	60,027,092	29,362,052	33,771,634	19,294,110	24,160,778	19,961,130	44,121,908	16,423,182

부문 구분		출산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1	532,014	1,074,133	2,380,504	242,43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78	1,345,020	101,988	294,759	19,12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31	4,088,345	441,428	981,897	100,90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49	444,684	82,465	27,381	4,52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 구분		출산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재화						8,231	845,088	59,335	12,320	3,455			
	요소													
	자본													
	가계													
충남	생산활동													
	재화						7,114	3,453,286	77,699	23,047	5,071			
	요소													
	자본													
	가계													
광주	생산활동													
	재화						1,723	537,120	123,336	14,191	5,679			
	요소													
	자본													
	가계													
전북	생산활동													
	재화						20,642	655,199	104,692	17,765	5,745			
	요소													
	자본													
	가계													

부문구분		출산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0,286 284,808	101,426			28,346 5,45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573 1,741,152	346,678			62,318 36,59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24,082 5,604,813	265,720			113,523 36,36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7,316 2,692,030	1,730,536			2,517,260 280,40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울산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지출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16,256	77,804,136	7,643,701	5,873,982	5,541,064				
	지출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6,313	26,629,039	494,430	137	61,384			297,940	9,990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98,554	58,584,173	2,027,133	682,251	925,919			2646,792	2,675,386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6,551	4,138,094	565,746	261,111	878,783			1,810,438	3,330,320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7,151	6,077,062	885,406	1,766,896	455,887			2,733,131	1,108,332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6,836	1,104,788	191,413	236,711	519,032			2,169,898	0
요소	노동	자본				43,086	9,480,214	1,761,516	1,332,976	2,001,403					
	가계					301,121	9,723,591	1,533,892	2,110,146	649,744			14,679,215	14,378,494	
	자본시장													7,081,738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지출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99,274	4,189,501	522,325	492,651	44,570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지출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7,922	151,372	50,649	17,209	8,912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지출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8,511	12,448	45,352	15,978	3,532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정부			3,620	10,596,527	363,928	354,105	88,190	468,138	571,679		76	148			12,317,741
해외								25,140,561	14,692,302	136,647	1,312,587	194,834			1,027,833
제고															426,345
계			533,242	126,333,488	7,883,463	6,804,334	5,580,343	27,617,508	122,208,981	12,908,192	14,085,834	6,538,839	14,679,215	14,378,494	29,057,694

부문구분		경남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 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4	1,203,315	1,934,546	3,700,068	533,24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 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606	2,187,568	185,149	447,600	45,56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 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067	6,066,407	801,866	1,306,118	247,06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 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33	534,242	149,331	48,932	10,56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경남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재화						20,225	1,316,097	108,666	22,465	8,668				
	요소														
	자본														
	가계														
충남	생산활동														
	재화						26,926	2,616,488	141,273	37,710	12,273				
	요소														
	자본														
	가계														
광주	생산활동														
	재화						6,910	852,188	230,949	29,547	15,431				
	요소														
	자본														
	가계														
전북	생산활동														
	재화						99,710	1,029,131	199,234	37,009	15,572				
	요소														
	자본														
	가계														

부문구분		경남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22,726	3,229,784	194,254	55,490	14,86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27,713	1,813,608	610,418	119,985	86,15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37,450	8,108,718	476,238	156,397	84,31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60,185	2,918,995	958,894	3,069,092	700,28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경남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0,370	5,918,332	224,977		100,968	22,00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921,737	56,976,304	23,871,767		15,076,008	19,069,227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02,522	3,060,389	3,103,417	35	142,707						865,740	15,222
	요소	노동	1,247,636	51,150,791	5,937,142	1,163,022	3,429,988						7,690,911	4,107,402
	자본		199,179	3,754,842	1,564,947	778,783	2,286,263						5,250,676	10,155,312
	가계		258,759	5,928,655	2,435,057	3,440,739	1,573,388						7,941,791	1,854,388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3,418	1,366,249	489,872	551,001	1,653,564						6,372,338	0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91,912	12,162,785	5,115,317	3,226,036	6,996,356							
	요소	노동	2,469,900	7,926,810	4,622,239	5,733,936	2,847,319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8,163	391,032	102,077		32,714	25,44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8,422	37,132	89,941		38,123	9,99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67,837	2,162,586	1,231,792	870,622	236,787	90,891	65,4916		80	377		9,920,035	
해의							3,453,899	16,494,716	360,704	1,455,581	518,026			4,327,472
제고														528,888
계		5,091,162	87,513,106	24,489,783	15,774,494	19,166,383	9,836,337	112,406,005	30,640,214	25,713,888	21,479,073	27,902,416	23,600,175	20,989,078

부문구분		강원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25	606,530	782,084	1,619,232	291,54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9,188	912,144	166,605	217,448	23,74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10,584	2,780,628	442,654	582,256	163,600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94	164,612	69,366	66,803	15,82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강원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9,713	394,008	57,834	35,837	16,18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4,508	908,118	239,452	53,940	17,76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200	177,415	42,233	9,563	461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7,377	236,948	37,288	13,507	484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강원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7,116	580,870	36,245	19,857	4,70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632	152,160	62,834	35,948	15,37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3,224	730,255	414,427	46,014	14,65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2,769	302,407	96,552	54,127	11,67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강원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834	1,202,534	23,613	12,672	4,52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2,711	829,357	63,601	27,542	9,257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435,561	8,608,253	10,618,915	7,675,085	13,060,131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88,085	1,528,453	157,540	37	82,689	697,712	2,963,983	3,107,739	645,379	358,347	22,000		
	요소	노동	697,712	2,963,983	3,107,739	645,379	2,014,697	118,083	533,557	514,413	436,331	3,494,540	1,360,761		
	자본		118,083	533,557	514,413	436,331	1,160,309	285,085	1,057,115	1,247,713	1,843,532	2,152,382	5,889,649		
	가계		285,085	1,057,115	1,247,713	1,843,532	866,982	97,365	153,861	253,341	275,439	3,634,488	714,921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8,533	6,186	18,891	6,129	3,67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정부															
해외															
제고															
계															

부문구분		제주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서 울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49	160,538	272,724	508,862	91,56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인 천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72	156,512	54,015	67,710	5,24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 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4,653	530,001	145,119	170,122	32,21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 전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13	63,594	27,588	18,197	2,74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제주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충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0,474	143,704	22,273	10,141	205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충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0,656	290,794	73,800	14,346	2,999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광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3	251,414	52,551	64,368	107,31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전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4,694	339,977	89,546	109,426	38,854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제주												가계	자본시장	
		생산활동				재화				요소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전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05,458	443,259	53,318	41,273	21,368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대구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547	48,456	25,018	11,094	1,333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경북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4,554	204,459	18,207	14,657	1,135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524	100,951	63,686	24,147	2,422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부문구분		제주													
		생산활동					재화					요소		가계	자본시장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노동	자본		
울산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75	400,025	20,353	4,817	73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경남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5,030	230,755	84,457	11,497	1,736				
	요소	노동													
	자본														
	가계														
강원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3,337	27,055	14,282	5,542	3,661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제주	생산활동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2,106,600	895,208	3,505,515	3,284,674	3,529,855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116,620	297,029	65,109	13	21,843	573,009	329,104	988,319	329,835	448,827	149,351		
	요소	노동	573,009	329,104	988,319	329,835	448,827	75,182	55,124	221,333	186,303	349,145	1,307,042		
	자본	108,012	82,042	444,733	798,552	335,950	70,002	15,439	95,055	121,107	310,949	1,279,414	335,382		
	가계	193,669	100,233	874,580	692,529	1,424,304	979,513	92,476	70,451	1,233,020	561,315	1,142,078	1,575,461		
제주	재화	1차산업 제조업 생활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요소	노동													
	자본														
	가계														
	자본시장														
정부			21,975	54,482	210,243	172,184	107,851	4,483	41,365	7	66	3,285,315	3,571,774	1,584,950	
해위								69,968	639,381	56,104	153,891	97,114		446,183	
제고														42,675	
계			2,137,981	1,025,929	3,614,834	3,533,534	3,551,184	2,396,020	4,977,488	4,578,547	4,514,771	3,942,404	3,285,315	3,571,774	6,857,089

부문/구분		정부	해외	제고	계
서울	생산 활동	1차산업		1,088	1,43,953
		제조업	9,819,846		37,489,380
		생활서비스	5,901,753		91,844,825
		기업지원서비스	17,882,084		175,943,278
		공공서비스	1,287,120		71,033,600
	재화	1차산업	0	8,186	5,216,551
		제조업	0	503,308	112,232,574
		생활서비스	0	187,573	105,144,264
		기업지원서비스	651,930	6,626	184,917,792
		공공서비스	19,718,104	62,741	79,193,123
	요소	노동			98,215,193
		자본			85,462,831
		가계			183,678,023
		자본시장	14,404,208		61,786,623
인천	생산 활동	1차산업		19,008	589,772
		제조업	11,919,080		54,967,751
		생활서비스	406,268		21,105,240
		기업지원서비스	5,388,850		25,211,037
		공공서비스	186,085		11,675,753
	재화	1차산업	0	11,574	9,463,065
		제조업	0	238,543	83,588,625
		생활서비스	0	35,150	28,202,501
		기업지원서비스	17,238	4,659	32,788,075
		공공서비스	4,889,448	1,100	15,705,641
	요소	노동			19,944,493
		자본			17,878,603
		가계			37,823,102
		자본시장	3,455,504		13,077,421
경기	생산 활동	1차산업		47,508	5,560,433
		제조업	72,903,700		211,644,197
		생활서비스	1,889,614		70,361,261
		기업지원서비스	2,524,461		72,558,607
		공공서비스	1,136,099		56,587,775
	재화	1차산업	0	90,821	15,619,722
		제조업	0	715,707	274,301,524
		생활서비스	0	163,981	97,846,742
		기업지원서비스	614,706	4,759	112,740,568
		공공서비스	23,356,075	7,623	68,475,562
	요소	노동			81,737,378
		자본			73,851,146
		가계			155,588,524
		자본시장	16,950,393		56,383,318
대전	생산 활동	1차산업		574	99,685
		제조업	1,950,625		11,117,522
		생활서비스	401,738		8,354,591
		기업지원서비스	178,630		11,535,162
		공공서비스	29,491		8,779,345
	재화	1차산업	0	6,828	1,028,162
		제조업	0	64,817	22,847,898
		생활서비스	0	19,628	11,256,577
		기업지원서비스	1,086,572	1,533	147,48,972
		공공서비스	3,774,268	859	9,855,887
	요소	노동			10,735,334
		자본			7,728,947
		가계			18,464,281
		자본시장	3,472,228		8,616,323

부문/구분		정부	해외	제고	계
충북	생산 활동	1차산업		25,438	284,706
		제조업	7,183,972		32,525,636
		생활서비스	216,089		8,703,240
		기업지원서비스	94,349		7,317,218
		공공서비스	22,679		8,979,945
	재화	1차산업	0	87,362	4,273,115
		제조업	0	163,657	48,789,171
		생활서비스	0	20,713	12,249,591
		기업지원서비스	6,739	1,223	12,065,658
		공공서비스	4,674,812	425	10,102,918
	요소	노동			11,451,540
		자본			10,802,494
		가계			22,254,033
		자본시장	3,310,447		8,835,083
충남	생산 활동	1차산업		30,803	5,796,902
		제조업	22,649,789		84,051,351
		생활서비스	276,108		19,618,284
		기업지원서비스	482,207		9,649,690
		공공서비스	35,702		11,758,408
	재화	1차산업	0	66,188	14,773,374
		제조업	0	330,319	110,585,738
		생활서비스	0	40,412	26,343,675
		기업지원서비스	126,720	1,414	15,108,802
		공공서비스	5,975,331	684	13,640,020
	요소	노동			18,882,604
		자본			20,717,023
		가계			39,599,627
		자본시장	4,314,921		13,424,544
광주	생산 활동	1차산업		1,490	233,663
		제조업	7,370,850		20,592,279
		생활서비스	309,585		8,031,067
		기업지원서비스	117,630		7,679,299
		공공서비스	29,034		7,982,463
	재화	1차산업	0	9,777	1,262,740
		제조업	0	37,491	30,131,326
		생활서비스	0	23,381	10,963,307
		기업지원서비스	38,479	676	11,168,024
		공공서비스	3,189,687	795	8,731,016
	요소	노동			9,415,353
		자본			7,361,075
		가계			16,776,428
		자본시장	2,282,721		6,825,014
전북	생산 활동	1차산업		20,107	4,233,958
		제조업	5,097,285		24,567,236
		생활서비스	204,532		9,429,942
		기업지원서비스	155,033		8,123,611
		공공서비스	29,977		10,293,509
	재화	1차산업	0	66,829	5,776,188
		제조업	0	104,025	39,436,221
		생활서비스	0	18,168	13,836,807
		기업지원서비스	28,954	1,509	12,482,057
		공공서비스	4,961,103	584	11,363,690
	요소	노동			11,182,518
		자본			10,759,675
		가계			21,942,193
		자본시장	3,528,601		8,923,436

부문구분		정부	해외	제고	계
전 남	생산 활동	1차산업		55,341	7,199,581
		제조업	19,832,027		86,788,180
		생활서비스	201,477		17,306,999
		기업지원서비스	2,510,293		11,263,120
		공공서비스	36,757		11,039,080
	재화	1차산업	0	65,776	22,709,466
		제조업	0	262,403	99,875,666
		생활서비스	0	13,047	22,730,166
		기업지원서비스	6,410	2,629	17,456,024
		공공서비스	5,606,356	354	12,838,778
대 구	요소	노동			15,688,319
		자본			21,846,492
		가계			37,544,751
		자본시장	3,968,934		11,582,348
		생산 활동			281,705
	재화	1차산업		2,040	20,372,684
		제조업		4,015,576	12,506,356
		생활서비스		738,862	14,336,578
		기업지원서비스		216,719	12,088,136
		공공서비스		40,284	1,336,286
경 북	요소	노동			10,117,082
		자본			14,410,867
		가계			28,961,123
		자본시장	3,548,096		16,680,343
		생산 활동			1,662,358
	재화	1차산업		47,658	11,476,344
		제조업		38,304,058	20,825,583
		생활서비스		374,248	14,742,635
		기업지원서비스		1,074,961	14,857,923
		공공서비스		50,803	10,117,082
부 산	요소	노동			30,358,799
		자본			54,624,453
		가계			16,680,343
		자본시장	4,973,730		1,662,358
		생산 활동			31,994,965
	재화	1차산업		109,953	25,178,020
		제조업		8,559,357	28,443,179
		생활서비스		1,610,283	17,396,059
		기업지원서비스		3,501,716	3,775,999
		공공서비스		92,615	60,027,092
경 남	요소	노동			14,157
		자본			58,688
		가계			33,771,634
		자본시장	4,767,184		19,294,110
		생산 활동			24,160,778
	재화	1차산업			19,961,130
		제조업			44,121,908
		생활서비스			16,423,182
		기업지원서비스			
		공공서비스			

부문구분		정부	해외	제고	계	
울산	생산 활동	1차산업		16,986	533,242	
		제조업		48,529,362	126,333,488	
		생활서비스		239,762	7,883,463	
		기업지원서비스		930,342	6,804,334	
		공공서비스		39,273	5,580,343	
	재화	1차산업	0		5,456	27,617,508
		제조업	0		407,904	122,208,981
		생활서비스	0		11,331	12,908,192
		기업지원서비스	8,428		1,637	14,085,834
		공공서비스	2,108,730		267	6,538,839
요소	노동				14,679,215	
	자본				14,378,494	
	가계				29,057,699	
	자본시장	1,497,099			8,578,857	
경남	생산 활동	1차산업		169,425	5,091,162	
		제조업		30,536,802	87,513,106	
		생활서비스		618,016	24,489,783	
		기업지원서비스		688,486	15,774,494	
		공공서비스		97,153	19,166,383	
	재화	1차산업	0		67,539	9,836,597
		제조업	0		421,136	112,406,005
		생활서비스	0		37,055	30,640,214
		기업지원서비스	173,913		2,374	25,713,888
		공공서비스	10,471,979		779	21,479,073
요소	노동				27,902,405	
	자본				23,600,173	
	가계				51,502,580	
	자본시장	7,527,990			20,989,078	
강원	생산 활동	1차산업		23,948	3,459,509	
		제조업		930,899	9,539,152	
		생활서비스		105,609	10,724,524	
		기업지원서비스		211,228	7,886,313	
		공공서비스		36,153	13,096,284	
	재화	1차산업	0		69,698	4,304,553
		제조업	0		62,411	20,757,370
		생활서비스	0		21,831	13,383,176
		기업지원서비스	20,066		1,825	10,905,852
		공공서비스	8,133,524		673	13,889,021
요소	노동				11,154,369	
	자본				9,894,148	
	가계				21,048,514	
	자본시장	5,765,618			11,146,871	
제주	생산 활동	1차산업		31,381	2,137,981	
		제조업		130,721	1,025,929	
		생활서비스		109,319	3,614,834	
		기업지원서비스		248,880	3,533,534	
		공공서비스		21,329	3,551,184	
	재화	1차산업	0		25,536	2,396,020
		제조업	0		10,959	4,977,488
		생활서비스	0		5,401	4,578,547
		기업지원서비스	14,896		503	4,514,771
		공공서비스	1,582,600		277	3,942,404
요소	노동				3,285,315	
	자본				3,571,774	
	가계				6,857,089	
	자본시장	1,129,631			2,714,581	
정부					204,872,405	
해외					343,325,445	
제고					5,458,169	
계		204,872,405	343,325,445	5,458,169		

참고 문헌

- Alpha C. Chiang(1984),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Third edition, McGraw-Hill, Inc.
- Armstrong, H. and J. Taylor(2000),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3rd edition, Blackwell.
- Besley, T. (2002), “Welfare Economics and Public Choi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pril 2002.
- Carruthers and Babb(2000), *Economics/Society: Markets, Meanings and Social Structure*, SAGE Publications.
- Clap(1971), *New Town and Urban Policy : Planning Metropolitan Growth*, The Dunllen Publishing Co.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and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1), *Tourism Satellite Account: Recommended Methodological Framework*.
- Daniel T. Slesnick(1998), “Empirical Approaches to the Measurement of Welfar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VI(Decmber 1998), pp. 2108-2165.
- Decaluwe and Martens(1988), “CGE Modeling and Developing Economies: A Concise Empirical Survey of 73 Applications to 26.
- Devarajan(1986). “Policy Lessons from Two-Sector Models“, Working Paper, No. 535,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 EEC, IMF, OECD, UN and World Bank(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http://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docs/1993sna.pdf>.
- Eurostat(1995), *Regional Accounts Methods: Gross value-added and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by activity*.
- Fujiwara, D.(2013), “A general method for valuing non-market goods using wellbeing data: three stage wellbeing valuation“, CEP Discussion Paper no.

1233. July 2013.

- Ghali, Akiyama and Fujiwara(1978), “Factor Mobility and Regional Growt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78,
- Giarratani and Soeroso(1985), “A Neoclassical Model of Regional Growth in Indonesia,”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5, no. 3, 1985.
- Korten(2010), *Agenda for a New Economy From Phantom Wealth to Real Wealth*, Berrett-Koehler Publishers; Second Edition edition.
- Miller and Blair(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Morgan, S.(2000), “Social capital, capital goods, and the production of learning, *Journal of Socio-Economics*, 29(2000) 591-595.
- Robson(1972), “The Great City of Today” , In Robson William A. D.E. Regan (eds). *Great Cities of the World*. Allen & Unwin.
- Rothbard, M.(1956), “Toward a Reconstruction of Utility and Welfare Economics“, *The Logic of Action One: Method, Money and the Austrian School*(London): Edward Elgar.
- OECD(2001), OECD Insights, *Human Capital*, www.oecd.org/insights/37966934.pdf.
- OECD(2000), *Measuring the Role of Tourism in OECD Economies: The OECD Manual on Tourism Satellite Account and Employment*.
- O’Sullivan, A.(2000), *Urban Economics*, 4th edition, Irwin, McGraw-Hill.
- Pyatt, G. and Jeffery Round(1985), *Social Accounting Matrices: A Basic for planning*,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U.S.A.
- Shoven and Whalley(1984),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s of Tax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Uzawa, H.(1960), “On a two sector model of economic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0),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Methodological Accounting-Methodology and Documentation*.

- 經濟通産省(2013), 2005 METI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www.meti.go.jp.
- 김경환 · 서승환(1999), 『도시경제』, 홍문사.
- 김홍배(2005),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 김홍배(2003), 『정책평가방법: 비용 · 편익 분석론』, 나남출판사.
- 김홍배 · 임재영(2006), “동태적 다지역 여가 CGE 모형을 이용한 주 5일근무제의 파급효과 분석,” 『관광연구』, 제30권 제3호, pp. 21-40.
- 김홍배 · 임재영(1998), “남북통일과 지역균형 개발정책,” 『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pp. 47-64.
- 박경(2011), “우리나라 지역간 소득의 역외유출 현상: 충남을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1권 제 4호(통권 38호).
- 박경(1999), “지역개발전략으로서 내발적 발전론: 일본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11호.
- 박상우 · 이종열(2002),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관한연구(III)』. 국토연구원.
- 박상우 · 이종열(2001), 『지역간투입산출분석모형개발연구(I)』. 국토연구원.
- 박은태 편저(2011), 『경제학 사전』, 경연사.
- 박진도(1999), “군 지역 내생적 발전의 에너지 발굴 및 전략 연구,” 지역을 생각하는 모임.
- 박진도(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농촌지역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 박진도(2010), “한국 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내발적 발전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 『농촌사회경제』, 제20집 제 1호.
- 박재룡(1997), “Land MRIO(multi-regional input-output) 모형을 이용한 지역내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과 지가 안정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동호 외(2012),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 전략연구 2012-06, 충남발전연구원
- 이동수(2013), 『관광위성계정(TSA) 개발』, 한국통계개발원 2012년 하반기연구보고서.
- 이종건(1996), “공공자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통계월보』 1996년 8월호, 한국은행
- 임재영 · 류종현(2010),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통한 강원도 관광부가가치 추계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제25권 제 1호, pp. 349-368.

- 정준호(2012), “지역과 선순환 경제”, 강원대학교 학술회의 자료.
- 정준호 · 김동수 · 변창욱(2012), 『역외 소득 유출입을 고려한 지역간 소득격차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ISSUE PAPER 2012-293, 산업연구원.
- 조권중(2010), 『2010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통계청 지역경제통계과(2009. 9.), 『우리나라 지역계정』, 강의자료.
- 통계청(2007), 『성장, 분배 그리고 사회계정행렬: Growth, Distribution and Social accounting Matrices』, 2007 KNSO International conference 자료집.
- 표학길(2012), 『분기별 자본스톡 및 잠재성장률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 표학길 외 2인(2007),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 스톡 및 자본계수 추계: 11개 자산 72부문(1970~2005)”,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3호, pp. 141-191.
- 한국개발연구원 KDI(2000),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구축 및 분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0, 2005 외). 『한국 관광위성계정(TSA) 개발』, 문화관광부.
- 한국은행(200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 한국은행(1997), 「1993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임재영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내부연구진 ·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이종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임병철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13-05 ·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 II

글쓴이 · 임재영외 4인 /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3년 12월 31일 / 발행 · 2013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162(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221-9 03350

<http://www.cdi.re.kr>

© 2013,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